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민요에 나타난 한국여성의 현실대응방식 고찰

濟州大學校 大學院

한국학협동과정

孫 奕

2017年 2月

민요에 나타난 한국여성의 현실대응방식 고찰

指導教授 許 南 春

孫 奕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12月

孫奕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12月

A Study on the Korean Women's Ways of Responding to Reality in Korean Folksongs

Yi Sun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oo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6.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Nam-Choon Heo, Prof. of Korean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I. 序論	1
II. 좌절과 비애의 유형	5
1. 가족으로 인한 좌절과 비애	6
1) 어머니의 죽음과 개가	7
2) 아버지의 후실장가와 계모 학대	11
3) 오빠의 의심과 냉정	13
4) 친정식구의 냉대	17
2. 시집으로 인한 좌절과 비애	19
1) 시부모	20
2) 시누이	24
3) 남편과 첩	28
4) 가난과 과중한 노동	41
III. 현실대응방식의 양면성	50
1. 부정적 대응	51
1) 한탄과 체념	51
2) 도망과 출가	52
3) 죽음과 복수	56
4) 외도로 사랑 실현	61
2. 긍정적 대응	63
1) 낙천과 해학	64
2) 반전의 슬기	72
3) 사랑과 용서	77
4) 초현실적 극복	81
IV. 한국여성민요 속의 긍정적 여성의식	86
1. 낭만성과 상상력	86
2. 아름다움 추구	89

3. 높은 이상과 대범함	92
4. 진취성과 문제의식	93
V. 結論	96
※附錄	99
※參考文獻	105
※中文提要	109

I. 서론

민요는 한 나라나 한 민족의 생활상의 반영이며 그 민족의 옛 사람들이 삶의 희노애락을 호소한 소박하고 순수한 민족시이며 민족문화의 정수이다. 따라서 민요에는 그 나라나 민족의 핵심 정신이 담겨져 있다. 민요는 민중의 삶이 가장 진솔하게 표현된 문학 작품과 예술이며 민요를 통해 민중의 진실한 내면세계를 알 수 있다. 그 속에는 민중의 의식이 녹아 있다. 민중들 삶의 애환, 정서, 현실이나 상관인물에 대한 인식체계,¹⁾ 세계관, 미의식 등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그 민족의 민족생활, 향토생활 양식 그리고 윤리관, 세시풍속, 예의범절, 민속, 세태를 알 수 있다. 임동권의 『한국민요집』, 『한국민요논고』,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 박경수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정동화의 『한국민요의 사적 연구』, 최철의 『한국민요론』, 좌혜경의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등에서 한국민요의 유형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민요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데 창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대략 남성요, 부요, 동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韓)민족은 음악적으로 예민한 민족이라 감수성이 뛰어나서 풍부하고 다양한 민요자료를 남겼으나 전부 연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본고는 주로 조선조부터 근대초기의 여성요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 시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선택된 민요 자료중에는 일제강점기의 민요 자료 몇 가지도 포함돼 있다. 또한 민요를 구성하는 요소는 음악적 요소, 연행(演行)적 요소 그리고 사설적 요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는 음악적 요소와 연행적 요소보다는 사설적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유식층들은 글 쓰는 기교 훈련을 받아 글을 쓰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인간의 자유로운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출해 내지 못한 면이 있다. 반면 민중들은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며 생긴 모든 감정과 자유분방한 발상들을 거리낌 없이 나타냈다. 유교와 남성우월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1)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92, p.185.

여성들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의무와 책임만 부여 받았다. 이런 남성우월주의에 의해 표현과 소통의 기회를 차단당한 여성들이 억압된 정서와 스트레스, 불만을 해소하는 공간이 바로 민요였다. 민요는 실제로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 및 외부세계와의 소통 통로가 되었고 일종의 말하기 회복의 호소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옛 여성의 계층적, 성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옛 여성들은 계층적, 성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남성의 부속적인 존재이었음이 보여졌다. 남성들은 권위를 부리고 축첩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순종과 정절을 지키는 것을 강요했다. 그 다음으로 미학적 측면에서 민요에서 드러난 비장미, 우아미, 골계미 등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골계미에 초점을 두어 한국민요에 나타난 풍부한 해학성을 드러내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족지측면에서 민요에서 드러난 한국 여성의 특성도 살짝 살펴보았다. 한국 여성들의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낭만성,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높은 이상과 대범함, 진취성과 문제의식 등 특성들이 점차 드러났다. 이런 과정을 걸쳐 본고는 다음과 같이 사설을 중심으로 여성민요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한국 여성들에게 억압과 구속이 되어 한국 여성들의 좌절과 비애를 초래했다. 여성들이 어떤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에 대응했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힘겨운 삶 이면에는 고난을 극복하는 낙관적 삶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여성민요에 관한 고난의 삶과 그것을 극복해 내는 삶에 대해 고찰하려 하고 여성민요의 사설 중심의 문학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현실대응방식과 의식체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둘째, 한국여성들은 가정 또는 사회에서 역할에 따라 여러 여성형상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딸로서 또는 미혼 시 처녀로서, 결혼 후 아내로서 첩으로서 엄마로서, 시부모에게 며느리로서, 시누이에게 올케로서 등등 민요에서 나타난 여성역할별 형상을 살펴보겠다. 또한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같은 사건에 처해 있어도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역할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라 다른 유형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 시집살이에서 시부모의 구박에 대해서 적극적 반항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택한 자도 있고 참아서 사는 자도 있으며 낙천적 태도를 취한 자도 있다. 본고에서는 부정적 대응 방식보다 긍정적 대응

방식에 초점을 두고 그 의의를 제시하도록 한다.

셋째, 여러 형상들을 드러냄으로써 한국 여성들의 삶, 여성들의 자신에 대한 의식, 상관인물에 대한 의식 및 사회나 현실에 대한 의식 그리고 여성들의 삶의 양상이 빚어낸 사회적 제도적 요인도 밝혀진다. 신분적, 성적 차별에 따른 봉건적인 가족제도와 유교적인 지배 이데올로기 또는 남성우월주의가 얼마나 반인간적인 삶을 이끌어왔는가가 밝혀질 것이고 또한 고난 속에서도 비관적 부정적 대응 태도보다 긍정적 자세로 생활의 기쁨을 찾아냈던 옛 여성들의 지혜를 발견하고자 한다. 그 지혜와 긍정적 에너지는 현재까지도 퇴색하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보고 그 지혜를 오늘에 되살려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인 삶, 민족적인 삶으로부터 나아가 세계 여성들의 바람직하고 건강한 인간적인 참 삶을 추구하는데 방안을 검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넷째, 민요 사설이 나타내는 민중의 삶 특히 그중에서 한국 여성들의 삶 그리고 민요사설이 전달하는 의미, 그리고 사설 자체의 문학적, 미학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지닌 인생관, 세계관, 미학관을 탐색하고자 한다. 동시에 민요를 매개로 연구함으로써 그 민족의 특수한 자질인 민족성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한다. 여성들의 정서와 감정의 표출 방식과 기법에도 접근해 보고 기쁘면 무엇으로 환희를 표현하고 슬프면 슬픔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사물을 차용하여 표현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옛 여성들의 미학적 예술적 의식 경향 및 여성민요 속의 비장미와 아ული 골계미, 우아미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민요에 관한 중요한 업적을 발표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啓明大學出版部, 1970.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集文堂, 1982.

임동권, 『여성과 민요』, 집문당, 1989.

서영숙, 『한국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亦樂, 2009.

위 단행본 외에 여성민요에 대한 다시각적인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 성과로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임재해는 「여성민요에 나타난 시집살이와 여성생활의 향방」에서 시집식구들과의 관계 양상, 시집생활의 고난과 즐거움에 대해 고찰하였다.

서영숙은 「충북 여성 민요의 정서 표현양상과 현실의식」 에서 충북 여성 민요 정서 표현의 두 가지 양상 및 현실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강진옥은 「여성 서사민요 화자의 존재양상과 창자집단의 향유의식」 에서 시적화자의 시선과 작중인물과의 관계, 화자의 시선이 포착한 공간과 현재성 그리고 창자집단의 향유의식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옥희는 「말하기 방식으로서의 여성민요」 에서 말하기의 실현 방법, 말하기의 문화적 의미를 밝히려고 했다. 이정아도 「서사민요와 대중가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 에서 남녀 간 연애를 주제로 한 노래를 중심으로 서사민요와 대중가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의 차이와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장연분홍은 「전남지역 시집살이 노래 연구」 에서 전남지역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갈등과 해소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갈등 요인과 갈등 해소 방식 그리고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전통적 여인상을 제시했다.

길태숙은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에서 <쌍금쌍금 쌍가락지>, <누명쓰고 자살한 며느리>, <진주낭군>, <큰어머니 노래> 등 노래를 예로 이 노래들에서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노래의 주체가 되는 여성이 죽는다는 것과 그 죽음이 자살의 형태를 보이며, 노래 안에서 여성의 자기표현의 통로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정한기는 「영남 지역 <모심는소리>의 애정 노랫말에 나타난 정서와 그 의미」 에서 애정을 화제로 한 노랫말에 나타난 정서와 그 정서가 지닌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창식은 「민요의 성담론과 사랑 표출양상」 에서 성의 흥미성과 진정성, 그 양면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학성은 「시집살이 노래의 서술구조와 장르적 본질」 에서 동아시아 미학에 기초하여 중이 된 며느리의 서술구조와 장르적 본질을 검토해 보았다.

박지애는 「사례를 통해 본 여성민요의 소통과 전승 현장」 에서 여성민요의 현재적 소통방식과 전승 상황 그리고 여성민요 구연의 현재적 가치와 전승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또는 「영남지역 서사형 시집살이노래의 통시적 변화와 특징」 에서 중이 된 며느리 유형을 중심으로 서사형 시집살이노래의 유형별 전

승 현황과 사실의 동시적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김원덕은 「시집살이노래와 여성 개인서사의 상관성」에서 시집살이노래와 여성 개인서사의 관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함복희는 「시집살이 민요 스토리텔링의 치유적 효과」에서 강원지역 민요를 중심으로 전통사회 여성들에게 시집살이 민요의 치유 기능과 현대사회에서 민요의 치유효과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위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민요에 나타난 현실의 여러 면모, 표현 양상, 말하기 방식, 전승 양상과 방향 등에 대해 두루 연구한 바 있는데 현실대응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본고는 여성들이 현실의 여러 면모를 다시 고안해서 현실에 대응해 여성들이 취했던 대응방식에 대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응방식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또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 여성민요를 바라볼 때 느꼈던 점을 보태어 진행하도록 한다. 본고의 민요자료는 주로 임동권의 『한국민요집』 1-5권과 조동일, 서영숙의 서사민요자료를 취하고 있다. 임동권의 『한국민요집』은 전국 다지역, 광범위의 민요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서사민요자료도 조동일, 서영숙에 의해 자세한 유형 분류가 이뤄져 있어 본고의 연구목적에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저서나 논문 속에 사용된 민요자료도 선택한 것들이 있다.

민요는 민족 생활을 노래한 한 민족의 문학유산으로 소중히 간직해야 하며 민요속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찾아내어 啓示로 삼아 미래의 길을 가야 한다.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관념과 방식을 연구하고 모색함으로써 한국여성들뿐만 아니라 세계여성들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계시적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좌절과 비애의 유형

우선 한국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겪었던 고난과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갖는 역할을 나누어 딸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겪었던 고통과 원한 또는 이 모든 고통과 원한이 빚어낸 사회적, 제도적 요인

을 탐색해 보려고 한다. 다음 장에서 여성들이 삶에 나타난 고통과 불합리에 대해 어떤 자세나 태도로 대응한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여성들의 인생관, 내면세계, 삶과 현실에 대한 의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여성들의 대응방식과 의식 속에서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어 현명하게 행복을 이루는 길을 모색해 본다.

조동일과 서영숙은 서사민요의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분류한 바가 있고 참고로 부록 부분에 실었다.²⁾ 조동일과 서영숙의 서사민요 자료 또는 임동권의 『한국민요집』에 수집된 자료를 결합하여 종합해 보면 한국여성 좌절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가족으로 인한 좌절과 비애를 우선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죽음이나 개가, 아버지의 후실장가와 계모의 학대, 오빠의 의심과 냉정 그리고 시집 간 후 출가의인으로 여겨져 친정식구로부터 받은 냉대, 그리고 조실부모 후 삼촌식구들로부터 받은 학대 등 유형들이 있다.

둘째, 시집식구로 인한 좌절과 비애이다. 여기에는 시부모에 대한 증오, 시누이에 대한 미움, 남편의 죽음이나 배신 또는 구박 등으로 인한 상실감, 배신감, 소외감 또는 첩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 그리고 시집 머슴 등 기타 인물과의 갈등으로 생긴 울분 등 유형들이 있다.

이 외에 기타 유형의 좌절과 비애도 있다. 예를 들어 가난, 과중한 노동 그리고 개인적 결함으로 인해 시집 못 가 노처녀가 되어 가는 것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등으로도 좌절한다. 다음에는 각 유형의 좌절과 비애에 대해 자세하게 고찰해 보도록 한다.

1. 가족으로 인한 좌절과 비애

가족은 누구에게나 늘 따뜻하며 보호해 주고 지지해 주는 존재이다. 하지만 때

2)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역락, 2009, pp.51-54.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출판부, 1970, pp.158-161.

로는 가족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실망 심지어 절망하기도 한다. 여성민요에서 이런 감정은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감정은 주로 엄마의 죽음과 개가, 아버지의 후실장가와 계모 학대, 오빠의 냉정과 의심, 시집간 후 친정식구의 냉대 등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가장 친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슬픔 그리고 출가의 인으로 간주되어 생긴 소외감, 절망감 등 모두 가족 때문에 생긴 비애이다.

1) 어머니의 죽음이나 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조건 없이 사랑해 주고 지켜 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이다.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한테는 어머니가 있어야 안전감이 생기고 마음 편히 자랄 수 있다. 어머니의 위치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

(1)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좌절인지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그리움을 아이는 노래를 부르며 달랜다.

가) 제비제비 저제비야 강남갔던 저제비야
너희들은 나는듯이 재고빠른 네날개로
여기저기 돌아다녀 먼데까지 봤을테니
우리엄마 찾아다오3)

나) 다복다복 다복녀야 너어디로 울며가니
우리아기 달래려고 젓먹이러 울며가네
우지마라 우지마라 너어머니 오마드라
어느때나 오마든가 3년묵은 쇠뺨다구
살불거든 오마드라3년묵은 쇠뺨다구
썩기쉽지 살불겠나 우지마라 우지마라
너어머니 오마드라 어느때나 오마든가
부뚜막에 삶은콩이 썩기쉽지 썩나겠나
우지마라 가지마라 너어머니 오마드라
어느때나 오마든가 병풍속에 그린닭이

3)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367, 1537번.

썩기쉽지 왜치겠나 ……4)

다) 다복다복 다복녀야 너는어디 갔다오나
우리엄마 산소에야 젓맛보러 간다온다
이슬많아 못간단다 이슬많음 털고가지
산이높아 못간단다 산높으면 기어가지
물이깊어 못간단다 물깊으면 헤엄치지
우리엄마 산소가니 흥도개꽃 피었더라
그꽃꺼어 먹었더니 우리엄마 젓맛이라⁵⁾

라) 타박타박 타박머리 송금송금 슈아내어
영서새라 금보되에 곱다랗게 배를나서
남원장에 팔아다가 엄마사리 갔었드니
오이전에 오이났되 엄마전은 아니났네
미치고도 그든년아 엄마전이 어디있노⁶⁾

가)는 제비를 보고 “너희들은 나는듯이 재고빠른 네날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데까지 봤을테니” 하고 엄마를 찾아 달라는 것이다. 제비들이 높이 날아다니니까 분명히 자기보다 먼데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가락지 너줄거니……가져가서 팔아다가 그돈으로 노자삼아” 가락지를 노자로 챙겨 주기까지 하고 엄마를 찾아 달라고 부탁한다. 엄마가 어서 집에 돌아와서 “젓도많이 먹여주고 저녁거리 장만하고 다독다독 채우면서 자장자장 자장가야 어머니는 날과함께 동산밑에 마주앉아 바느질도 배워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베도짜고 옷도깁고”라고 노래한 것처럼 엄마한테 바느질도 배워 보고 베도 짜고 옷도 깎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길 바라는 것이다. 중국에서 백세에도 엄마를 원한다는 말이 있듯이 딸한테는 엄마가 유일한 조건 없이 사랑해 주고 보호해 주는 존재이기에 언제까지나 함께 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3년 묵은 쇠뿔다구 살붙으면, 부뚜막에 삶은콩이 싹이 나면, 병풍속에 그

4)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373, 1554번.

5)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164.

6)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p.127.

린닭이 해치면 “너어머니 오마드라” 하며 어머니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늘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죽은 어머니도 부활할 수 없음이 자각되면서 체념의 길에 들게 된다. 다복녀노래는 다른 각편들도 많다. 다)에서는 죽고 없는 어머니를 애절하게 그리워하며 어머니의 산소에 찾아간 것이다. 하지만 산소까지 찾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도중에 이슬도 많이 내릴 것이고 산도 높고 물도 깊어 어려움을 많이 만날 것이라고 누군가가 알려 준 것이다. 그러나 이 많은 곤경에도 불구하고 “이슬 많음 털고가지, 산높으면 기어가지, 물깊으면 헤엄치지” 하며 딸이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내어 산소에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같은 유형의 다른 버전에서 “뱀이 있으면 숨어가고 귀신오면 빌고가지”라고 다른 유형의 고난이 있다. 하지만 모든 고난에 해결책까지 생각해낸 것이 공통점이다. 엄마 산소에 피어 있는 홍두개꽃을 꺾어 먹었더니 “우리엄마 젓맛이라”고 한 것이다. 얼마나 그리우면 엄마 산소에 자란 꽃에서 젓맛을 느끼게 되었을까. “저기가는 저상여는 남상연가 여상연가/저승길 가거들랑 우리엄마 만나거든/어린자식 보챌다고 백수병에 젓을 짜서/한숨으로 마개막아 무지개로 끈을달아/저나리소 저나리소 안개속에 저나리소”⁷⁾이 민요에도 젓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엄마의 죽음에 관한 노래 중에 젓 얘기가 자주 등장한다. 엄마가 극도로 보고 싶어 하여 엄마 젓이 생각 날 정도로 마음이 약해져서 아기상태로 돌아간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라)는 엄마를 사러 갔더니 오이가 나는 전이 있되 엄마가 나는 전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다.

서영숙은 다) 유형의 민요는 모두 딸이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홀로 서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열매와 꽃 등을 통해 어머니의 젓맛을 느끼고 돌아옴으로써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어머니가 더 이상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어머니의 젓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장관하는 여인으로 탈바꿈한다……. 딸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홀로 서서 진정한 성인이 되며 자기자신도 ‘어머니’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일종의 입사요적 성격을 띤다고 분석했다.⁸⁾

좌혜경은 오랑참외, 재령참외, 알락참외, 홍두개꽃 등을 어머니의 젓과 등가물

7)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p.128.

8)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亦樂, 2009, p.156.

인 것으로 본다. “참외나 홍두깨꽃을 따먹음으로써 어머니를 만날 수 없는 욕구 좌절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곧 정신적인 평형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적응과정…… 환경에 적응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노력 과정과 인간의 성숙되는 모습이 잘 나타나는 노래”⁹⁾라고 제시했다.

엄마 젓맛이 난다는 것은 뼈저리게 엄마가 그리운 만큼 마음이 약해져 엄마 젓을 먹어야 살아나고 자라나는 아기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가장 약한 상태를 겪은 후 여자가 더욱 성숙해지고 강인해져서 엄마에 대해 의지한 마음을 접고 독립적으로 앞날을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된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를 추념한다. 또한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를 그리워 하는 아픔을 이겨낼 힘을 얻어 더욱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자가 되어간다고 본다.

(2) 어머니의 개가

엄마의 죽음 외에 또 딸을 슬프게 하는 것은 살아 있어도 곁을 떠나 없는 것이다. 엄마가 이승에 있어도 개가하거나 자식을 두고 떠나거나 가까운 곁에 없는 것에 대해서도 한을 토로한다.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이해 불가하듯이 노래하며 원망한다.

실패같은 울어머니 분통같은 나를두고
임의정도 좋지마는 자식정을 떼고가네
걸고가네 걸고가네 자식정을 걸고가네¹⁰⁾

죽일년아 살릴년아 대동강 철독에 목벨년아
어린자식 잠들어놓고 병든가장 밀쳐놓고
새벽바람 찬바람에 보따리싸기가 웬말인가¹¹⁾

저건너라 무주산에 무주병풍 둘러치고
해달보다 나은엄마 질핀같은 나를두고
병든아비 재워두고 우는애기 젓물리고
갓부렸네 갓부렸네 입을따라 갓부렸네

9)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p.130.

10) 임동권, 『한국민요집』 5, 集文堂, 1993, p.291, 898번.

11) 임동권, 『한국민요집』 5, 集文堂, 1993, p.292, 900번.

.....12)

버림을 받은 아이는 자식을 버리고 간 엄마에게 “임의 정도 좋지마는 자식정을 걸고가나”라며 따져 묻듯이 원망한다. 엄마가 저승도 아니고 이승의 멀리 있는 곳도 아니고 가까운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린자식 잠들어놓고 병든 가장 밀쳐놓고” 간 여인에게 “죽일년아 살릴년아 대동강 철독에 목벨년아” 하고 여인의 자식과 남편에 대한 냉정함에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자식정을 걸고 간 엄마를 원망하는 만큼 곁에 있어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만큼 안전한 데가 없기 때문이다.

“아가아가 우지마라 너그마니 돌아온다/녹수바래 죽순심아 그죽순이 왕대되야/왕대끝에 용이얏어 용의몸에 꽃이피여/그꽃따서 손에들고 엄마찾어 가고지라”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상상이다. 가는 왕대 끝에 엄청난 크기의 용이 얏을 수도 없고 용의 몸에서 꽃이 필 수도 없고, 상상의 동물인 용이 출현할 수는 더더욱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한다면, 엄마와의 재회는 불가능하다는 비극을 강화시켜 보여준다. 죽은 엄마를 만날 수 없다는 비유는 다양하다. 다른 것들을 내다 팔아 엄마를 사러 간다거나 엄마 나는 전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낭만적이고도 슬픔을 띤 발상일까? 소박하면서도 한국여성들의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낭만적 기질이 돋보인다. 그야말로 예술적 소질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해야 되겠다. 상상력과 낭만성이 만나면 문학과 예술이 태어나게 된다. 평민여성들인데 분명히 아무런 글을 쓰는 기교 훈련이 없었을 텐데 말이 나오자마자 예술이 된다니. 풍부한 발상과 낭만적 기질이 합쳐지면 더 이상의 가공이 없이 이러한 천연적 작품을 낳는 것 같다 .

2) 아버지의 후실장가와 계모 학대

엄마가 죽고 없으면 엄마에 대한 의지가 아버지에게로 전이된다. 엄마로부터 받을 보살핌은 이제 아버지한테서 받았으면 한다. 하지만 여성민요에서 아버지는 그런 慈父보다 계모의 말만 믿고 자식들을 보살피는커녕 괴로움만을 가져 주는 형상으로 등장한다.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한 한은 늘 근본적으로 계모에게 원

12)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373, 1557번.

인이 있다. 즉 아버지와 계모는 자식들을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자살케 하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이런 아버지와 계모로 인한 고난을 같이 고찰해보기로 했다.

가) 앵두같은 딸을 두고
외씨같은 아들두고
뉘가불버 장개가노
.....
명태고기 고길령강
뜸북쟁이 쟁일령강
다신어미 어밀령강¹³⁾

나) 장개가네 장개가네 쉰다섯에 장가가네
머리신대 먹칠하고 눈빠진대 불콩박고
이빠진대 박씨박고 코빠진대 골미박고
.....¹⁴⁾

다) 청태산 백마지기 평풍산 도랑뱀이
지슴동동 띄어놓고 물가득 실어놓고
옥제라 정자밑에 시로시로 잠이들어
전실아기 잠자는데 다신애미 점심사서
와서보고 돌아간다 애비에게 말을해서
자는애를 죽였구나¹⁵⁾

가)는 “다신어미 어밀령강” 하면서 다시엄마에 대한 거부를 토로한 것이고 나)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신대 먹칠하고 눈빠진대 불콩박고 이빠진대 박씨박고 코빠진대 골미박고” 젊은 척하고 후실장가를 간 아버지를 조롱조로 노래한 것이다. 다)는 계모의 말만 듣고 아이들이 잠잔다고 해서 죽여 버린 어리

13) 구비대계7-9, 안동군 입하면 4, <서모 노래>, 배분령(여,75세), 1981.8.11, 임재해 조사.

14)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396, 1629번.

15)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397, 1630번.

석은 아버지 모습을 드러낸 노래이다.

계모요는 ‘어머니의 죽음→아버지의 再娶→계모의 학대→前妻 자식의 죽음→후실장가의 만류’¹⁶⁾라는 전개 과정을 취하며 자꾸 계략을 부리는 계모에 대해 증오하고 엄마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엄마는 이미 죽고 없고 아버지라도 곁에서 지켜 주었으면 하는데 아버지는 계모의 말만 듣고 어리석은 짓을 해댄다.

계모요에는 세 가지의 감정이 들어 있다고 본다. 자기 엄마에 대한 그리움, 계모에 대한 증오와 거부, 아버지에 대해 자기를 지켜 주기를 바라는 기대와 계모의 말만 듣고 판단 능력을 잃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미움 등 세 가지이다. 계모는 전처 자식들을 흰자위로 보거나 때리거나 못살게 굴어서 자살케 하거나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남편과 자식 사이에 고자질이나 이간질을 하는 것으로 남편의 손을 빌려 전처 자식을 제거하는 것 등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아버지는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 줄 만큼의 사랑과 보살핌을 주는 것으로 자식들이 엄마를 결여하는 유감을 없애 주는 것이 도리인 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못 살게 구는 데 공범이 돼 주기까지 한다. 자식들 마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다. 서영숙은 “어머니를 잃은 자식에게 아버지의 재혼은 새어머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조차 잃는 것이었다”¹⁷⁾고 분석했다. 자식들이 죽음을 당한 후 파랑새로 환생해서 날아가면서 ‘후실장가 가지마소’ 하고 호소하는 것이다. 엄마를 잃은 것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아픔인데 아버지조차 잃을까봐 두려워서 노래하면서 호소한 것이다. 또는 이렇게 호소함으로써 아버지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라거나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는 계시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간접적으로 계모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계략을 그만 부리고 악한 마음을 수습하도록 하라는 경고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오빠의 의심과 냉정

오빠도 여성민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오빠가 긍정적 형상으로 등장하는 민요도 있는데 부정적 형상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많다. 부모님 외에 동생을 살피 주고 보호해 주는 역할보다 동생에게 설움을 가져 주고 실망시키는 역할을

16)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p.130.

17)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亦樂, 2009, p.183.

한다. 동생의 행동을 간섭한다든가 동생한테 나눠 줄 것 없이 거의 전부 재산을 차지한다든가 집 재산을 걸고도 출세를 못한다든가 하는 못된 형상으로 민요에서 등장한다.

가) 수건을 담정을넘어 천리만치 가고야지야
울오람씨 진주별정 그 기막혀 못가겠네¹⁸⁾

나) 우리오람씨 남잔골로 논도차지 밭도차지
대궐같은 집도차지 하늘같은 부모차지
요네나는 여잔골로 목고가는 밥뿐이요
입고가는 옷뿐이요 시켜주소 시켜주소
글공부나 시켜주소¹⁹⁾

다) 멩텅구리 우리오빠 과거보러 서울가서
노비열량 빼앗기고 급제장원 꿈꾸다가
낙제퇴각 만나고서 어제저녁 개짓는대
살작들어 자는꿀은 똑미워서 못살겠네²⁰⁾

가)는 오빠가 자기의 행동 자유를 제한해 주는 방해자라고 한 것이다. 나)와 다)는 모든 재산을 차지하는 오빠에 대한 미움을 토로한 노래들이다. 자기가 여자인 이유 때문에 재산도 별로 못 받고 글공부도 못한다거나 오빠가 재산을 차지했는데 출세를 못해도 평소와 다름이 없이 잠에 잘 든다는 꼴이 보기 싫다는 것이다. 남매간 갈등의 원인 중에 재산 분배 불공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빠에 대한 한은 어디 이뿐인가? 때로는 오빠의 냉정으로 인해 원통한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라) 쌍금쌍금 쌍가락지 호작질로 뺏아내어
먼데보니 달일레라 곁에보니 처자레라

18) 류중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p.307.

19)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394, 1618번.

20)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394, 1619번.

그처자의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일레라
말소리도 둘일레라 흥당흥당 오라버니
거짓말씀 말아주소 죽고저라 죽고저라
명주천대 목을매여 자는듯이 죽고저라
.....21)

마) 강실강실 비운끝이 시누여올케여 빠적구나
건지다보니 동생일세 동생일랑은 짓혀놓고
마누라를 건져나보세 무정하오 무정하오
우리오빠두 무정하오 꽃과같은 이내몸이
봉어뱀이 웬말이오22)

라)에서 오빠가 누이에 대해 “자는방에 숨소리가 둘일레라 말소리도 둘일레라” 하고 어떤 남자와 같이 방에 있나 해서 누이의 부정을 의심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받은 누이는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하고 만 것이다. 마)는 물에 같이 빠졌을 때 “건지다보니 동생일세 동생일랑은 짓혀놓고 마누라를 건져나보세” 동생을 밀쳐 놓고 올케만 구한 것에 대해 한을 토로한 노래이다. 동생보다 마누라를 먼저 구출한다는 것은 남매간의 정보다 부부사랑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오빠가 사랑의 대상을 전이하자 동생이 이로 인한 서러움과 질투도 없지 않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 오빠가 누이동생이 마지막 엄마의 얼굴을 보려 하는 데 장례에 늦었다는 이유로 구박만 하고 누이동생의 소망을 들어 주지 않은 방해자로 나타난 노래도 있다.

오빠에 대한 노래도 하나의 유형이 될 정도로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한국민요이라고 본다. 오빠가 올케에게만 댕기를 사 준다든가 같이 물에 빠졌을 때 올케를 우선으로 구출한다든가 오빠-동생간의 정은 올케의 나타남으로 희박해지고 잊혀지자 동생이 서러움을 감추지 못해 노래로 표출한 것이다. 여자애에게는 오빠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자랑이다. 부모님 외에 오빠도 그나마 하나의 보호자로 여긴 것이다. 하지만 올케의 나타남으로 인해 오빠가 더 이상 그런 보호자가 되

21) 임동권, 『한국민요집』 4, 集文堂, 1993, p.632, 1514번.

22) 구비대계4-6, 공주군 반포면5, <남매노래>, 박옥례(여, 68세), 1983.5.3, 박계홍, 황인덕 조사.

어 주려 하지 않든 될 여유가 없든 간에 그로 인해 한이 생겨나고 오빠와 부정적 관계로 변하고 만 것이다.

서영숙은 “달래강 전설”을 예로 들어서 남매 사이에 원천적으로 멀어질 수 있는 성적 갈등도 제시했다.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 내재하는 성적인 선망과 질투에서 사건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오빠는 여동생에게 다른 남자가 있을 수 있음을 여동생은 오빠에게 자기보다 더 소중한 여자가 있을 수 있음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비극이 생겨나는 것”²³⁾이라고 보기도 한다. 여동생이 오빠에 대한 원망은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 내재하는 성적인 선망과 질투에서” 생겨난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되는 남성 중심적 가족제도 속에 여성이 배제되고 억압되는 현상 때문이다.

류종목은 “오빠가 자기 아내만 건져 내고 누이동생을 건져내지 않았다는 것은, 외면적으로는 위기 구출의 순서를 상징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성의 선택이라 해석된다. 이 경우 물에 빠진 여자란 곧 성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내는 ‘생명의 성’과 ‘쾌락의 성’²⁴⁾ 어느 쪽이든 모두를 충족시키는 대상이므로, 윤리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누이의 존재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마련이다. ……남매로서, 누이는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쾌락의 성’을 극복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물에 익사할 수 밖에 없다”²⁵⁾고 분석했다.

또한 서영숙은 이런 오빠-동생 관계의 노래는 ‘성장통의 노래’로서 문학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의 죽음은 오빠에게 의지했던 나약한 여동생의 ‘신체적 죽음’으로서 오빠로부터 유리되어 독립된 성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정신적 환생’을 의미한다”²⁶⁾고 했다. 이런 노래의 주 향유층인 시집가기 전 여자들이 오빠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서영숙은 보는 것이다. 이런 노래를 듣고 전창함으로써 미혼 여성들이 시집가기 전후에 오빠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자세 조절이 진행된다. 즉 이런 민요는 어느 정도 여성들에게 독립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도록 계시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으로 생각된다

23)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亦樂, 2009, p.217.

24) 류종목은 홍수남매혼전설의 성은 ‘자식 낳기’의 성으로, ‘생명의 성’, 달래고개전설에서 소나기에 젖은 누나의 몸을 보고 정욕을 느낀 동생은 자책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이 경우의 성은 ‘쾌락의 성’, 이때 누나는 자신의 윤리를 저버려서라도 동생을 살리려는 일종의 ‘생명의 성’이라고 간주함.

25)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체조명』, 민속원, 2006, p.310.

26)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亦樂, 2009, p.220.

다. 오빠에 대한 정과 사랑이 있어도 되긴 하나 오빠에 대한 강한 의지와 기대를 접는 것이 낫겠고 독립적으로 삶을 준비하고 개척해야 한다는 힌트를 준 것으로 보여진다. 이 유형의 민요는 여자에게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교훈을 주고 반성하게 하는 노래라고 해도 되겠다.

4) 친정식구의 냉대

친정식구에 대한 좌절의 또 하나의 유형은 주로 시집식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친정식구들이 보여준 냉정한 태도에 의해 생긴 것이다. 위로는커녕 친정식구는 친정식구대로 구박을 가한 것에 대한 설움이 그것이다. 친정식구들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이자 더 이상 退路가 없어 죽음의 길을 택한 사례가 많다. 친정식구의 냉대로 인한 소외감, 절망감은 때로는 옛 여성의 생에 대한 마지막 희망과 열정을 抹殺해 버린다.

가) ……

이친정이라고 찾아가니 친정어머니 하시는말씀
예라요년아 너같은자식이없다 내차면서 하시는말씀
너 같은 자식이 없다하니 대문밖을 썩나서서
어쩔할꼬 가이없네 이내사신세 가련하구나
이내신세를 어찌할꼬 허방지방 다니다가
현뫼가를 지내다보니 연뫼이있구 가련함뫼 죽어볼까
…….27)

나) ……

시나리 실적 시아버님 일어나서 조반자와
예라 요년 듣기 싫다 너나먹고 개나 쥐라
그 질루야 돌아와서 친정이라 찾아가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 예라 요년 돌아서라
우리 집에 오지 마라 ……28)

27) 『한국구비문학대계』 3-1[소태면 민요9] 베틀노래. 충주시 증원군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 1979.11.12, 김영진, 맹택영 조사. 김채용, 역, 47.

28) 김친순 채록, 『삼척의 소리기행』, 삼척시립박물관, 2000, p.174.

앞에 말한 바가 있듯이 딸에게 있어서 엄마는 늘 조건 없이 사랑해 주고 보호해 주는 존재이다. 친정집은 비바람을 막아 주는 港灣이고 외부세계에서 힘겨움과 부당을 느꼈을 때 늘 우선으로 찾아 가려는 의지처이다. 시집에서 당한 부당함에 대해 친정집에 가서 위로기는 커녕 “친정어머니 하시는말씀 예라요년아 너 같은자식이없다 내차면서 하시는말씀 너 같은 자식이 없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예라 요년 돌아서라 우리 집에 오지 마라”라는 말을 친정부모로부터 들었다. 이것은 또 다른 유형의 구박을 당한 것이다. 바라는 것과 정반대가 되니 실망이 얼마나 컸겠는가. 연못으로 뛰어 들어 죽을 수 밖에 없었다. 친정부모 말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듯이 친정오빠도 누이동생을 괴롭히는데 한 몫을 한 것이다.

다) ……

다섯 모퉁이 돌아서니 친정집에 당도했네
 오빠 오빠 우리 오빠 대문 쪼끔 열어주소
 예라 이년 몹쓸 년아 부모님 얼굴을 불라거든
 어제 아래 올 것이지
 썩이 썩이 올케 썩이 대문 쪼끔 열어 주소
 예라 이 사람 몹쓸 사람 부모님 얼굴을 불라거든
 어제 아래 올 것이지 예라 썩 물러서라²⁹⁾

겨우 시집식구들의 방해를 뚫고 친정집에 찾아 갔는데 “예라 이년 몹쓸 년아 부모님 얼굴을 불라거든 어제 아래 올 것이지” 하며 동생이 늦게 왔다고 구박한다. 오빠 또한 방해자인 것이다. 시집식구들과 같이 오빠도 동생을 괴롭힌 공범이 된 것이다. 친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마지막 희망을 없애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친정식구의 냉대에 대한 여성의 반응은 다양하다. 개는 반기는데 집안사람들은 냉대를 한다. 그래서 중이 되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이상은 여성들이 가족에 대한 한을 고찰한 것이다. 가족으로 인한 좌절과 비애는 주로 엄마의 죽음이나 개가, 아버지의 후실장가와 계모의 학대, 오빠가 자신

29) 민요대전, 무주2-26, <시집살이노래>“춘아 춘아 옥단춘아”, 박해경(남, 65세), 1990.11.29.

에 대한 불신과 냉정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시집 간 후에 출가외인으로서 가족에서부터의 소외감으로 인한 한도 있다. 이 외에 삼촌식구들의 학대도 가족으로 인한 좌절 중의 한 유형이다. “……다섯살에 삼촌집으로 차츰차츰 찾아가니/삼촌 맥 밥하다가 부춧뎡이로 몰아내네/삼촌의는 마당쓸다 마당비로 몰아내네……”³⁰⁾ 조실부모한 여자가 삼촌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好衣好食은커녕 매 맞는 일도 피하지 못하였다. 가족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역시 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기대하고 원한 것이다. 특히 시집살이가 고되고 행복하지 못할 때 가족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기대만큼 사랑을 얻지 못하고 의지처도 돼 주지 않아서 실망이 두배로 커져 한으로 전환한 것이다.

2. 시집으로 인한 좌절과 비애

친정식구로 인한 좌절과 비애 특히 친정엄마에 대한 한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자기 곁에나 이 세상에의 부재함에서 생긴 것이다. 즉 가장 사랑한 대상인물의 없어짐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기대한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한 것 즉 사랑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생긴 한과 슬픔이다. 하지만 시집식구로 인한 좌절과 비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주로 구박과 부당을 당한 것에서 생긴 울분과 분노이다. 시집식구로 인한 좌절과 비애는 주로 시부모와 시누이, 남편 등과의 갈등 때문에 생긴다. 또는 축첩제도가 허용되는 시대라서 첩과의 사랑다툼, 시기심으로 생긴 한도 많았다. 시집살이하는 데 생긴 한이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무현은 여성 노동요의 양상을 고찰한 바가 있는데, “가난호소, 사별, 눈치, 눈물, 학대, 시집살이의 고통, 고독, 불안, 시부모 험담, 시어머니 죽음의 찬양, 시앗, 약식, 약담, 원수살해, 노동거부, 허무, 시기, 과부, 여성자신의 부인, 팔자타령, 숨씨걱정, 속씨임, 청춘고”³¹⁾ 등으로 여성 노동요의 양상을 정리했다. 이 중 대부분의 고난과 부정적인 정서는 시집살이에서 일어난 것이고 시집살이는 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가에 주 원인이 된

30) 임동권, 『한국민요집』 1, p.143, 560번.

31) 김무현, 『한국 노동 민요론』, 집문당, 1986, pp.145-148.

다고 할 수 있다.

1) 시부모

시부모는 옛 여성들이 행복한 시집살이하는 데 가장 큰 방해자들이다. 민요 속에서 시아버지는 때로 상냥한 모습으로 나타나 며느리를 감싸 주기도 하는 데 대체로 시어머니와 같이 가장 권위를 부리고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형상이다. 며느리에게 폭언을 쓰고 모욕하고 폭행까지 쓰기도 한다. 주목할 것은 남권을 가지고 있는 시아버지보다도 시어머니는 늘 독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며느리에 대한 구박 방식도 더욱 다양하다.

가)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든고
애구야야 말도마라 발뚧축이 동글다고
달걀갈다 흥을하고 허리맵시 가늘기도
버들갈다 흥하더라³²⁾

나) 시금시금 시아바님 아직조석 늦었니더
아직조석 잠우시소 이미늘아 저미늘아
너나먹고 개나조라 시금시금 시어마님
아즉진지 늦었니더 아즉진지 잠우시소
이미늘아 저미늘아 너나먹고 개나조라³³⁾

다) 시집가든 사흘만에 묵고지라 묵고지라
모래다래 묵고지라 뒤편으로 돌아가서
올긋불긋 대추낭게 한개따여 입에열고
두개따여 품에열고 나올라고 돌아서니
하늘길은 시애비가 도둑늬같은 발을가주고
요리차고 조리차고³⁴⁾

가)는 “발뚧축이 동글다고 달걀갈다 흥을하고 허리맵시 가늘기도 버들갈다 흥

32)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안동시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안동군 임동 민요 12.

33)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안동시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안동군 서후면 민요 18.

34) 임동권, 『한국민요집』 4, 集文堂, 1993, p.278, 623면.

하더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예쁜 모습조차 흉을 본다. 나)는 시부모는 며느리가 밥을 준비한 수고도 불구하고 늦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심지어 “너나먹고 개나조라” 하며 모욕까지 한다. 다)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대추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발로 차 폭력을 쓴 것이다. 며느리의 생김새를 가지고 흉한다든지 며느리를 개와 동일시한다든지 대추를 먹었다고 해서 발로 찬다든지 며느리는 시집에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즉 이중적 고통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 며느리가 시집에서 받는 구박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의 사회 제도하에 여성들이 시집에서 부당하게 당하는 일이 보편적이니까 다양한 구박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옛 여성의 시부모 시집살이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며느리가 시부모에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의 심정을 담은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집에 시어머니 염치도 좋아/저 잘난 걸 낳아 낳고 날 데려 왔네/날 데려 왔거들랑 볶지나 말지/요리 볶고 조리 볶고 콩 볶듯 하네/시어머니 속곳 가랭이 불 질러 놓고/진주야 남강에 물 길러 가세”³⁵⁾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앙갚음하고 싶어 하는 심정이다. 이와 비슷한 심정을 담은 <세원수 노래>가 있다. 시부모와 논밭에 있는 잡초들을 세 원수로 삼고 “세원수를 잡아다가 당사실로 목을매어/한강수 물에다가 빠져 죽이자고”³⁶⁾ 하는 시부모가 죽었으면 할 정도로 시부모를 증오한다.

.....

앞밭에라 이수갈아 분홍치매
 뒷밭에라 쪽을갈아 쪽저고리 곱게곱게 해서입고
 우리 꺼먹소에 채반해서 한짐실어
 흰개잡아 짝집지고 흰닭잡아 웃집지고
 청두밀야 가고지고
 메늘아가 그개 무슨 소리냐
 소씨가 꺼치씨를 쓰시고 마당에 거니시니
 개씨가 짓습니다³⁷⁾

35) 김월덕, 「시집살이노래와 여성 개인서사의 상관성」, 『한국민요학』, 제33집, 한국민요학회, 2011.

36) 장연분홍, 「전남지역 시집살이 노래 연구」, 全南大學校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7.

37) 『한국민요대전』 충북편 3-4 영동 시집살이노래 2 (사춘성님), 1995.8.10. 용산면 신항2리 수리, 김소용 여, 1911.

.....

시때씨야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먹지
자내먹고 개나주고 발매러나 가라무나
개야개야 밥먹어라 너와나와 둘이먹자
.....38)

위의 첫번째 노래는 익살스럽고 독자로 하여금 웃음이 나오게 하는 노래이다. 시집살이의 어려움 때문에 친정에 가고 싶다는 심정을 시아버지에게 들킬까봐 “소씨가 끼치씨를 쓰시고, 마당에 거니시니 개씨가 짖습니다.”라고 존댓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스워도 웃지 못하는 며느리의 비극적 처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시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며느리의 부당한 처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슬픔에 빠져들지 않게 만든다. 웃음 후 여자의 가엾은 처지가 한층 더 뚜렷해진다. 시집식구에 대한 두려움과 시집에서의 지위가 맨 아래 층에 있다는 자의식이 얼마나 컸으면 소와 개에게도 존댓말까지 했을 것인가. 두번째 노래는 역시 시집식구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외로움 끝에 어쩔수 없이 개와 친하게 지낼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시집이라는 공동체에서 혼자 타인인 소외감과 외로움에 시달린다. 아무리 둘러봐도 마음을 털어 놓을 사람이 없어 개에게 위로를 받기도 했다. 이것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 옛 여성들의 생활상이다. 이런 생활상을 보면 여성도 인격이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하지만 가장 심한 것은 며느리의 친정엄마의 부고가 와도 집안일을 마치고 가라고 친정엄마의 장례식에 가는 데 방해하는 데 있다.

.....

부음장왔네 부음장왔네 어마죽어 부음장왔네
사랑문을 반만열고 아배아배 시아배야
큰방문을 반만열고 어마어마 시어마야
갈라누마 갈라누마 어마죽어 갈라누마
에라요년 요망한년 다짜놓고 가라하네
다짜놓고 갈라하니 셋거놓고 가라하네

38) 임동권, 『한국민요집』 2, 集文堂, 1980, p.345, 999번.

씻겨놓고 갈라하니 풀해놓고 가라하네
 풀해놓고 갈라하니 다듬어놓고 가라하네
 옷해놓고 가라하네 ……39)

친정부모의 부고를 받아도 할 일을 마치고 가라고 한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서러울 일이 있을까 한다. 한국여성 성격의 두 개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집식구들의 그토록도 배려심이 없는건지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죽어도 “가단말이 웬말이나 아래밭에 장찬골을 다매놓고 가라무나 ……”⁴⁰⁾ 하며 집안일을 다하고 가라니. “다짜놓고 가라하네” 짤 것을 짜 놓고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씻겨놓고 가라하네”, 씻을 것 씻고 또 “풀해놓고 가라하네…… 다듬어놓고 가라하네…… 옷해놓고 가라하네” 시부모에게는 며느리의 친정엄마는 집안일보다 덜 중요하다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라 친정부모이든 시부모이든 오직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자유도 권리도 갖지 못했다. 이것은 인권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탓이었고 여자를 억압하고 천대하는 봉건사상과 제도의 탓이었다. 또는 독한 시부모도 역시 그 시대와 제도의 산물이라 하겠다. 한국민요를 살펴다 보니 시집 갈등에 관련된 민요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경수는 시집 갈등 양상과 어려운 시집살이의 양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① 시집살림 살기가 힘들다
- ② 밥을 힘들게 매고 왔으나, 시집식구가 구박하다
- ③ 먹기 어려운 밥을 주다
- ④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
- ⑤ 몰래 음식(또는 과일)을 먹다 시집식구에게 들키다
- ⑥ 어렵게 차린 반찬이나 음식을 흥보다
- ⑦ 며느리의 나이가 생긴 모습(키 등)을 흥보다
- ⑧ 가져온 패물이 적다고 흥보다
- ⑨ 재수없는 며느리라고 구박하다
- ⑩ 살림(양동이 등)을 파손해서 곤경에 처하다

39) 임동권, 『한국민요집』 2, 集文堂, 1980, p.327, 970번.

40) 임동권, 『한국민요집』 2, 集文堂, 1980, p.322, 965번.

- ⑪ 첫날밤에 남편이 죽어서 청상과부가 되다
- ⑫ 시집을 가니 시집식구가 병자이거나 불구자이다
- ⑬ 남편이 외도를 하다
- ⑭ 시집식구를 무서워하다⁴¹⁾

종종 억압과 구속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가슴이 점점 좁아지고 남에 대한 특히 동성에 대한 질투나 적의가 점점 심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남을 괴롭힌 자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남을 괴롭힌 자들이 가해자인 동시에 그들도 역시 가시밭을 걸어 왔던 불쌍한 희생양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 시대의 여성이 피해자로 살다가 가해자로 변신하여 다시 멀쩡한 여성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시켜 피해자로 만드는 악순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옛 제도가 만들어 낸 비극이다.

2) 시누이

시누이는 시부모들이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늘 동조자 역할을 한다. 시누이는 늘 고자질꾼과 방해꾼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하루저녁 일하다가 무정하는 잠이 와서/마늘한쪽을 묵었더니 간새 같은 시누년이/일렀든가 절렀든가 차고박고야 한 이야기/에라요거 못하겠다……”⁴²⁾ 울케의 실수를 쉽게 넘어가 주지 않고 그것을 확대하여 고자질을 통해 울케를 부정하려 한다. 시누이뿐만이 아니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다른 시집식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민요 자료를 살펴 보면 유독 시누이에 관한 노래가 많았다. 노래에 등장하는 시누이들은 울케의 옷을 찢어 놓거나 꽃이나 작물을 마구 꺾어 놓고 울케의 짓이란고 모함한다. 며느리들이 노래에서 호소한 것처럼 시부모외에 시누이의 시집살이도 견디지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가) ……

큰방철방 뚜다리며 시아바님 진지잡수
진질량은 아니먹고 양식죽가 내어주고
밥죽가 감었다고 호령났네 아이구나

41)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p.228.

42) 한정애, 여, 54세, 전남 고흥군 풍양면 매곡리 매곡, 1983.7.28, 김승찬, 광의숙 조사, 『한국구비문학대계』 6-3, 2002, 383쪽.

답답해라 내서름아
골방철방 두다리며 시누동생 밥을먹소
밥을랑은 아니먹고 물족가 지려주고
밥되게 했다고 호령났네 아이구나
답답해라 내서름아43)

나) 깨끼깨끼 깨끼적삼

.....
입자해도 손때묻고 벗자해도 손때묻고
줄에걸어 줄때묻고 화에걸어 헛때묻고
도리도리 한칸방에 니모반듯 장판방에
어허중침 피어놓고 들만보고 날만보고
야시갈던 요시누야 들만뜯고 날만뜯고
나올나올 다뜯었네44)

다) 전라감사 못머느리 나리감사 못말애기

아홉식구 도는정재 수저놓기도 난감한디
새천대천 치는꽃을 날로도나 끊었다네
매울손가 매울손가 우리집이 시누애기같이도 매울손가
.....45)

라)

시어머니방에 들어가니
바느질대로 나를치네
내방이라고 들어가니
서방체것이 붓대로나를치네
부엌에는 들어가니
시누체것이 불때다가
부지땡이로 나를치네

43) 임동권, 『한국민요집』 4, 集文堂, 1993, p.279, 626번.

44)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안동시군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안동군 북후면 민요1].

45) <시누로 인한 누명노래>, 김쌍남(여, 56세), 정금순(여, 60세), 1981.7.

뒷간에를 들어가니
 머슴체것이 똥죽가래로 나를치네
 ……46)

가)는 시누이도 시부모와 같이 며느리가 지은 밥에 대해 불만을 토한 것이다. 나)는 시누이는 올케가 “입자해도 손때묻고 벗자해도 손때묻고 줄에걸어 줄때묻고 화에걸어 화때묻고” 소중히 간직한 적삼을 다 뜯어버렸다는 것이고 다)는 “새천대천 치는꽃을 날로도나 끊었다네” 시누이가 한 짓인데 올케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모함하는 다른 각편도 많다. “안먹은 연자절편을 먹었다 나무라고 시누애기가 꺾은 사랑앞의 화초대는 내가 꺾었다고 나무란다”, “시누가 깬 옥동이도 내가 깬 것이고 시누 끊은 목단 꽃도 내가 꺾은 것이라 나무란다”, “나무가 그냥 죽은 것인데고 내가 죽인 것이고”, “원래 끊겨있는 베틀대인데도 내가 그런거라 하고 시누가 끊은 양초도 내가 끊은 것이다”, “……절로 죽은 거위새끼도 내탓이다”⁴⁷⁾ 등 모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초대, 목단 꽃, 양초, 옥동이 등 시누이가 한 짓인데 올케에게 뒤집어씌우고 안 먹은 연자절편을 먹었다고 의심하고 그냥 죽은 나무와 거위새끼도 모든 잘못 된 일은 며느리의 탓으로 돌린다. 며느리는 남의 식구이자 여성이기 때문이다. “열아홉이 목은공구 나하나를 넘어라고” 하듯이 모든 식구 중에 며느리 혼자만 타인이다.⁴⁸⁾ 친정식구에 의해 출가외인으로 간주되고 시집 와서도 입가외인인 신세가 된 것이다. 라)에서는 시집식구들이 각자 자기가 쓴 바느질대, 붓대, 부지뎡이, 똥죽가래 등 도구로 며느리를 때린다. 시누이는 올케가 자기보다 연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함부로 행동한다. 동성끼리의 시기심도 없지 않으나 시부모가 가진 권위가 배경이 되어 준 것이라고 하겠다. “밥을랑은 아니먹고 물족가 지려주고 밥되게 했다고 호령났네”, “시누체것이 불때다가 부지뎡이로 나를치네”라는 것은 시누이도 시부모처럼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듯이 호령내거나 때리거나 모욕하는 짓을 한다. 올케가 꽃을 끊었다고 모함한 것이나 올케가 애지중지한 적삼을 자른 것 등을 살펴보면 시누이와 며느리간의 갈등은 늘 시누이의 일방적인 도발로 발단이 된다는

46) 임동권, 『한국민요집』 4, 集文堂, 1993, p.300-301, 682번.

47)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여성문학연구』 9, 예림기획, 2003.

48)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여성문학연구』 9, 예림기획, 2003.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 받을 것은 라)에서 “머슴체것이 똥죽가래로 나를치네”라는 것이다. 설령 시부모는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어 또는 시누이는 부모의 권위의 힘을 입어 며느리를 구박을 한다 하더라도 머슴도 며느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한다. 민요 자료를 살펴 보면 머슴이 며느리를 무시하는 노래가 적지 않다고 알 수 있다.

“중머슴아 상머슴아 아즉진지 늦었는데/어서먹고 들로가자 오권네요 조권네요/너너먹고 개나조라”⁴⁹⁾, “……대문곁에 눕던개가 요권네야 요권네야/그걸사 일이라고 점심참 되어오나/마당거래 들어서니 큰머슴이 내다보고/그걸사 일이라고 점심참 되어오나 ……”⁵⁰⁾, “계엄시런 시아버지 하득할사 시어머니/야이덕이 시누이와 엄수덕이 말동새며/요약하다 아오동세 여호 같은 시앗년에/거새도다 남노여복”⁵¹⁾ 등 다 머슴이 며느리를 구박하는 노래들이다. 머슴도 시부모가 며느리를 구박한 어조로 “너너먹고 개나조라” 하며 며느리를 공경스럽지 못하게 대한다. 일에 시달리고 배가 고팠으나 점심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어 집에 돌아갔더니 시집식구는 물론 머슴도 고까짓 일을 하고 왔느냐고 편잔을 준다. 이에 임동권이 “머슴이나 개마저 빈정댄다는 것은 과장이지만 일에 시달리고 시집에서 학대도 받는 며느리의 처지가 보여진다”⁵²⁾고 머슴의 구박은 과장인 것으로 보는 시각인데 며느리는 시집에서 존중 못 받는 처지인 것을 머슴도 눈치를 챘을 것이고 그래서 머슴이 주인집 며느리에게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한 것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시집에서 눈치밥을 먹다보니 주눅이 들어 소심해져 “……대문곁에 눕던개가 요권네야 요권네야/그걸사 일이라고 점심참 되어오나” 하며 개가 짖는 소리에 민감하여 개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라고 본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듯이 옛 여성들의 시집살이는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이다. 시부모가 권위를 부리고 며느리를 모욕하고 폭력까지 쓰고 시누이도 말리는 척하면서 시부모의 동조자이고 심지어 머슴도 며느리를 무

49)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안동시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안동군 서후면 민요 18].

50)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131.

51)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p.333, 민요218.

52)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132.

시하고 구박한다. 시집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며느리는 가족 구성원으로서보다 노동, 번식과 양육, 시부모 봉양을 책임지는 의무만 부여 받는 존재이다. 심리적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과 억압, 과중한 노동 등 전통사회 여성들의 삶에 충만한다. 시집살이하는 데서 생긴 한은 가부장제적 억압 이데올로기 등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낸 정서의 산물이다. 옛 여성들이 시집 간 후 친정에서 출가외인으로 간주되고 시집에서 입가외인인 신참자로서 실제로 시집의 성원으로 편입되지 못한 것이다. 어디에 가도 외인의 처지를 면하지 못하고 주변적 위치에 있는 주변인이다. 강진옥은 시집살이 노래류에서의 시집식구와 며느리의 관계는 소통장애의 대표적 사례일 것이라고 했다. “……인물들 사이의 소통을 성취하는 진정한 대화는 부재한다. 소통의 장애는 며느리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집식구들의 일방성에서 빚어지고 있다”⁵³⁾고 소통의 결여와 장애는 여성적 현실과의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옛 여성들이 표현과 소통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오직 순종을 강요 받아 비극이 빚어진 것이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누이와 올케간의 갈등으로 보아 여성들끼리의 소통 결여와 소통 장애도 심각하여 같은 사회적 약자인 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고 여자들끼리 스스로 비극을 감독하고 출연하게 되고 그 비극의 후원과 관람자는 남자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3) 남편과 첩

남편은 여자에게는 일생의 동반자이다. 이 동반자는 동시에 시집식구중의 일원이다. 남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비애도 면하지 못한다. 남편에 대한 한은 주로 남편의 죽음이나 부재로 인한 상실감, 그리움, 고독 등 또는 남편의 무능, 자기에 대한 구박, 축첩 등으로 인한 미움, 혐오, 원망 등이 있다.

(1) 죽음

여성은 보편적으로 남편에 대한 의지적인 감정이 있는 편이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삶의 전면이 뒤흔들린다. 특히 재가를 불허하는 시대에 남편의 죽음은

53) 강진옥, 「여성 서사민요 화자의 존재양상과 창자집단의 향유의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2.

남은 생의 고난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할 수 있다.

서울 넓은 연병장에
삼천만 민족이 다 오는데
남의 님은 다 오시는데
우리 님은 못 오시나
원자탄에 맞아 죽었나
외국 나라를 유람 갔나
강원도 금강산 피리봉이
평지가 되면 오실라나
여주 벽절 돌부처가
말문이 열리면 오실라나
병풍 안에 그렸던 학이
두 날개 치면 오실라나
가마솥에 푹 삶은 개가
쿵쿵 짓으면 오실라나
논산 갯경 기러기가
훈련을 받으면 오실라나
.....54)

일제강점기 징용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워 한 노래이다. 임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으면 원자탄에 맞아 죽었다는 것부터 기러기가 훈련을 받았다는 표현까지 상상의 폭이 이렇게도 넓을 수가 있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날에야 자기의 소원이 이뤄진다는 표현 기법은 한국민요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이다. 죽은 어머니가 그리웠을 때 뿐만 아니라 죽은 님이나 떠나 돌아오지 않는 님을 그리워 할 때도 이런 기법이 자주 등장한다. 삶은 콩이 다시 싹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어머니이든 죽은 님이든 다시는 못 돌아올 것을 각오하고 노래로 아픔이나 한을 풀면서도 점점 체념하게 된다. “앗았으니 임이 오나 누웠으니 잠이 오나 임도 잠도 아니 오고 이 내 세상을 어이 살까” 하며 님의 부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앞날이 어두워 불안하고 방황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54) 신경림, 『민요기행』 1, 문이당, 2005, p.150.

가) ……

올라가는 과거선비 내려가는 과거선비
우리선비 안오든가 오기사 오데마는
七星板에 실러오네 아이고답답 내八字야
馬上을랑 엇다두고 칠성판에 실리오노
……

너는죽어 대가되고 나는죽어 분내되어
서울이라 지치달아 황구사 사랑앞에
꽃밭에 만나보세⁵⁵⁾

나) 달아달아 밝은달아

저달은 獨子라도
이세상은 다보는데
이내눈은 兄弟라도
우리님 계신곳을
못보는구나⁵⁶⁾

다) 첩첩산중 늙은범이

살찐암개 물어다놓고
이가없어 먹들못하고
응어르릉 응어르릉 응그른 소리
청춘과수가 기둥을 잡고 뱅뱅돈다
노들강변에 비둘기한쌍
불콩한달을 물어다놓고
수놈이물어서 암놈을주면
암놈숫놈이 어르는소리
청춘과수가 기둥만잡고 뱅뱅돈다⁵⁷⁾

가)는 靑孀謠이다. 靑孀謠이나 寡婦노래는 주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을 잃은

55)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188.
56) 임동권, 『한국의 민요』, 일지사, 1986, p.27.
57)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集文堂, 1982, p.135.

고독을 한 노래이다.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간 남편이 壯元及第해서 돌아오기를 고독을 참으면서 기다렸으나 뜻밖에도 七星板에 실려 온다는 것이니 희망의 정상에서 절망의 구렁으로 떨어지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체념하려 해도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는 모순된 심리가 나타난다. “너는죽어” 약쑥, 쟁피, 제비, 대가가 되고 “나는죽어” 님과 만날 수 있도록 군지, 주사, 남기, 분내가 될 것이라고 저승에서라도 의 좋게 만나는 것을 언약하는 것이다. 님이 죽고 변신한 것에 맞춰서 변신하여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그런 장면들을 상상함으로써 이승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된다. 기대를 가져서 살아간다. 나)~다)에서는 달을 봐도 임생각, 비둘기를 봐도 임생각, 주변 사물을 무엇을 보든 임생각이 난다는 것이다. 비둘기는 의 좋은 꼴을 본 과부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기둥만 안고 돌게 된다. 猛虎가 이가 없어서 살찐 암캐를 먹을 수가 없어 안타깝고, 과부는 나이 젊어도 고독 속에 홀로 살 수 밖에 없는 신세는 호랑이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기둥을 잡고 뱅뱅돈다”는 것은 영화의 한 처량한 장면처럼 관람자에게 끝없는 처량감을 남겨 준다. 비둘기와 맹호 외에 자기와 우는 닭의 유사점을 찾아 내어 자기의 처지를 표출한 노래도 있다.

울고새는 장닭의고기	(울고 날새는 장닭의 고기
아니먹젠 원정일러라	아니 먹으려고 원정일러라
동지섣달 지나진밤에	동지섣달 기나긴 밤에
닭의소리 내벗일레라	닭의 소리는 내 벗일레라
닭의 소리 밤닭의소리	닭의 소리 밤닭의 소리
소리조차 서팔아서라	소리조차도 서글웠더라) ⁵⁸⁾

동지섣달 긴긴 밤을 울음으로 지내는 기구한 여인이 자신처럼 새벽을 우는 닭 소리가 마냥 서글퍼서 자신의 신세와 닮은 장닭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의지가 노래된 각편이다.⁵⁹⁾ 스스로에 대한 자기연민이 포함되어 있다. 장닭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가 장닭에게 배려를 베풀듯이 자기도 이런 배려를 얻었으면 하고 자기를 끝이 없는 고독 속에 놔 두지 말라는 호소로 이해된다. 동식물의

58)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p.162.

59) 위와 같음.

속성의 대한 파악 방식은 봉건적 윤리의식이나 억압된 생활양식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이다.⁶⁰⁾ 닭울음소리는 슬프게 들리고 쌍으로 다니는 비둘기를 보고 홀로 있는 자신과 비교하여 슬픔에 빠져든다. 동식물이나 자연물을 보는 여성들의 시각은 그때 당시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의 반영이라고 본다. 종종 억압 속에 살다 보면 개가 짖는 소리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가 날아다니는 것만 봐도 슬픈 감정에 잠겨 든다.

라) 정월이라 십오일에 새해로다 새해로다

찬란한 오색옷을 갖추 갖추 갈아입고
 때를지어 노니는 정월이라 새해로다
 산위에 높이올라 망월하는 소년들아
 우리님은 어디가고 상원인줄 모르시고
 ……

그달그믐 겨우보내 선달이라 제석날에
 설한풍 몰아치는 캄캄타 한밤이야
 어이혼자 사잔말가 돌아오는 구십춘광
 놀과함께 맞으려오 슬프도다 이내정절
 높이높이 지키리라⁶¹⁾

청상의 고독과 그리움을 노래한 월령체 장편민요다. 님 생각은 늘 나지마는 특히 명절 때면 더욱 그리워진다. 청상과부는 님을 생각하는 속에 달을 보내고 해를 보내게 된다. 주목할 것은 마지막에 “슬프도다 이내정절 높이높이 지키리라”라는 여자의 다짐이다. 자신을 둘러쌓여 있는 틀에 불편하고 외롭고 슬퍼도 결국에는 그 틀에 맞춰서 살기로 하는 모순된 심정이 드러난 노래이다. 틀에 구속돼 있다고 느꼈어도 그 틀을 지키고 맞춰서 사는 것이 자량으로 내세운 타협 자세의 여성 형상이다. 사회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도 속에 포함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의식과 현실의 괴리이다.⁶²⁾ 어쩌면 타협의 과정을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사회 발전에 따라 틀이 저절로 소멸되거나 어떤 힘에 의해

60)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92, p.119.

61)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103, 472면.

62)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亦樂, 2009, p.281

강력하게 타파되거나 틀이 없어지기까지 타협의 길을 가는 것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나 답이 요구된다.

마) ……

이천지에 만물들은 때를따라 시를찾아
철철이도 오건마는 우리임은 아니오네
멀고멀다 황천부사 어찌그리 멀다듣고
하늘이라 높다해도 사시삼경 이슬오고
서울이라 멀다해도 과거선비 왕래하고
대국이라 멀다해도 석달만에 돌아오고
뿔이그리 재미있어 황토흙을 말을삼아
때단재미 집을지어 이것이 재미는가
까막까치 벳을삼아 이것이 재미는가⁶³⁾

가)~라)에서 본 바와 같이 여자는 님의 부재에 대해 온갖 상상을 다 했다. 온갖 상상을 다 해도 답이 안 나온다. 마)에서 대체 님이 저승에서 무슨 재미를 붙여서 안 돌아오냐는 것이다. ‘죽음’과 ‘재미’ 서로 관계가 먼 두 어휘가 이 민요에서 관련을 갖게 된다. 재미라는 것이 늘 한국인의 입에 오가는 어휘인 것 같다. 이에 한국인의 국민성이 보여 진다. 살아 있어도 죽어도 재미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살아 있으면 어떤 재미로 살고 죽으면 저승에서 ‘뿔이그리 재미있어’ 하고 묻는다.

임동권이 한국민요에 나타난 민족성에 대해 체념, 낙천성, 소박성, 도의성, 유태성, 해학성, 신앙성, 숙명성⁶⁴⁾ 등을 들고 있다. 鄭東華는 민족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9가지를 주장하였다. 즉 낙천성, 소극성, 순종성, 인내성(끈기), 은근성, 순박성, 情義性 情誼와 義理성, 향락성, 근면성⁶⁵⁾ 9가지이다. 선학들이 정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韓민족의 전형적인 민족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으나 다른 민족들에 비해 韓민족의 또 하나의 민족성은 흥이 많고 재미가 없으면 못 견딘다는 것이라고 본다. 앞에서도 말한 바가 있듯

63) 임동권, 『한국민요논고』, 민속원, 2006, p.231.

64) 정동화, 『한국민요의 사적 연구』, 일조각, 1981, p.99.

65) 정동화, 『한국민요의 사적 연구』, 일조각, 1981, p.99.

이 놀 때는 신나게 흥겹게 忘我하게 놀고 어떤 자가 외모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함을 재미로 보고 웃고 놀리고 괴롭힘을 당할 때 괴롭힌 편에게 재치 있게 조롱하고 풍자하면서 반항한다. 님이 부재 시 무슨 재미로 경치를 감상하고 무슨 재미로 명절을 지내냐고 노래하기도 하고 죽은 이에게 저승에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묻기도 하고 그렇다. 삶에 있어서 재미를 선호하고 중요시하는 민족이라고 봐도 되겠다. 이런 재미를 따지고 흥이 많다는 민족성은 늘 열정으로 전환하여 삶에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재미 요소를 찾아내어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반대로 이런 재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암울한 면을 잊게 하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내는 활력소이다. 재미로 사는 삶은 마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점점 이 문화 밖에 사람들로 하여금 향기를 맡게 돼 찾으러 오게 한다. 외국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찌면 이런 재미와 흥이 韓민족 문화의 매력을 한 층 더 해 주기도 한다.

(2) 무능

남편이 남편처럼 유능하지 못하거나 출세하지 못하거나 노력이나 진취심 부족 등에 대해서도 원망한다. 또는 남편의 성적 무능에 대해 교묘하게 주변 사물을 차용하여 불만을 토로한다.

가) 어항창 영두껍아

책소린들 잠이오나
 글소린들 잠이오나
 얹거덜랑 껌지말고
 껌거덜랑 얹지말고
 여보당신 그말마오
 얹고싶어 얹었는가
 껌고싶어 껌었는가⁶⁶⁾

나) ……

놈의땀 서방님은 순사칼을 찬디
 우리집 대문둥이는 부직맹이로 차네

66)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안동시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안동군 북후면 민요 7.

에야라난다 뒤여여로 사리랑 사리랑 살어보세⁶⁷⁾

다) 정선읍내 물레방아는

잘도물살을 안고서
천길천길로 도는데
이방중에 앉은손님은
나를안고 돌줄모르네⁶⁸⁾

라) 심산첩중 딱따구리

생나모구영도 똥는데
우리집 낭군님
똥버진구영도 애똥똥노⁶⁹⁾

가)와 나)는 못생기고 글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즐기만 하는 남편을 책망하는 노래이다. 사랑스럽지 못하거나 존경스럽지 못한 남편에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남편의 노력 결여 자세를 부정한 것이다. 또는 남의 남편과 비교하여 출세를 하지 못한 자기 남편의 무능함을 한탄한 것이다. 다)와 라)는 여성 화자가 남편의 성적 무능에 대한 교묘한 토로이며 남편의 성적 무능을 원망하고, 나아가 성에 대한 갈망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고추, 물레방아, 딱따구리 등 별 거 아닌 것들을 가지고 묘한 연상을 한다는 것은 뛰어난 상상력 외에 한국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유머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남편의 무능에 불만과 고민을 웃음이 나올 만큼 교묘하게 토로함으로써 쌓여 있는 울분을 풀려고 한다. 이런 유머식 표출 방식이 채택된 것은 여성들이 이미 어느 정도 현실을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게 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해도 될 것 같다. 이미 괴로워했던 것들을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보다 더 성숙한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유머감은 세상살이를 하는 데의 좋은 자세이다. 이런 유머가 있어야 세상이 다채로워지고 인생의 백미가 느껴지게 한다. 삶이 아무리 고되어

67) 강등학,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2006, p.140.

68)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안동시군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안동군 북후면 민요9.

69)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안동시군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안동군 임하면 망천동, 권분눔, 70세.

도 살 만할 것이라고 인식케 한다.

“아저씨는 코가 커서 언니는 좋겠네”⁷⁰⁾ 이와 같이 코로 상징되는 남성기를 노래한 것도 있다. 현실 속에서 윤리, 도덕 등 제도라는 문 안에 닫혀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세계이지만, 민요 속의 성은 남녀 모두에게 숨기거나 가리지 않고 담론의 문이 열려 있다. 성에 관하여 아무리 심하게 묘사된 담론이라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⁷¹⁾ 이런 노래를 통해 평민들의 가식 없는 진솔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류종목은 그것은 저속해 보일 수도 있는 데 실제로 성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고 했다.

(3) 남편에 의한 구박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는 데 남편이 버팀목이 돼 주기만 하면 그나마 참고 견딜 수도 있는데 남편까지 우호적이지 못하고 다른 시집식구의 편에 들어 주면 그 소외감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된다. 남편을 포함한 시집식구들의 배타성은 며느리를 절망적 처지로 몰아넣는다.

.....

사람문을 열고보니 승냥이같은 서방님이앉았네
나는가요 나는가요 시집을 버리고나는가요
가려며는 가려무나 네년아니면 마누라감이없겠느냐
대문간을 나서보니 배가고파 못가겠네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을지어 마쳐들고
큰방문을 열어놓고 시어머니 밥먹어라
옷방으로 들어가서 시누이야 밥먹어라
사랑으로 들어가서 서방놈아 밥쳐먹어라⁷²⁾

시집식구, 때로는 친정부모, 오빠, 남편에서나마 사랑을 느꼈으면 다행인 것이고 남편까지 시집식구와 같이 구박을 가하면 여자의 생은 온통 한밖에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며느리가 떠나는 의지를 보이자 시어머니는 “가려며는 가려무나 네년아니면 메느리감이 없겠느냐” 하고, 시누이도 “가려며는 가려무나 네년아니

70) 임동권, 『한국민요집』 2, 集文堂, 1980, p.472, 1280번.

71)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체조명』, 민속원, 2006, p.327.

72) 임동권, 『한국민요집』 4, 集文堂, 1993, p.294, 657번.

면 올케감이 없겠느냐” 하고 시어머니와 같이 며느리를 구박한다. 행여나 남편이
가지 말라고 말릴 수도 있으니 사랑문을 열었더니 남편도 다른 시집식구와 같은
어조로 “가려며는 가려무나 네년 아니면 마누라감이 없겠느냐”라고 한 것이다.
남편이 지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집식구와 같이 자기에게 못 살게 군다. 이
에 대한 분노는 “서방놈아 밥쳐먹어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어린 신랑

한국과 중국 모두 옛날에는 조혼제도가 있었으니 어린 신랑에 대한 웃지도 울
지도 못할 한이 많았을 것이다.

노랑두 대가리
물레줄 상투
샘문에 앉아서
밥달라고 훌쩍훌쩍⁷³⁾

앵도나무 밤을송겨 풀잎같이 어린님을
수만듯이 키와놓니 불이불네 불이불네
이내간장 불이불네⁷⁴⁾

꼬시랑머리에 물레테 땡기
언제나 커서 내낭군될라
에라라난다 뒤여여로 사리랑 사리랑 살어보세⁷⁵⁾

신랑이 아직 어리니까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여자가 아내도 못 되고 엄
마도 아닌 애매한 신세가 되게 만들었다. 여자들이 밤에 젓 달라려니 밥 달라려
니 울어대면 또 달래야 하는 어린 신랑이 다 클 때까지 키워야 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어린 신랑이 다 컸어도 끝까지 아내의 심정을 몰라주는
이가 있다. 아내의 십여년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기
생첩과 놀아나는 짓을 하여 결국 여자는 원통한 죽음으로 마음의 고생을 끝내는

73) 임동권, 『한국민요논고』, 민속원, 2006, p.98.

74)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p.71.

75) 강등학,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2006, p.140.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국에도 조혼제도나 어린 신랑에 관련된 민요들이 많다. 비교연구가 기대된다.

(5) 축첩

一夫多妻가 허용되는 축첩제도는 여자끼리 사랑 다툼을 하게 만든 근원이다. 몇 명의 여자들이 한 남자를 공유하니까 서로 질투하고 심지어 서로 사생결단을 하려 하는 일도 있을 수밖에 없다. 男尊女卑와 男權專橫의 남성우월주의 주도하에 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차별이다.

가) 달아달아 밝은달아 남의창에 비친달아
 님홀로 누웠느냐 어느부랑자를 품었느냐
 명월아 본데로 일러라 남에로 사생결단
 76)

나) 밥한냄비를 달달볶아서 두연놈이 다먹고
 간난이하고 나하고돌으는 저녁끓어 잤네77)

다) 한모실에 세첩한놈아 (한 마을에 세 첩을 한 사람아)
 세술밑에 불삼아보라 세 술 밑에 불 때어보아라
 내만나명 불아니난다 연기만 나면서 불은 아니 난다)78)

라)
 어떤새는 낮에도운다 어떤새는 밤에도운다
 요새저새 날같은새야 밤낮몰라 무염새더라
 전처소막 兩妾한놈아 꽃밭에다 불지른놈아
 高牆靜裡 기뻐인놈아 大川바다 가운데들어
 거리잃어 달진밤새라79)

가)는 달에게 “님홀로 누웠느냐 어느부랑자를 품었느냐”고 님의 행실을 알려

76)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301, 1189번.
77) 강동학,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2006, p.144.
78)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2, p.165.
79) 임동권, 『한국의 민요』, 민속원, 2006, p.253.

달라는 것이다. 다른 여자를 품고 있으면 사생결단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나)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 밥을 다 먹어 버렸고 화자와 아이는 굶어야 했다는 내용이다. 처자를 돌보지 않아 굶고 잘 수밖에 없는 곤경에 빠뜨리는 가장을 문제삼으며 고발한 것이다. 다)는 한 번에 세 개의 술에서 밥을 지어 보라 하며 남성의 상징으로 ‘불’을 , 여성의 상징으로 ‘술’을 표현한 것은 적절한 대상물의 차용으로 남편의 행실을 비유하고 있다. 라)는 “兩妾한놈아” 하면서 “大川바다 가운데들어 거리잃어 달진밤새라”라고 저주까지 한 것이다.

남편에 대한 한은 주로 남편의 죽음이나 부재, 남편이 출세하지 못하거나 성적 무능, 남편도 시부모의 편에 들어 구박하는 것과 남편이 어려서 제대로 남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남편은 때로 다른 시집식구의 편에 들어도 남편에 대한 감정은 다른 시집식구들과 다르다. 시집살이노래를 살펴보면 시부모나 시누이는 늘 고통만 주는 존재이기에 거의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뿐이다. 이에 비해 남편에 대한 감정은 복잡하다. 남편과 달콤한 사랑에 대한 기대, 자신을 지켜 주길 바람도 있는 것이다. 남편이 그런 기대와 바람에 어긋난 행실을 한 것으로 인한 실망과 미움은 심지어 다른 시집식구보다 더 클 수가 있다. 남편에 대한 한은 또 하나가 있다. 즉 남편의 불충실이다. 축첩제도는 옛 여성들에게 한꺼번에 미워할 두 가지의 대상을 가져온 셈이다. 하나는 위에서 서술한 다른 여자나 첩과 놀아나는 남편이고 또 하나는 남편을 유혹하고 자기 곁에서 빼앗아 간 첩이다. 첩의 나타남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받을 사랑의 양과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만큼 고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처첩 사이는 늘 대립과 적대관계의 양태로 나타난다. 축첩제도 자체의 불합리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저 자기와 사랑다툼할 상대인물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같은 축첩제도의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처첩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안 돼 서로가 상처를 입고 만다. 첩에 대한 원망, 미움, 심지어 첩에 대한 살의를 품기까지 한다. 최철은 시댁 식구나 첩이라는 제재는 조선 봉건 사회가 만들어낸 독특한 정서의 산물⁸⁰⁾이라고 본다.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현실과 기형의 사회 구조 및 관습상의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다.

80)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92, p.121.

.....

첩의방에 앉았으니 큰어무니 큰어무니
 큰어무니는 시간좋네 시간조금 반작하세
 애랴요년 요망하다 산천에 전답이 산천나고
 냇가전답 방천나도 너같은년 못주겠다
 하늘같은 가장준께 시간조차 너줄소냐
81)

열병에도 못 먹는 물이여	(열병에도 먹지 못하는 물이여
학질에도 못먹는물이여	학질에도 먹지 못하는 물이여
이물저물 독한물중에	이물저물 독한 물 중에서도
시앗물이 지독하더라	시앗 물이 지독하더라)82)

시앗도심건 물길에심엉	(시앗도 잡으려거든 물 길러 가는
	길에서 잡아
물팡우에 내심어노앙	물팡 위에 내가 잡아 놓아서
장피가죽 부비듯하져	노루 가죽 부비듯이 혼을 내주마)83)

“큰어무니는 시간좋네 시간조금 반작하세” 하고 첩은 본처에게 세간을 반분하자는 요구를 한 것이다. 이에 본처가 “하늘같은 가장준께 시간조차 너줄소냐” 하고 이미 남편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세간까지 반분하려 하냐고 반문하고 첩의 욕심을 채워 주려 하지 않은 것이다. 두번째 노래에서 첩은 독물같이 지독하다는 것이고 셋번째 노래에서 첩을 잡아 놓아서 노루 가죽 부비 듯이 한바탕 혼을 내 주고 싶다는 심정을 숨김없이 토로한 것이다. 첩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남성들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만든 틀 속에서 여성들의 얽혀 있는 운명, 서로 적대시하고 발버둥친다. 그 틀 속에서 남자는 욕심이 충족되고 행복이 획득되는 반면 처나 첩은 고독과 상처만 획득되고 만다. 처와 첩은 남성우월주의와 축첩제

81) 임동권, 『한국민요집』 2, 集文堂, 1980, p.285, 880면.
 82)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p.166.
 83)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p.166.

도의 피해자인데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가시를 세워 찌르고 찢리는 비애이다. 사랑다툼을 하고 고독을 삼켜야 되는 괴로움은 자기와 사랑다툼을 한 상대인물로 인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해결책도 상대인물을 압도하는 데에서 구하려 한 것이다. 다투는 양쪽에게 고통을 가져 준 근원적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열악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제공되지 못한 불균형적인 기형 제도때문이다.

4) 가난과 과중한 노동

이상은 시집에서 관계인물과의 갈등 즉 시부모, 시누이, 남편, 첩 등으로 빚은 한을 고찰해 보았다. 하지만 관계인물과의 갈등 등 주관적 요소 외에 가난, 과중한 노동 등 객관적 요소 때문에도 여성은 좌절한다.

.....

부엌으로 내려와서 큰술밥술 열어보니
 청동녹이 앉았더라 가마솥을 열어보니
 엉거미가 줄을치고 낫거미가 줄을치고
 남비뚜껑 열어보니 붉은동녹 켜켜앉고
 광방문을 열떠리고 쌀독이라 열어보니
 암커미가 줄서렸네 팔독이라 열어보니
 수커미가 줄서렸네⁸⁴⁾

시집이 너무 가난하다. 배 불리 먹을 식재도 없는데다가 생활용 도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동녹이 있는 것만 봐도 밥상을 차릴 의욕이 반 없어질 것이다. 앞날이 어둡다는 생각에 여자는 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난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집안일은 물론 밭일 등 고된 노동도 피할 수가 없다. 끝이 없고 과다한 노동량은 잠자는 시간을 절약해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게 한다. 잠도 시집식구의 구박 때문에 충분히 또는 마음 편히 자지 못하는 수면부족으로 인한 고뇌를 노래로 표출한다.

84)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127.

가) 오내눈에 잠이오네 셋별같은 내눈에
 구슬 같은 잠이오네 잠아잠아 오는잠아
 원수같이 오는잠아 시어머니 눈에난다
 시어머니 눈에난다 시아버지 눈에난다
 시아버지 눈에난다 임의눈에 절로난다
 임의눈에 절로나면 친정으로 되돌아간다⁸⁵⁾

나) 잠이오네 잠이오네 이내눈에 잠이오네
 셋별같은 이내눈에 악어같은 잠이오네
 잠아잠아 오지마라 부측길쌈 늦어간다
 아가아가 며늘아가 앓아열잠 자지말고
 누어한잠 편케자라 잠아잠아 오지마라
 요내눈에 오는잠은 말도많고 흉도많다
 잠든눈을 쑥빼여서 탕자나무 걸어놓고
 들며보고 날며보니 탕자나무 꼬박꼬박⁸⁶⁾

가)는 잠자면 시어머님 눈에 날까봐 잠을 원수로 여긴다는 노래다. 시어머님 눈에나면 임의 눈에 절로 나니까, 잠이 불행을 가져올 존재 그 자체다. 나)는 줄리기에 탕자나무도 꼬박꼬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밭일도 도와 쥐야 되고 집안일도 끝없이 많다. 과중한 노동은 여성들에게 잠을 자는 시간을 절약해서 계속 일하게 한다. 그로 인해 수면부족의 문제가 생긴다. 수면부족 문제에는 한잠을 자면 해결될 것인데 시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꾸중을 듣게 될 것이 짐작되어 마음대로 잘 수 없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한국여성민요에서 보기 드문 한잠을 편히 자라는 시어머니 형상이 이 노래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자꾸 악역으로 등장하는 한국 시어머니의 이미지와 반대인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냥한 모습에도 며느리가 역시 “잠아잠아 오지마라 요내눈에 오는잠은 말도많고 흉도많다”고 한 것이다. 시어머니가 편히 자라고 해도 나중에 말이나 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 결국에는 편히 자지 못하고 일을 계속하면서도 잠이 와 꼬박꼬박

85) 임동권, 『한국민요집』 2, 集文堂, 1980, p.315, 945번.

86)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103.

조는 것이다. “난데없는 이내잠이 소리없이 달려드네/눈섭속에 숨었는가 눈알로
손왔온가/이눈저눈 왕래하며 무삼요술 피우는고/맑고맑은 이내눈이 절로절로 희
미하다”⁸⁷⁾ 하며 잠이 요술을 부릴 줄 알듯이 아주 생동감 있게 잠이 부족해서
졸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고되고 끝이 없는 노동 때문에 잠을 마음 편히
못자는 며느리가 시집에서는 오직 노동력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잠노래도 한국민요 중에서 한 유형이 될 정도로 양도 많고 특징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다. 일이 너무 많아 잘 시간조차 없다거나 잠이 와도 시어머니 눈에
날까봐 눈치를 봐서 마음대로 자지 못할 처지를 제대로 보여 준다. 끝이 없는 노
동의 고생과 시집살이의 구속 등 여성들의 신세를 잠이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
을 빌려서 이해하게 해 준다. 한국여성들이 자기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
고 교묘하게 사물과 자기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자기의 고통이나 만족스럽지 못
한 처지를 주변 사물을 통해 노래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호소하는 문
제의식이 있다. 사물의 특징을 살려서 자기 심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생동감 있게
형상화되어 예술성이 농후하게 된다. 한국여성들에게는 주변 사물의 특징과 자기
의 신세를 연관 지어 노래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쉽게 이해하게
끔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

잠을 노래의 소재로 삼아 시집살이하는데 고된 노동과 수면부족으로 인한 신
체적인 고생과 시집식구의 구박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생을 표현한다. 또는 “졸림
은 철철오고 물레가락 쌀지않네”⁸⁸⁾, “해다졌다 빵실빵실 웃는애기 만나볼 해다졌
다”⁸⁹⁾, “들어내세 들어내세 요모판을 들어내세/이승채사 이명선이 요모판을 꼭잡
아가소 이호호호”⁹⁰⁾ 등 노동 도구가 고장나기 바라는 잔피와 해가 진다는 자연
력이나 초현실적 신명한 힘을 빌려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심정을 다양
한 방식으로 표현해 낸다.

가난 때문에 배불리 먹지는 못하고 과중한 노동은 육체적 고통을 겪게 한다.

87)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122.

88) 임동권, 『한국민요집』 4, 集文堂, 1993, p.263, 598면.

89) 임동권, 『한국민요논고』, 민속원, 2006, p.236.

90) 『한국민요대전』 충북편 2-7 영동 모심는 소리, 1993.12.8 영동군 황간면 신평리, 우천리, 서남순 여, 1924.

또는 시집식구의 횡폭에 심적 스트레스도 면하지 못하고 몇 년의 시집살이를 하고나니 처녀시절의 아름다운 용모를 잃어 가는 것이 느껴져 바쁜 나날을 보내고 끝내 행복한 삶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늙은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

.....

석삼년을 살고나니 배꽃같은 요내얼굴
호박꽃이 다되었네 삼단같은 요내머리
비사리춤이 다되었네 백옥같은 요내손길
오리발이 다되었네 열새무명 반물치마
눈물씻기 다졌었네 두폭불이 행주치마
콧물받기 다졌었네91)

모란꽃 내얼굴에 개나리꽃 무삼일고
삼단같은 내머리에 비사리춤 무삼일고
분결같은 이내손에 쫓박호미 무삼일고
비단치마 입던몸에 행주치마 무삼일고
.....92)

容顔老去 및 늙음에 대한 한을 토로한 것이다. 용모는 여자의 제2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님의 사랑을 받을 자본이기 때문이다. 몇 년의 시집살이를 살고 보니 자기의 자본인 처녀시절의 아름다운 용모를 점점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초조해진 마음을 감추지 못하여 노래한 것이다. 시집에서 몇 년을 지내고 나서 아름다운 얼굴은 사라지고 예쁜 머리도 뭉툭해진 빗자루 모양으로 바뀌었고 시집살이로 눈물을 닦다가 행주치마도 다 젖었다라고 비애를 표출하고 있다. 그런 슬픔은 다음의 구절처럼 표현되기도 한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벼개머리 소이졌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한쌍 오리한쌍 쌍쌍이 때들어오네” 하며 눈물로 가 버린 청춘을 추념한다. “어떤사람 팔자좋아 고대광실 높은집에/부귀영화 잘사는데 이놈팔자 어찌하여/날만새면 지게갈퀴 떠날줄을 모르는가/

91)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140, 548번.

92)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130.

심심산천 깊은골로 나무하러 나는가네” 하며 남의 팔자와 비교하여 한탄하기도 한다. 남자도 가 버린 청춘, 늙어 간 모습과 하얗진 머리를 보고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한탄하고 <백발가>를 부르면서 늙음을 막을 온갖 궁리를 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특히나 청춘과 용모에 대한 미련이 있다. 아름다운 용모의 소지자이면서 더 많은 환대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는 그토록 싫어하는 시집식구들이 죽고 난 후 며느리의 복잡한 심정을 드러낸 노래도 있다. 드디어 자기를 못살게 군 시집식구들이 죽고 나서 이제 마음 편히 살아도 되는 데 삶 현장의 도처에서 혼자 노동을 맡아 보니 시집식구와 지난 세월이 또다시 생각난 것이다.

시어머니 죽었다고 좋다더니
 보리방아 물버놓고 생각나네
 시아버지 죽었다고 춤추더니
 왕골자리 떨어지니 또생각나네
 시동생죽었다고 좋다더니
 나무간을 쳐다보니 생각나네⁹³⁾

류종목은 위 노래가 시집 식구들을 총망라하여 그 죽음을 좋아라 하는 민요라고 하였다.⁹⁴⁾

성기영은 “원수처럼 생각되던 시집식구들도 ‘죽음’ 앞에서는 ‘그리움’으로 인식된다. 즉 시어머니의 죽음은 다른 시집식구와 함께 미움의 감정이 해소되면서 그리움으로 바뀌게 되는데,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리움은 더욱 나타난다. 대가족제도 하에서 시어머니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살림살이와 제반 집안 행사를 두루 관장하였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죽음’은 시어머니가 주관했던 모든 일이 며느리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정으로 인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오는 아쉬움이 더 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아버지나 시동생, 남편 역시 미워서 죽기를 원하다가 막상 죽고 나니 아쉽게도 생각나는 때가 있다는 며느리의 노래는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한 것”⁹⁵⁾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93) 임동권, 『한국민요집』 4, 集文堂, 1993, p.303, 687면.

94)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p.346.

함복희도 성기영과 비슷한 시각이다. “그토록 원망해마지 않던 시부모지만 죽고 나서야 비로소 시집살이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죽고 나니 혼자 감당해야 할 가사 노동이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아쉽게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부모의 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지는 며느리의 심정”⁹⁶⁾이라고 본 것이다.

한도 끝도 없는 가사 노동은 며느리에게 시집식구를 생각이 나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집식구들이 그리워서 생각 난 것이 아니라 시집식구들이 살아 있었을 때 관계가 좋든 나쁘든 간에 가사 노동을 조금이나마 부담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시집식구들이 죽고 나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되긴 하나 모든 노동을 혼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집식구 생각이 난 것이다. 또는 하루하루 즐겁게만 지내도 짧은 인생인데 같은 사회의 신분적 성적 천대를 받는 여성이며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괴롭히고 당했던 것에 대해 허전한 마음과 괜히 세월을 괴롭게 보냈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시집살이의 좌절은 또한 개인적 결함으로 인해 일어난다. 바로 시집을 못 가는 노처녀가 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서 생긴 것이다.

“동백따러 간다고/요리핑계 조리핑계 하더니/동백나무 밑에가서/시집갈 궁리만 하더라”⁹⁷⁾ 처녀가 아직 시집 못 가 마음이 조조해 저 요리핑계 조리핑계 하며 사람이 많지 않은 데로 가서 시집갈 궁리를 한 것이다. “오매오매 우리오매/뺨새가 작아도 알을 낳고/멧쥐가 작아도 구멍을 뚫고/오매동갑네 외손자 봤다네”⁹⁸⁾ 하며 엄마한테 원망의 소리를 한 것이다. 엄마와 동갑인 사람은 이미 외손자를 보고 있다고 빨리 시집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

우리부모 날길러서 잡아쓸가 구어쓸가
앞집이라 곤손이는 열일곱에 시집간다
뒷집머슴 김동이도 내사좋아 내사좋아
양반실랑 내사싫고 인물풍채 마땅커든

95) 성기영, 「숙담과 민요에 나타난 여성 의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96) 함복희, 「시집살이 민요 스토리텔링의 치유적 효과」, 강원대학교, 민문과학연구, 2009.

97) 임동권, 『한국의 민요』, 일지사, 1986, p.178.

98) 임동권, 『한국의 민요』, 일지사, 1986, p.179.

하루바빠 정해주소99)

시집을 가도 한이고 시집 못 가도 한이다. 위 노래는 나이 스무 살에도 시집 못 가서 초조한 노처녀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부모 날길러서 잡아쓸가 구어쓸가” 하는 것은 역시 아직도 시집을 보내 주지 않는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고 “앞집이라 곤손이는 열일곱에 시집간다” 하며 동갑친구와 비교하면서 시집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시집 못 갈까 봐 걱정한 것은 노처녀가 되어가 남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을 두려워 한 부분도 있기는 하나 실제로 달콤한 사랑에 대한 동경과 그 동경의 세계로 갈 길이 없는 것에 대한 초조함도 노처녀의 한의 일부라고 본다. 미모를 가지면 남의 사랑을 받게 되고 시집을 가게 되어 기대한 달콤한 사랑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용모에 대한 미련과 시집 못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은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심리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는 시집을 가게 되면 사랑을 체험할 기회가 없을 것이란 걱정을 했던 것이 무의미해진다. 하지만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바로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한 고민이다. 이런 고민은 해결할 방도도 쉽게 찾아지지 않는 고민이다.

시집살이 못한다고 날 가라네 날 가라네
명지질삼 못하는 건 배우면 하건마는
아들딸 못 낳는 건 할 수가 없구나
시집살이 못한다고 날 가라네 날 가라네
가라면 갔지 양궐련 안 먹고는 못 살겠네¹⁰⁰⁾

.....

오다가 소변을 보고나니
때때때때기가 달겨들어
아이구 점바치가 용하구나
오늘 대번에 아들을 낳네
붓들어보니 매때기래 들고 추시리매 하는말이

99)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33.

100) 신경림, 『민요기행』 1, 문이당, 2005, p.34.

이마홀떡 벗거진건 징조부를 닮아신가
 심심이 좋은 것은 고조부를 닮아신가
 종아리종아리 휘출한건 저그외삼촌을 닮아신가
 뿔아독독 한것으는 장터거래 아재비를 닮아신가
 포항고모가 알었이면 미역단이나 가줄겐데
 부산이모가 알었이면 저구리냥이나 해올겐데
 저그외조모 알었이면 두 대기냥이나 해올겐데
 열시구좋다 정말로좋다 요렇게좋다가 추시리다니
 때때그면 날아가니
 요새자식은 어떤놈이 오입부터 질기노이
 에미마다고 가는놈을 어느놈이가 붓들소냐¹⁰¹⁾

첫번째 노래는 “명지질삼 못하는 건 배우면 하건마는/아들딸 못 낳는 건 할 수가 없구나” 하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한탄하는 노래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배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여인이 방편이 없어 양궤련을 의지하여 고뇌를 풀려는 것이다. 두번째 노래는 아들애기도 못낳고 딸애기도 못낳은 부인이 짐치려 갔더니 “짐바치 하는말이 그게 밑천이 아파서 못낳는다”고 결론을 내려 주었다. 달려든 메뚜기를 아들로 삼아 온갖 상상을 펼친 것이다. “이마홀떡 벗거진건 징조부를 닮아신가/심심이 좋은 것은 고조부를 닮아신가/종아리종아리 휘출한건 저그외삼촌을 닮아신가/뿔아독독 한것으는 장터거래 아재비를 닮아신가”라는 것은 아들의 생김새에 대한 상상이고 “포항고모가 알었이면 미역단이나 가줄겐데/부산이모가 알었이면 저구리냥이나 해올겐데/저그외조모 알었이면 두 대기냥이나 해올겐데”라는 것은 아이를 낳은 후 가족들로부터 받을 환대를 상상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고 상상의 아름다움에 비해 상상과 거리가 먼 현실은 더욱 참담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 노래는 겉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유감인 것으로 보이긴 하나 시집식구들의 무시와 천대가 짐작되어 그로 인한 괴로움이 더 컸을 것이다. 소위 ‘三從七出’은 여성에게 부과된 가혹한 도덕률이다.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어머니가 되어서는 아들에게 복종하라는 삼종은 여성들에게 남성예속을 강요했다. 칠

101) 조동일 자료, <메뚜기 타령>, 신복남(61세) 1972.8.12.

출은 不順, 亂淫은 그럴 법도 하려니와, 無子, 질투, 惡疾, 多言을 竊盜와 병렬하여 부가에서 쫓겨나는 7대 조건으로 여성들에게 철저한 천시이다.¹⁰²⁾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일종의 불효로 간주되는 효도 이데올로기와 아들을 선호하는 가문의 식이 여자에게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어쩌면 남성우월주의 지배하에 때로는 여자가 傳宗接代의 도구로서 집으로 맞이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특히 아들을 선호하는 시대라 딸을 낳으면 백안시를 당할 수도 있는 데 하물며 아들은 물론 아예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이면 시집에서 대접 받을 희망조차 없을 것이다. 여자에게는 아이를 못 낳는 것 자체도 한이 될 수 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시집식구들의 무시를 감당하기 힘든 것은 한 중에도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이상은 시집식구로 인한 좌절과 비애를 고찰한 것이다. 시집의 모든 관계인물과의 갈등은 한의 심적 원인이고 시집 집안의 가난과 끝이 없는 고된 노동 등의 육체적 고통을 야기한 것들은 또한 한의 원인이 되었다. 그중 관계인물 즉 시부모, 시누이, 남편, 첩 심지어 며슴 등과의 갈등은 주원인이라고 본다. 정신적 고통이 없으면 가난과 노동으로 인한 고생은 그나마 견딜 만한데 육체적 고생을 하는데다 시집식구들로 받은 천대까지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이 모든 갈등이 시대적 제도적 배경 하에 빚어진 것이다. 유교 이데올로기 중의 합리적이지 못한 삼종칠거, 일부다처 등 부당 규범과 질서 그리고 가부장제도와 남성우월주의 주도하의 남존여비, 남권횡행 등 옛 여성들의 시집에서 오직 다른 시집식구들의 권익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삶이 상연되게 만든 것이다. 이외에 시집 못가는 노처녀가 사랑에 대한 동경 또는 그것을 실현할 길이 없는 것과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시집에서 환대와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 등도 옛 여성의 비애이다. <꼬댁각시노래>¹⁰³⁾에서는 그야말로 여자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과 한의 응결이라

102)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首善社, 1949. p.238.

103)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144, 561번. <꼬댁각시노래>의 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꼬댁꼬댁 꼬댁각시 한살먹어 어멈죽어/ 두살먹어 아범죽어 세살먹어 말을배워/ 네살먹어 걸음배워 다섯살에 삼촌집에/ 찾아가니 삼촌이라 마당쓸다 빗자락으로 내려쫓네/ 삼촌속도 볼때다가 부수때기로 내쫓네/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내팔자 왜이런고/ 방이라고 들어가니 사촌오빠 공부하다/ 서상대로 내어쫓네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내팔자 왜이런고 밥이라고 주는 것이/ 굶에 굶에 사발 굶에 붙여주네/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내팔자 왜이런고/ 그럭저럭 자라나서 열다섯에/ 중신아비 들랑날랑 예라요년 요년땀에/ 아किन지방 다달는다/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내팔자 왜이런고/ 사주라고 받은것이 가랑잎을 받았구나/ 옷이라고 해준것이 깃만남은 삼베적삼/ 치마라고 해준것이

고 할 수 있다. “한살먹어 어멈죽어 두살먹어 아범죽어” 조실부모해서 삼촌식구들과 같이 살게 되는데 “삼촌이라 마당쓸다 빗자락으로 내려쫓네 삼촌숙모 불때다가 부수때기로 내쫓네” 하고 천대를 한 것이다. “시집이라 가해보니 고재낭군 얻었고나” 행어나 시집에 가면 삶의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텐데 신랑이 성불구자인 것이다. 게다가 “부엌이라 들어가니 밀빠진 솔만있고 쌀독이라 속을보니 거미줄이 얼기설기” 가난한 집안이다. 그래도 애를 써서 “양지쪽에 밭고사리 음지쪽에 먹고사리” 하고 식재를 구해 와서 “디듬디듬 꺾어다가 국끓이고 밥을지어 열두반상 차려다가” 시아버지보고 진지를 드시라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예라요년 못먹겠다 네가먹고 개나줘라” 하고 모욕까지 한 것이다. 사실을 살펴보면 조실부모, 삼촌식구의 학대, 시집의 가난, 남편의 무능, 시부모의 천대 등 온갖 고난을 겪은 것이다. 여자의 인생은 온통 한밖에 없고 이런 불운에 또 불운이 겹친 인생은 살 맛이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이다.

Ⅲ. 현실대응방식의 양면성

2장에서는 봉건 사상과 제도하에 옛 여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았다. 본고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현실의 여러 면모에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한 건가 하는 데에 있다. 여성민요를 살펴보면 어두운 현실에 적응과 감당 못 해 부정적, 충동적, 비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한 자도 많고 반면에 긍정적, 해학적, 지혜로운 대응 자세를 취한 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운 시집살이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버리려 하지 않은 자가 있고 해학적으로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고 슬픈 현실에서 웃음을 찾아내려는 자도 있다. 당당하게 자기를 괴롭힌 상대인물에게 반항하는 자도 있고 분발해서 슬

허리만남은 삼베치마/ 속옷이라 해준것이 허리만남은 삼베고쟁이/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내팔자 왜이런고/ 시집이라 가해보니 고재낭군 얻었고나/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내팔자 왜이런고/ 부엌이라 들어가니 밀빠진 솔만있고/ 쌀독이라 속을보니 거미줄이 얼기설기/ 뒤울안에 가해보니 밀빠진 바구니하나/ 그바구니 옆에끼고 뒷동산에 올라가니/ 양지쪽에 밭고사리 음지쪽에 먹고사리/ 디듬디듬 꺾어다가 국끓이고 밥을지어/ 열두반상 차려다가 시금시금 시아버지/ 이만저만 주무시고 아침밥상 받으시오/ 예라요년 못먹겠다 네가먹고 개나줘라”.

기와 노력으로 역경에서 벗어나 잘 살게 되는 자도 있다. 결국에는 부정적인 대응 방식으로 역시 끝내 갈구하는 행복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긍정적인 대응 자세를 취한 자들이 경제적 곤경에서 빠져 나와 잘 살게 되든 사랑과 행복을 획득하든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부정적 대응

사상적, 제도적인 구속을 순종하면서 한탄하는 자가 있고 그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는 자가 있고 절망에 빠져 자살하는 자가 있고 원한을 이기지 못해 자기에게 못 살게 준 상대인물에게 저주로 복수하는 자도 있다.

1) 한탄, 원망, 체념

끝없는 가난과 속박 속에서 여성들이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소극적인 일면이 종종 드러난다. 삼종지도니 칠거지악이니 하는 유교적 덕목은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해도 여성에게 순종을 강요했다. 무리한 요구에 순종하기 싫고 반항할 용기와 힘도 결여하여 한탄과 팔자 원망이 생긴다.

서영숙은 고통 받자 한탄하는 여성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형들을 제시했다.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한탄하는 며느리
사촌형님이 밥을 해주지 않자 한탄하는 사촌동생
베짜며 기다리던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
길에서 만난 남편이 몰라보자 한탄하는 아내
남편에게 편지하나 오지 않자 한탄하는 아내
시집간 딸이 편지하자 한탄하는 친정식구
오빠가 부정을 의심하자 한탄하는 동생
오빠가 물에서 구해주지 않자 한탄하는 동생
오빠가 올케 댕기만 사오자 한탄하는 동생
오빠가 재산을 차지자 한탄하는 동생

혼인을 기다리다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처녀의 저주로 혼인날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첩으로 인해 한탄하는 본처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자 한탄하는 여자¹⁰⁴⁾

위 유형들을 살펴보면 거의 사정별로 여성들이 한탄하는 태도가 보인다. 한탄과 체념은 대부분 여성들이 고난에 취한 자세이고 또는 가장 쉽게 취해 버린 대응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세계의 부정적 질서는 의식주체에게 슬픔과 비애의 정서를 갖게 한다. 체념이나 숙명성은 이와 같은 한의 정서가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⁰⁵⁾ 현실의 비리나 부당한 질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질서로 인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을 드러내 주고 있기는 하지만 부당한 현실 질서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획득해 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용기를 결여하고 있거나 부당한 질서에 맞서 대항할 힘이 없어 결국은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처지를 운명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것이다. 현실의 부당한 질서는 건강한 인간성을 부정하는 유형 무형의 폭력이며, 이러한 폭력은 무력한 개인에게 숙명의식을 심어 준다.¹⁰⁶⁾ 또는 옛 여성들은 글공부의 기회를 결여하여 사회나 제도 체계의 불합리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 봉건사상이나 제도의 요인보다 개인의 운명이나 팔자의 탓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고 본다. 또는 설령 부당 질서를 인식하고도 사회적 약자로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탄식하는 데만 발을 멈춘 것이다.

2) 도망과 출가

아래의 사례는 현실의 불합리를 인식하여 탄식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장애 요소로 여긴 것을 버리거나 불합리에서 도망치는 방식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104)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역락, 2009, pp.51-54.

105)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92, p.192.

106)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92, p.192.

죽일년아 살릴년아 어린자식 잡들여놓고
 병든家長 뉘어놓고 활장같이 굽은길로
 살대같이 네가가면 그얼마나 잘살거나
 찢을년아 밭길년아 大典通編 목벨년아
 야반에도 오라하면 병든낭군 홀로두고
 어린자식 재워두고 활통같이 굽은길로
 쏜살같이 달아난다¹⁰⁷⁾

늙은과부 담배질
 젊은과부 한숨질
 한숨끝에 도망질
 서방얻어 갔단다¹⁰⁸⁾

“죽일년아 살릴년아”라고 한 것은 “병든낭군 홀로두고 어린자식 재워두고” 달아난 여자에 대한 욕설이다. 이 노래에서 여자가 병든낭군과 어린자식을 새 인생을 시작하는 데 방해 요소로 간주하고 버리고 떠나기로 한 것이다.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털어 놓고 떠나는 것은 여자가 낭군이 병든다는 현실에 응해 선택한 해결책이다. 여기서 욕설을 퍼붓는 것에서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나고 말은 해야 맛이 있듯이 서운한 것을 가슴에 담아 두는 것보다 내뱉어야 속이 시원하다는 민족성이 보여진다. “찢을년아 밭길년아”, “담배불에 지저줄 년, 쫄련불에 지저줄 년”, “꼬치같이 지질년아 누룩같이 누를년아 응당같이 썩을년아”, “간장에다가 처널 년아”, “된장에다 박을 년아 흥두깨로 밀을 년아 방망치로 뚜들년아” 등 노래로 속풀이를 하는데 욕설도 꺼리지 않은 것이다. “네이자식 벼락을 쫓문이에다 차고/산꼭디기에서 내려굴러 재가될 자식”, “이년아 저년아 흐으로 흐년아/인두로 지질년아 똥독에 빠질년아”, “찢일년아 밭길년아 대동통편에 목빌년아”¹⁰⁹⁾ 이 모두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방해하고 인간답지 못하게 한 시집식구에 대한 적대적 정서의 표현이다. 욕설은 저속해 보이긴 하나 민중들이 자기의 진심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데 숨기거나 가리려 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일종의

107)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249.

108) 임동권, 위의 책, p.199.

109)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92, p.116.

진실된 미라고 본다.

두번째 노래에서 젊은 과부는 한숨만 쉬다가 드디어는 마음을 먹고 그 심신을 구속하는 생활양식에서부터 도망치기로 했다. 재혼을 금하는 것은 고려말부터 시작되었다 하는데 조선에서는 命禁婦女再嫁 其再嫁人子孫 勿許授官赴舉 즉 여자들의 재가를 금지하고, 재가한 사람의 자손은 관직을 받거나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강화되었다. 아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재가를 삼가지 않을 수 없도록 철벽을 쌓아 버렸다.¹¹⁰⁾ 도망친다는 것은 어떤 사정에 책임을 지기 싫어 또는 어떤 고난에 직면하기 두려운 데에서 취한 소극적인 행동으로 취급하기 쉽다. 그때 당시의 사회 환경에서 도망치는 것은 더욱 취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젊은 과부는 주변에서의 욕설과 백안시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면 지적을 받을 일이 있어도 감당할 준비를 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도망치는 것은 어찌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행여나 도망을 쳐서 행복한 인생을 획득할 경우에는 도망친 것은 긍정적 대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로는 미움과 비난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주변 사람들이 수절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행복을 찾으러 새 출발하는 것이 더 할 만할 것이다. 민중들은 자연 속에서 노동하면서 자연의 흐름에 맞춰 노동생산을 진행하듯이 인간성의 자연스런 흐름도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성의 자연스런 흐름을 존중하지 않고 막으려는 인물이 있으면 욕설 등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한다.¹¹¹⁾ 어느 누구도 온갖 억압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이 넓은 세상의 어딘가 하나의 작은 구석에라도 자기에게 맞는 곳이 있으리라 본다. 현재의 여기가 아니면 찾으러 출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외에 삭발하고 중노릇을 하는 것으로 모든 관계를 끊어 갈등과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방식도 택하게 된다. 서영숙의 자료에 따르면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며느리도 있고 신랑이 성불구여서 중이 되는 신부도 있다. 즉 온갖 고통을 견디지 못해 출가한 사례가 많다.¹¹²⁾

110) 고정욱, 『조선민요연구』, 首善社, 1949, p.239.

111)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92, p.193 참고.

112)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亦樂, 2009, pp.51-54, 자료편 Aa 참고.

.....

이내머리를 꺾아주소 꺾을라곤 꺾소마는
한쪽머리를 꺾고낭게 치매앞이도 강이되고
두쪽머리를 꺾고낭게 어깨너매 쏘가되네
.....113)

.....

중의노릇이 웬일이나 친정집에서 동냥하여갖고
시가택에 동냥가니 시가택은 쭉대밭이 되었구나
.....

시아부니 피소를 찾아가니 호령꽃이 피었구나
시아마니 피소를 찾아가니 아사리꽃이 피었구나
씨누애기 피소를 찾아가니 중도리꽃이 피었구나
우리님 피쇠를 찾아가니 열녀꽃이 피었구나
.....114)

위 노래에서는 며느리가 시집식구들의 횡폭을 견디다 못해 자의에 의해 더 이상 사람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벗어버리려고 중이 된 것이다. 시집을 나왔지만 그렇다고 친정으로도 돌아갈 수도 없기에 즉 삶의 기로에서 내린 선택이다. 출가는 일종의 현실 도피적 태도이다. 관계인물과의 갈등을 정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하지 않는 채 그 상황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갈등이 가져온 괴로움을 피하려는 것이다. ‘출가’라는 행위는 시집식구들을 응징하는 저항적 비판적인 의미도 내포하지만 결국에는 중노릇을 하는 것으로도 자기가 원했던 행복을 획득하지 못하는 결말로 끝이 난 것이다. 중이 되었다고 해서 행복을 되찾았다는 노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시집식구들과의 인간관계망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도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이 되는 것도 일종의 도망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즉 결국에는 시집살이의 수반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쳐 또 다른 유형의 고

113)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역락, 2009, p.464.

114)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역락, 2009, p.467.

통의 세계로 들어간 것으로 이해된다.

3) 죽음과 복수

옛 사회의 옛 제도 하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보다 자기의 결백과 남들의 시선과 자신에 대한 평가를 가장 중요시하는 편이다.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든 남편의 불충실로 인해 울분을 풀지 못해서이든 시집살이의 온갖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이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충동적이고 자해적인 방식으로 고통을 종결시키는 사례가 민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가) 꽃아꽃아 준지꽃아 대문밖에 피는꽃은

시누애기 끊겨놓고 날더러도 끊겼다네
에라요노릿 못허졌네 동산으로 돌아가
독으알을 주워먹고
일어나소 일어나소 닭이우네 일어나소
꿍이우네 일어나소
자네는죽어 잉에되고 나는죽어 상애가되고
청땃잎같이 푸른쏘에 재미나있게 놀아나보세
.....115)

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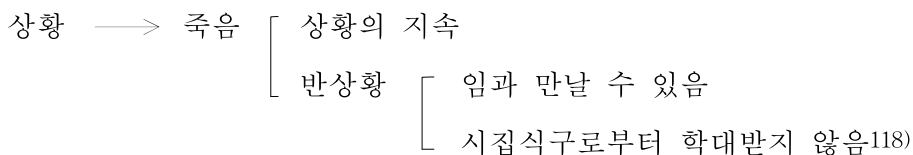
검은빨래 검게빨고 흰빨래는 희게빨아
집에가고 들어가보니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아가아가 며느리아가 아랫방에 내려가봐라
진주낭군 오셨다 보선발로 뛰어가보니
기상침을 양쪽에끼고 아홉가지 술잔벌에
통땡땡 하는구나 그것을 보던부인
보선발로 뛰어나와
석자갓끈 명주수건 목에걸고
아홉가지 약을 입에넣고 목을매어 죽었네

115) 서영숙 자료, 새터126, 『시누로 인한 누명노래』, 조봉례(여,67세), 1981.7.28.

.....

가)는 시누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주인공이 원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나)는 시집간 여자가 삼년 동안 기다리던 남편 진주낭군이 돌아 와 자신을 못 본 체 하고 기생첩과 노는 것을 보고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남편의 불충 실함에 죽음으로 항의한 것이다. 이 외에도 며느리가 시집식구들의 온갖 구박을 견디기 힘들어 자살하는 유형도 있고 계모로 인해 자살하는 자식 그리고 오빠의 부정의심을 죽음으로 역설적 해결하는 유형도 있다.¹¹⁶⁾

류종목은 이럴 때의 죽음이 수단과 목적으로서의 죽음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한국 민요에 표현된 자살은 상황의 지속을 위한 수단으로도, 또 반상황의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도 택하게 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죽음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현 상황이 자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면 그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의 변화, 즉 반상황을 추구하게 마련이다.”¹¹⁷⁾ 그리고 류종목은 이러한 상황을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했다. 즉 자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으로서 ‘임과 함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서 ‘임과 만날 수 없는 상황’과 ‘시집 식구로부터 학대 받는 상황’ 등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길태숙은 여성적 말하기로써 여성의 자기표현의 통로로 이용되는 죽음이라고 보고 있다. “자신의 존재 및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 깨달음의 결과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암담함으로 드러날 때 죽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인시키는 것이다”.¹¹⁹⁾

116)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亦樂, 2009, p.51~54 참고.
 117)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p.350.
 118)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p.352.
 119)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여성문학연구』 9, 2003.

임을 빼앗긴 억울함, 임의 무관심, 시집살이의 고통과 학대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은 기존의 질서, 도덕에 대한 항거이다. 동시에 괴로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죽음은 긍정적 기제로서가 아니라 부정적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존여비의 유교적, 봉건적 도덕률은 여자로서 한 인간 개체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대우, 인격적 존재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도, 시대적 한계 속에서 택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라는 해도, 목적 실현을 위한 소극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경우의 죽음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몸짓이라기보다는 현실적 공포로부터의 도피, 해방을 모색하는 현실도피적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¹²⁰⁾ “여성의 위치회복은 개인의 죽음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존귀함은 남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사회적 약자로서 죽음을 선택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일은 문제를 양성화시키는 기폭제으로써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길태숙은 이럴 때의 죽음은 기폭제 역할에 해당한 것으로 본다. 죽음으로 일시적으로 현실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끄는 결과를 가져 오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자살은 자기의 생을 끝내는 방식으로 고통을 종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외에 타인의 죽음에 기뻐하거나 자기를 괴롭힌 자한테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거나 심지어 남의 생명을 직접 빼앗아 가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가) ……

시집가든 사흘만에 죽었다고 부고왔네
 부고하인 점심하러 정지에 들어가며
 잘죽었네 잘죽었네 요망하든 요시누야
 옥식기에 밥을뜨니 오복소복 잘죽었네
 장중지기 장을뜨니 올랑출랑 잘죽었네¹²¹⁾

나) 설달이라 그믐날에 편지한장 오랬더라

120)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p.353 참고.

121) 고정욱,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p.251.

무슨편지 오랬더냐 씨앗죽은 편지더라
옳다그년 잘죽었다 무슨병에 죽었더냐
분홍치마 발킬년이 상사병에 죽었더라
고기반찬 비리더리 소곰반찬 고습고나¹²²⁾

가족의 죽음이 슬픔과 비애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오히려 갈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시집식구나 첩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다. 남편을 사이에 두고 사랑 다툼을 하던 경쟁 상대가 죽거나 나의 삶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제공하던 시집식구 죽음으로써 모든 갈등이 일시에 해소되어 버린 것이다. 가)는 시누이가 죽었다고 기쁜 심정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봄이오네 봄이오네 시누엑씨 죽었다고 봄이오네”라고 시누이의 죽음으로 자기 인생의 봄이 왔다는 노래도 있다. 나)는 ‘시앗’이 죽은 내용인데 첩의 죽음에 본처가 즐거워하는 장면이다. 고정옥은 이런 상대인물의 죽음으로부터 생긴 기쁨을 잔혹한 기쁨이라고 했는데 일종의 왜곡된 심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간에 얼마나 당하면서 살았기에 마음이 이렇게 왜곡된 것일까? 이것 또한 그 시대가 만들어 낸 심리적 산물이라고 본다.

.....

떨어졌네 떨어졌네 시남매가 떨어졌네
건질거야 건질거야 우리오빠 건질거야
나의손목 건졌다가 형아손목 건져주제
나도죽어 후상가서 낭군부텅 설길라네
나두죽어 배암이되고 오빠죽어 개구리되세
오월이라 단오날에 미나리강에 만나보세¹²³⁾

여동생은 물에 떠내려가면서 자신도 후생 가면 낭군 먼저 섬기고 냉정한 오빠에게 뱀으로 환생하여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노래에서는 오빠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의지만이 나타났고 실제로 복수가 이뤄지지 못한

122)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113.

123) 『구비대계』 7-4, 성주군 대가면 22, <그네뛰는 노래>, 이필순(여, 45세), 1979.3.31, 최정여, 강은혜, 이춘지 조사.

것이다. 아래 노래에서 실제적으로 복수를 해 냈다는 사례이다.

.....

날살렸네 날살렸네 수양버들 날살렸네
구러구러 수양버들 히야나와
요부안에 좋은집에 시집가서
요부하기 잘살안테 저거오래비 몬살아서
동상집에 동냥왔네 저게오신 저대사야
앞노적을 헐어주까 뒷노적을 헐어주까¹²⁴⁾

떠내려가던 동생이 수양버들에 걸려 살아나 부잣집에 시집간 뒤, 도리어 자기 집에 동냥 온 오빠에게 통쾌한 복수까지 했다는 노래이다. 복수로 고통을 준 상대에게 그 고통을 당해 보라는 것이다.

저주는 또한 옛 여성들이 택한 복수하는 한 방식이다. 자기한테 고통을 가져 온 상대인물이 불행해지거나 죽게 함으로써 상대인물로부터 받은 고통을 해소하려는 방식이다. 또한 저주는 남을 미워하고 상대가 잘못되거나 죽기를 바라는 주술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태도이며 부정적 인식 속에서도 가장 부정적 태도라고 하겠다.

.....

저게가는 저자석은
한모랭이 들거들랑 을피돌피 때려주소
한모랭이 돌거들랑 급살총살 맞아죽소
한모랭이 돌거들랑 베락이나 때려주소
장개라고 가거들랑
가매라꼬 타거들랑 가매채가 내라앉으소
말이라꼬 타거들랑 말잔딩이 뿌러지소
대문간에 들거들랑 대문채가 널앉으소
정심상을 들거들랑 은제놋제 뿌러지소

124) 『구비대계』 8-11, 의령군 봉수면 34, <무정하다 저 오랍야>, 이말순(여, 70세), 1982.8.23, 류종복, 김현수, 성재욱 조사.

지덕상을 들거들랑 반다리나 뿌리지소
 신부방에 들거들랑 숨이탈각 넘어가소
 사랑방에 아부님요 어제왔는 새손님이
 숨이탈각 넘어갔소 예구야야 그말말고
 삼단걸은 너의머리 그끝으로 풀어자라
125)

자기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자 저주로 남자를 죽게 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형식을 가지는 본처의 저주로 죽게 된 신랑에 관한 노래도 있다. “한모랭이 돌거드랑 요시짐승 진동하소/두모랭이 돌거들랑 간지짐승 진동하소……시모랭이 돌거들랑 말다리나 부리지소/네모랭이 돌거들랑 방애채나 부리지소/행리청에 들거덜랑 사모관대 뿌사지소/점습상을 받거들랑 수저분이 뿌리지소……” 하며 저주를 한 결과 신랑이 죽게 된 것이다. 저주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총에 맞아 죽길 바라거나 벼락에 맞아 죽길 바란 것도 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말 잔등이 부러지거나 대문채가 내려앉거나 신부방에 들자마자 숨이 넘어가길 기원하며 저주를 퍼붓는다. 칼을 품고 사생결단하러 가려는 본처도 있다. 첩의 예의범절과 정성 들인 대접 덕분에 비극이 면했지만 역시 자신의 삶에 고통을 가져 온 사람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4)외도로 사랑 실현

옛 사회의 옛 제도 하에 혼인은 거의 부모의 의지와 명령대로 한 것이고 사랑이나 혼인은 제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지 않고 더욱 짙어만 간다. 결국에는 사랑에 대한 기대를 억누르지 못하고 외도로라도 실현하려고 한 것이다.

가) 서울이라 임금아들 천냥짜리 치녀두고
 만질담을 뛰어넘다 미었구나 미었구나
 군때묻은 양피배자 치닷분이 무었구나
 우리본처 알고보면 이말대답 어이하리

125) 『민요대전』, 권위4-21, <이선달네 만팔애기>, 진옥화(여, 1921년생), 1994.1.26.

대장부라 사나그가 그말대답 못할손가
 서당앞에 석노남기 석노따라 무었다소
 그리해도 안듣거든
 서당앞에 베자낭기 베자따가 무었다소
 그리해도 안듣결랑 내일아침 조상 끝에
 소녀방에 또들오면 오삭가지 당사실로
 은침뎨침 금바늘로 본살같이 감취줍세
126)

나)

김도령의 음성소리 년즉히도 알아듣고
 대문아칸에 마중나오이 대문을걸고 중문닫고

 원앙에금침 잣비게에 돌이몸이 한몸되어
 장포리밭에 금자리에 아기자기 잘도논대이

 이도령 하는말이 나도남우집에 아달로
 너도남우집에 아달이라 기집년이 행실글러
 이지경이 된것이지 잔말말고 돌아가래이

 이도령은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여잡고
 엮어놓고 목때리고 췌혀놓고 배때리고
 기집년에 하는말이 무정하다 낭군임요
 훗사나하나 내뵈었다고 죽자사자 왜때리노
127)

가)는 외간남자한테 본처에게 들키지 않도록 대답까지 가르쳐 주는 여자이다. 사랑을 실현하려 하는 데 외도를 택한 것이다. 나)는 여자가 남편 이도령이 집에 없을 틈을 타 김도령과 “원앙에금침 잣비게에 돌이몸이 한몸되어 장포리밭에 금자리에 아기자기 잘도논대이” 하고 정을 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재미 있는

126) 『민요대전』, 신안9-17, <서울이라 임금아들>, 박정월(여, 1910-1991), 1989.9.2.

127) 조동일 자료, <훗사나타령>, 조차기(남, 49세), 안동군 서후면 저전동, 1967.12.16.

것은 가)에서 같이 바람을 피지만 남자보고 계집녀의 행실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라며 김도령을 보내 놓고 아내에게는 “머리채를 휘여잡고 엎어놓고 목때리고 쯧혀놓고 배때리고”하고 죽자사자 폭력을 쓴 것이다. 남녀가 공동으로 저질른 것인 데 여자만을 탓하고 여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사고 경향과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 준 것이다. 그런 여자한테 폭력을 쓴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서영숙은 “이는 남편의 시각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시각으로, 당대 성에 대한 잣대가 남자와 여자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¹²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가부장제도와 남성우월주의 이데올로기 지배하에 사랑이나 결혼상대를 선택할 자유가 없는데서 생긴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가족의 냉대, 시집식구의 확대, 남편의 불충실 등 고통 요소에 대해 여성들은 한탄하거나 도망치거나 중이 되거나 또는 자기나 타인의 목숨을 뺏거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외도하는 방식 등으로 고통을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방식들은 암흑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색채가 띤 대응이다. 부당 현실에 가만히 있지 않고 맞서 행동을 취했으나 역시 삶의 참 의미와 가치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획득하지 못하고 향후의 삶을 더욱 비참해지게 하기도 한 대응방식인 것이다. 死後의 세계에 萬事空이고 여성들이 열구하는 행복은 死後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저주로 남이 죽게 하더라도 일시의 통쾌함이 없어지면 역시 남은 생애 마음의 안녕을 잃은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 또는 누구나 달콤한 사랑을 원한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고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동반자가 있는 이상 즉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 정든 님을 만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다.

2. 긍정적 대응

옛 제도 하에 여성들이 고난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긴 하

128)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亦樂, 2009, p.302.

나 같은 윤리적 체제적 구속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는 멋진 여성들이 있기도 한다. 그런 여성들이 과감하게 부당에 항의하거나 낙천적 해학적 유머스런 태도를 가지고 가슴에 맺혀 있는 한을 풀려고 하거나 근면과 절약으로 가세를 일으키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을 되찾는 여성으로서의 멋진 모습들을 보여 줬다. 여성민요에서 나타난 긍정적 현실 대응 방식은 낙천적인 자세, 해학적인 태도, 과감하고 슬기로운 항의 등으로 정리해 본다.

1) 낙천과 해학

낙천적 태도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려 하고 현실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적극적 자세이다. 갈등 인물의 잘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인물을 미워하는 것보다 상대인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신경 쓰고 노력한다.

머리머리 받머리에 돛부따는 저큰아가
 머리끝에 드린댕기 공단인가 대단인가
 공단이건 나좁주게 뿔하랴고 달라는가
 망건탕건 꿰어쓰고 자네집에 장가갈래
 장갈랑은 오소마는 눈비올때 오지마소
 우산갓모 걸데없네 갓모랑은 깔고자고
 우산일랑 덮고자세 잠잘적에 꾸는꿈은
 무릉도화 부럽잖고 같이잡고 거닐적에
 비바람도 거침없이 풍파속에 사는세상
 임놔두고 아니살까 장가들러 어서오소¹²⁹⁾

집이 가난해서 비오는 날 장가오면 우산과 갓모를 걸어놓을 곳조차 없음을 말했다. “갓모랑은 깔고자고 우산일랑 덮고자세” 하고 가난에 맞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같이 잘 때 꾸는 꿈은 理想郷인 武陵桃源의 도화도 부럽지 않다고 한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닐적에 비바람도 이길 수가 있다고 미래에 낙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9)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50.

시아버지 골난데는 술받아주고
시어머니 골난데는 이잡아주고
시누이 골난데는 업어주네¹³⁰⁾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아씨, 시동생, 남편 모두 한결같이 화자에게 성을 내기만 한다. 일반적인 <시집살이노래>에서는 이런 경우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 모두 죽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지만 이 노래에서는 달관한 태도로 응대 자세를 취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각편도 있다. “시어머니 혜내신 데는 댐뻐대가 제일이드라/시아버지 혜내신 데는 술상이 제일이드라/서방님 혜내신 데는 밥상이 제일이드라/시누애기 혜내신 데는 연지분통이 제일이드라/요내 가슴 혜내신 데는 정든 임이 제일이드라”¹³¹⁾ 하고 시집식구 각각의 비위를 맞춰서 슬기롭게 대응함으로써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낙관적 인식이 배어있다. 현실에 대한 강한 의지, 능동적 자세와 밝고 건강한 태도를 담고 있는 장르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류종목은 “현실적으로는 노동의 괴로움과 가난으로 인해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자신을 선녀로 그려 본다든지, 훌륭한 남편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사는 꿈을 펼쳐 보인다는지 하는 것”¹³²⁾도 낙천적 태도라고 보는 것이다. 낙천적인 태도는 상대인물의 함부로 한 행동을 포용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라면 해학적인 태도는 상대인물의 잘못에 대해서 놀림조의 말하기 방식으로 상대인물을 비하시켜 자기의 울분이나 분노를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시아버지 방구는 호령방구
시어머니 방구는 요망방구
시누이 방구는 고자질방구
머슴 방구는 마당방구
서방님 방구는 풍월방구
요내방구는 도적방구¹³³⁾

130) 정동화, 『한국민요의 사적 연구』, 일조각, 1981, p.129.

131) 김월덕, 「시집살이노래와 여성 개인서사의 상관성」, 『한국민요학』, 제33집, 한국민요학회, 2011.

132)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pp.42-43.

133)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116.

며느리가 노래한 방구타령이다. 인간은 요사한 것이어서 미운 사람은 방구마저 밍게 들리고 좋은 사람은 방구소리도 좋은 음악처럼 들리게 된다. “아들딸 방구는 사탕방구” 좋아하는 사람이면 방구마저 향기롭다는 것이다. 다른 각편도 있다. 며느리는 흥이 많아서 방구소리조차 낼 자유가 없다. 남몰래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적질하듯이 한다는 것이다.

보리공출 나락공출 님의공출도 나오는데
안나오네 안나오네 시어머니공출 안나오네
님의공출 나오거든 시아버지 대신가고
내공출이 나오거든 시어머니 대신가소¹³⁴⁾

일제강점기에 관 官에서 강제성을 띤 공출(供出)을 명령하는 일이 있었다. 양곡이 모자라면 보리와 벼의 공출을 명령했고 일제는 인력이 모자라면 사람을 징용해 갔다. 시부모는 늘 권위만 부리고 심적 고통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출에 징용돼 갔으면 한다는 것이다.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 보내려는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또는 공출은 자기 생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 이미지인데 일제하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그 보다 더한 시집살이의 고통을 이겨 내기 위해 공출도 받아들여려는 것이다. 단 공출의 대상은 시부모이다. 이는 며느리의 계산이 들어 있다. 시부모가 징용돼 가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일제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 또는 고통만 주는 시부모의 부재로 생활의 안녕을 획득할 수 있는 계산이다. 시부모가 징용돼 가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두 가지의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다. 이런 상상으로 시집살이의 고통을 견디고 일제치하의 고통을 견뎌냈던 것이다.

가) 고추당추 맵다해도 시집살이 더맵더라
 둥글둥글 수박식기 밥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놓기 더어렵더라
 五里물을 길어다가 十里방아 찼어다가

134) 임동권, 『한국민요집』 2, 集文堂, 1980, p.328, 975번.

아홉술에 불을때고 열두방에 자리걸고
 의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라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푸르랴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하나 할림새요 시누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하나 미련새요
 나하나만 썩는샬세135)

나)

쫓바리꽃은 시너마니
 영그구꽃은 시아바이
 할미새꽃은 시누씨
 할무대꽃은 만동새
 신랑꽃은 함박꽃
136)

다) 범이그리 세다하니 세아버두구 더세겠나
 고치장이 맵다하니 새어미두구 더맵더냐
 어승이꽃이 곱다하니 남편두구 더곱겠나
 함박꽃이 곱다하니 아들두구 더곱겠나
 의나무다리 험하다하니 새형두구 더험하겠나
 칠월배추 푸르다하니 만동새두구 더푸르겠나
 당구슬기 세다하니 시앗두구 더세겠나
 닭부리 세다하니 세누비두구 더세겠나¹³⁷⁾

라)

장덕같은 시아방은 극극극극 극극극극
 암닭같은 시어멍은 객객객객 객객객객
 무끄러같은 서방놈은 뽕쩍뽕쩍 뽕쩍뽕쩍

135)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140, 548번.
 136)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132, 531번.
 137)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132, 533번.

줄락같은 시누이년은 줄락줄락 줄락줄락¹³⁸⁾

마) 싸아방은 구쟁이 녀이
나를보면 새들컹 한다
씨어명은 점복의 녀이
나를보면 오지직 한다
씨누이는 코생이 녀이
나를보면 호로록 한다
서방님은 문개의 녀이
나를보면 엉쿠정 한다¹³⁹⁾

바) ……
날개날개 덮던날개 시아버지 잡수시고
입숙입숙 놀리든입숙 시어머니 잡수시고
요늬구녕 저늬구녕 휘두르든 늬구녕은
시할머님 잡수시고 흐물흐물 응문통은
시하내비 잡수시고 좌우붙은 간덩이는
시누잇님 잡수시고 배알배알 곱배알은
시아주밤 잡수시고 다리다리 버렸는다리
신랑임이 잡수시고 가심가심 석이든가심
이내내가 먹읍시다 ……¹⁴⁰⁾

가)와 나)는 시집식구의 며느리에 대한 평소 태도를 상징하는 꽃들이나 새를 그려냄으로써 시집식구의 학대를 풍자한다. 나)노래의 다른 각편에서 시집식구 각자를 다른 꽃으로 비유한 원인도 같이 말했다. “시아버지 ……살아서도 호령하디 죽어서도 호랭이걸네……시오마이 살아서도 양살시럽디 죽어서 꽃이피도 양살꽃이 피었구나……시숙미에 살아서도 검은눈창 먼데두고 흰눈창으로 나를보디 죽어서도 유두꽃이 피었구나……위씨겘은 시누씨의……살아서도 한림질하고 죽어서도 한림하나……”¹⁴¹⁾ 시집식구들 평소의 행동 양식에 맞게 다른 꽃으로 야유

138)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141, 552번.

139)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119.

140)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p.254.

한 것이다. 다)는 시집식구들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사물로 비유하여 시집식구들이 자기한테의 악한 마음과 행동을 고발한다. 라)는 의성어, 의태어로 시집식구들을 비하시킨 것이다. 가)~라)에서는 比喩, 誇張, 言語遊戱, 擬聲語나 擬態語, 卑俗語 등 다양한 말하기 방식으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지 못한 시집식구들을 조롱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서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잡으므로 마)에서는 그 고기와 시가죽을 비유한 노래이다. 이렇게 해학적으로 말함으로써 시어머니의 부당을 공격적인 의도로 諷刺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꿩의 부위를 각각의 시집식구에 비유하여 풍자하는 바)가 있다. “시집살이 말 많단다, 보기도 몬본체, 듣고도 몬들은체, 말없어야 잘산단다”는 시집살이 노하우를 들은 딸애기가 “병어리로 삼년살고, 장님으로 삼년살고, 귀먹어리 삼년살고” 나니 시아버지에게 장애자로 간주되어 친정집으로 돌려보냄을 당할 뻔했다. 며느리의 응변인지 꿩이 날아간다고 노래하자 시아버지가 뜻을 접어 다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며느리가 자기의 신세를 꿩의 신체부위를 빌려 해학적으로 시집식구의 특징을 살려 야유한 것이다.

조동일은 『서사민요연구』에서 골계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가 있다. “슬픈 생활을 하면서도 ……어떠한 고난이나 불행이 닥치더라도 그냥 좌절해 버리지 않고 낙천적인 여유를 지니며, 고난과 불행을 처리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¹⁴²⁾ 또는 “여유를 가지고 억살로 비애를 차단할 줄 안다.”¹⁴³⁾고 했다. 고달픈 삶에 있어서 비애를 차단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흙에서도 연꽃이 피듯이 비애란 소(沼)에서 웃음꽃을 필 줄 알아야 한다. 한 마디로 해학이나 골계는 마음의 여유를 제공해 준다. 어쩌면 이런 여유는 생과 사를 관가름하는 분계선일 수도 있다. 여유가 있으면 앞날을 살만 할 것이고 없으면 비극이 일어나기도 한다.” 더 중요한 효과는 비판적 주제의 성립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이다. “슬픈 것을 단지 슬프게만 나타내지 않고 도리어 우습게 나타냄으로써……평민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고난과 불행을 그것대로 보여주는 것이다……역설이 성립되고, 역설은 슬픔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한다……비애란 결국 끝까지 고

141)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p.237.

142)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출판부, 1970, p.123.

14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p.244.

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전통이라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해방의 가능성이 골계가 비애를 파괴함으로써 생긴다.”¹⁴⁴⁾

정동화는 “한국민요의 내용적 기조가 비애라면 해학은 수식적인 요소”라고 하며 해학은 수식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한국 민요의 내용적 기조인 비애와 수식적 요소인 해학이 어울려서 한국 특유의 ‘은근한 웃음’과 ‘은근한 사랑’을 낳았고, 은근한 민족성을 형성하였다”¹⁴⁵⁾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최철은 한과 해학은 한국민요의 두 개의 주축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한국민요 속에 주된 정서의 하나로써 드러나는 한의 정서는 한국민요의 하나의 측면이다. 비애가 해소되는 문학적 형상화의 대응이야말로 한국민요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최철은 한국민요는 한과 풍자가 주조를 이루고 있는 미학적 통일이라고 본다.¹⁴⁶⁾ 이 두 개의 주축이 상호 지탱하고 보충하고 작용하여 한국민요의 균형이 비로소 유지된다고 본다. 비애의 해소는 단순한 배설적 의미의 해소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비애의 정서, 한의 정서를 낳게 한 대상세계의 부당한 질서를 수준 높은 차원에서 인식하고 형상화한다.¹⁴⁷⁾

류종목은 한민족은 원래 해학성이 풍부한 민족이라고 본다. 현실은 슬프지만 그 슬픔 속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고 해학과 웃음으로 그것을 차단하거나 희석 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누리는 지혜를 터득했던 것이다.¹⁴⁸⁾ 위정자들의 착취와 가렴주구, 그리고 시집살이의 고달픔 속에서도 민중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역시“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슬픔을 슬픔으로만 뱉어 버림으로써 그것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비탄과 절망감 속에 사로잡히게 하는 어두운 소리로 버려두지는 않았다. 극단적 아픔 속에서도 웃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깊은배려”라는 견해이다. 남들한테도 현실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면서도 남들이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자기의 슬픈 감정을 남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와 배려가 들어 있는 것은 해학의 또 다른 참의미와 가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극의 희극화 과정에는 골계를 통해 슬픔을 차단함으로써 세계에 대

144)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출판부, 1970, p.123.

145) 정동화, 『한국민요의 사적 연구』, 一潮閣, 1981, p.109.

146)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92, P.196.

147)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92, p.192.

148)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p.43.

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케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민중의 사회적 시각이 건전한 상식 위에 서 있음”¹⁴⁹⁾을 류종목이 제시했다. 해학 자체가 삶에 대한 건 강한 태도이다.

대상세계의 부당한 질서에 의해 멧힌 비애와 한은 현실의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있어야 할 세계를 부단히 창조하는 문학적 질서로 형성화된다. 한국민요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양상은 풍자라는 미학적 지평에 의해 획득하게 된다. 풍자는 대상세계의 폭력적 질서를 드러내며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¹⁵⁰⁾ 풍자라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부당을 시정하라는 것이다.

위에서 많은 선학들이 논술한 바가 있듯이 풍부한 해학성은 한국민요의 특징이고 해학은 현실을 대응하는 좋은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해학적 표현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부당의 편의 악하거나 우스운 모습을 제대로 드러낸다.
- ②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슬픈 처지를 한 층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 ③ 슬픔에 빠져들지 않게 슬픔을 차단한다.
- ④ 슬픔을 극복하고 소화해 내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한다. 이어 고통을 받는 자들이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

해학성을 띤 민요는 한국민요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다. 사람들에게 고달픈 삶을 사는 바르고 슬기로운 자세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캄캄하게만 보여 오직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방식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지만 그토록도 한을 주는 상대인물들이 많아도 여러 유형의 괴롭힘과 부당을 당해도 끝까지 한 줄기의 여유가 남아 미운 상대인물들을 조롱하면서 쌓인 한을 풀도록 한다. 여러 고난과 불행 속에서도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한국여성들의 멋이 아닐까 싶다. 그런 여유로 멧힌 한을 풀고 다시 고난과 불행을 극복해 나갈 용기와 힘을 얻고 소극적, 비극적 수단으로 해결책을 구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이 한국여성들의 흥과 멋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해학적인 표출 방식은 심적 치유 효과도 있다. 자기 스스로 웃음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능동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민요를 듣고 부르는 것으로 동류의식을

149) 류종목, 『한국 민요의 현상과 본질』, 민속원, 1998, p.185.

150)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92, P.194.

형성하며 위로받기도 한다. 민요를 감상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대리 표현¹⁵¹⁾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는 이런 대리 표현을 함으로써 대리 만족을 얻게 된다. 앞으로도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2) 반전의 슬기

여성은 늘 인내심을 가지고 대상인물의 비위를 맞춰서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간접적 해학적인 표출방식으로 부당에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저항의 몸짓으로 시대를 비판하고 제도에 항거하기도 한다. 남존여비라는 굴레를 씌워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시부모에 대해서, 사랑과 가정에 불충실한 남편에 대해서, 여인들은 아픔을 토로하고 횡폭을 고발한다.¹⁵²⁾ 여기서는 과감하고 슬기로운 항의를 통해 상대인물을 굴복시켜 잘못을 인식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고 분발해서 온갖 노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거부가 된 여장부도 있고 새 인연이 닿는 대로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아 다시 행복한 삶을 되찾은 사례도 있다. 즉 여성민요에서 이처럼 역전극도 많이 연출된다. 이런 민요에 나타난 여성들은 운명의 반전을 이뤄 낸 멋진 여성들이다. 우선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식이 시집살이 여인의 지혜를 통해 제시되는 흥이 있는 사례가 다음의 경우이다.

.....

참께한말을 묶으고낭게
벌어졌네도 벌어졌네 양에가매가 벌어졌네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아가아가도 며느리아가
느그집아리 건너가서 세간전답을 팔아서라도
양에가매를 물어오니라
시아버니가 나오셔서 아강아강도 며늘아가
느그집이라 건너가서 쟁기보십을 팔아서라도
양에가매를 물어오이라
꽃방석도나 내어피소 은방석도나 내어피소

151) 함복희, 「시집살이 민요 스토리텔링의 치유적 효과」, 강원대학교, 민문과학연구, 2009.

152)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p.44.

동네어른들 나오라하소
 대레걸은 자네자숙 구름같은도 말을타고
 동네동네도 다지나고 다래청으로 들어서서
 체념상에 체념하고 밤중밤중도 야밤중에
 달과같이도 상긴몸을 바늘같이나 헐었으니
 요내몸값도 천냥주면 양에가마도 물어옴세
 아가아가 며늘아가 나도야야 짚어서는
 죽세기죽반도 깨어봤다¹⁵³⁾

며느리가 가마솔을 깨뜨리자 시집식구들은 이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친정에
 가 물어 오라고 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한다. 이에 주인공은 시집식구의 부당한 요
 구에 항의하는데, 시집을 와 남편에 의해 헐어진 몸을 물어 주면 깨트린 그릇을
 물어내겠다고 한다. 여기에서 헐어진 몸을 깨진 그릇에 비유하는 주인공의 재치
 에 시집식구가 굴복하여 주인공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깨진 그릇이야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는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헐어진 몸은 누구도 보상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주장이 들어 있다. 여성들이 늘 비하와 천대를 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주인공이 자기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 것이다.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시집식구 중의 한 성원으로서는 가져야 할
 권리를 당당하고 재치 있게 또는 논리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동시에 가장의 권
 위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제기를 하는 도전정신도 들어 있는 것이
 다. 상대인물의 부당함을 드러냄으로써 자기 보호를 하며 자존심과 권리를 지켜
 냈다.

영혜영덕 긴삼같이 진보청송 관솔같이
 우리아배 관솔패고 우리올배 관솔놓고
 이내나는 비비치고 우리형님 나리치고
 밤새도록 삼고나니 열손가리 반을추려
 닷손가리 반남았네 안동동내 열네동내
 동내마다 송사가자 암만없이 송사가면

153) 서영숙 자료, 먹골68, <양동가마 노래>, 정시순(여, 56세), 1982.4.3.

네이기나 내이기지 우리아배 이방호장
우리올배 동래부사 골방기생 엄동생아
향수별감 얼삼촌에 네이기나 나이가지¹⁵⁴⁾

가족들이 모두 나서서 일을 하는데 시집식구는 빈들빈들 놀기만 하니 화가 난다. 그래서 핫김에 소송하자는 것이다. “우리아배 이방호장 우리올배 동래부사 골방기생 엄동생아 향수별감 얼삼촌에”하면서 집안이 든든해서 송사를 해도 승산이 있다는 장담이다.¹⁵⁵⁾ “송사가든 사흘만에 썩문삼천도 맞었다네” 시어머니가 벌을 받은 두려움에 굴복되어 “악아악아 메늘악아 느그우중 무섭드라 일후에는 좋기하마” 하고 앞으로 잘해 주겠다는 장단을 늘어 놓은 것이다. “악아악아 메늘악아 무슨죽이 이리씹노 썩문삼천도 맞인입에 벌꿀인들 안씹는가”에서는 시어머니가 죽에 대해 원망하자 며느리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구박한 것으로 지위를 뒤바꾼 것이다. 또는 며느리는 시누이가 옷을 찢자 “시누이야 씨거둥 말라” 하면서 시누이의 못된 행동에 항의한다. 처가식구를 무시하는 남편에게 “우리부모가 그 절을받아 철년살고 말년살이” 하고 반문하면서 조리 있게 남편의 건방진 태도에 항의하는 유형도 있다. 시집식구의 부당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부당에 맞서 과감하게 항의한 것이다.

.....

오색당사 가는실을 울울이 자아내어
유행새 큰베틀어 틀틀어 짜내어서
할림주사 조복이며 병사수사 용복이며
녹의홍상 처녀치장 청삼복건 소년의복
어린아이 색옷이며 팔십노인 할옷이며
원앙금침 수놓기 왕봉황 금문놓기
낮이면 두필이요 밤이면 다섯가지
뽕을따서 누에치기 전답얻어 농사짓기
때를찾아 힘써하니 가업이 유족하다
푼푼이 모아내니 냥이모여 관이되고

154)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99.

155)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99.

관이모여 백이된다 앞들에 논을사고
 뒷들에 밭을사고 땅을헐어 담을쌓고
 울을헐어 기와이여 가마솔이 죽죽이요
 ……
 부모공양 극진하다 능나금수 옷을치어
 철철이 갈아입고 떠는사람 옷을주고
 주린사람 밥을준다¹⁵⁶⁾

“분한마음 깨쳐먹고 치산범절 힘쓰리라”하며 분발해서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 온갖 고생과 노력 끝에 역경에서 빠져 나와 행복한 인생을 실현한 賢婦에 관한 노래이다. 베틀로 옷감짜기, 수놓기, 의복짓기, 누에치고 농사짓기 등을 부지런히 하여 역경 속에서 비관에 빠지지 않고 근면하고 슬기롭게 노력해서 논을 사고 밭도 사고 “푼푼이 모아내니 냥이모여 관이되고 관이모여 백이된다” 재산을 늘려 드디어 거부가 된 것이다. 부자가 된 후에 “날마다 소를잡아 부모공양 극진하다” 부모에게 효도를 지극히 하고, “떠는사람 옷을주고 주린사람 밥을준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준다. 지혜와 노력으로 자기의 가세를 일으키고 부모봉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적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까지 한 것이다. 자신들의 운명에 있는 방해 요소를 제쳐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재자가 되고 현실에 대한 강한 추진력과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의지력을 보여 준 멋진 여성이다. 부정적 현실, 어두운 삶을 긍정적 행복한 삶으로 바꿔 낸 성공한 여성 모범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눔과 공생의 원리를 옛 여성민요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達則兼濟天下”라는 긍정적 유교의식의 수용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민요가 개인적 능력, 개인적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은 현재 우리 사회에 준 좋은 가르침이라고 본다.

이런 경제적 상황의 반전을 이뤄 낸 것뿐만 아니라 惡緣으로 불행하게 살다가 다시 새 인연을 만나 사랑까지 획득하여 행복한 인생을 되찾은 반전의 사례도 있다.

……

156)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198.

이만 하든 시집살이 다시 한 번 그만 하고
 한군데나 가읍시다 한강같이 깊은 물이
 배꽃걸은 치매 씨고 풍당 빠져 죽었으니
 어떤 사람이 알아주냐 거친 남귀 버들이가지 걸렸구나
 버들이 허치나 갖고 썩 나섬서 물어본게
 난디 없는 도령님이 그렇게 죽을거 없으님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요내 손질로 따라 오게
 그 도령손을 거머쥐고 다정하게 한 재 넘고 두재 넘어
 삼세줄을 넘어가니 삼칭같은 지아집이
 꽃밭을 피고 앉아 노네 이만하면 살은건데
 그 아니 죽어서 못 볼건데
 그 도령 만나 사여갓고 백년언약을 사다보니
 아들 낳고 딸을 낳고 이내 신세가 쪽 빠드리져서 생겨났네¹⁵⁷⁾

여자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 도령님에게 구출돼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자가 시집살이의 고통을 못 견뎌 한강에 빠져 죽고 싶었는데 뜻밖에도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 살아 난 것이다. 난데없는 도령님이 죽을 것이 없고 자기를 따라 오라고 권했다. 여자가 이 전기를 잡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 구출되더라도 다시 자살 시도를 하거나 수절 사상에 순종하여 다시 시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텐데 여자는 이 두 가지의 길을 택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기를 이용하여 행복한 인생을 이뤄 낸 현명한 여성이다.

여성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연약하다. 가난이나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남편의 불충실 등 문제들을 만났을 때 견디기 힘들어 한탄하거나 죽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종종 있다. 하지만 위 노래 속의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과 달리 강인한 마음과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순종적, 수동적으로 살려 하지 않고 주체적 능동적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한다. 어두운 현실에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긍정적 능동적 대응 자세를 취해서 난관을 극복해 낸다. 여성들이 그럭저럭 살려 하는 앓는 자존의식과 남이 살라는 대로 살려 하지 앓는 삶에 대

157)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亦樂, 2009, p.102.

한 주체의식과 자기주도 의식이 보여 진다. 주어진 사주팔자를 그대로 믿지 않고 운명 타개를 도하는 개척정신이 있는 것이다. 자기의 삶만을 챙길 줄 아는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利他心이야 진정으로 귀한 것이다.

3) 사랑과 용서

유교사회에서는 애정의 표현이 억제되었으나 서민들이 때로는 도덕의 한계를 넘어도 사랑을 실현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미량이라 공소숲에 蓮밭따는 저處子야
處子집은 어디시며 해다진데 연밭따노
길로가는 저선비야 내집물어 뭐할랴요
내집으로 올라하면 왈대정자 넘어들어
구름정자 돌아들어 월평산 달밝은데
김주삼칸 내집이요 내집에는 찾아오면
은비네는 기둥서고 연지같은 분통안에
열두병풍 둘러치고 바람불고 눈비올때
그럴적에 찾아오소¹⁵⁸⁾

뒷동산에 밤줍는처자 밤한톨만 청합시다
외톨박이 쭈쟁이는 남을취도 좋소마는
마음만은 나를주소 언제봤든 손이라고
밤한톨을 달라느뇨 아까는 초면이고
지금이면 구면이지 외톨밤을 드리리까
쌍톨밤을 드리리까 외톨쌍톨 이내주고
오늘밤을 쉬어가세¹⁵⁹⁾

총각이 집을 물으면 처음에는 살짝 거절하면서도 드디어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단둘이서만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때에 오라는 것이니 결국은 은근히 응낙한 셈이다. 연지 같은 분통은 아늑한 장소이며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158) 임동권, 『한국의 민요』, 일지사, 1986, pp.55-56.

159) 임동권, 『한국의 민요』, 일지사, 1986, p.57.

장소이다. 병풍 둘러친다는 얘기도 역시 둘이 같이 밤을 보내도 좋다는 의미이다. 또
는 두번째 노래에서 쌍톨밥은 남자 성기의 상징이고 “외톨밥, 쌍톨밥” 하면서 하는
물음으로 여자의 마음을 떠보려는 것이다. 이에 여자는 사랑을 실현하기 좋을 시기
나 장소를 제시하면서 “그럴적에 찾아오소” 하거나 “오늘밤을 쉬어가세” 하며 사랑
의 실현을 준비한다.

하지만 위 노래에서 사랑을 실현하려는 표출방식이 보다 함추적이고 암시적이
다. 암암리 애정이 오가며 주고받는 것이다. 성적인 유혹이 포함돼 있으나 사랑
을 이루기 좋을 시일을 정했을 뿐이다. 아래의 민요처럼 정이 간대로 바로 사랑을
실현한 사례도 있다.

남산밑에 남도령아 서사밑에 서치녀야
오늘일기가 청명하다 나물캐러 가나보자
.....
올라가민 울개사리 아듬다듬 꺾어담고
내리가민 늦개사리 아듬다듬 꺾어담고
경치야좋은 바우 끝에 짐슴밥을 패여보니
남도령밥은 패여보니 삼년이나 묵으난 콩보리밥
서치녀밥을 패여보니 울무겉은 쌀밥이라
서치녀밥은 남도령이 묵고 남도령밥은 서치녀가 묵고
내가 니밥을 묵었으니 백년언약을 맺어야다
얼씨구좋네 절씨구좋네 이렇게 좋을줄 내몰랐다¹⁶⁰⁾

나물을 캐다 각자 가지고 있는 밥을 나눠 먹은 후에 “백년언약을 맺어야다” 또
는 기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좋을줄 내몰랐다”고 한 것이다. 남녀간 서
로에 대한 호감을 자연스럽게 주고 받으며 행복의 희열을 느낀 것이다.

그럭저럭 해가이였네
앞치매 벗어나서 자리를 깔고서
에 속치매 벗어나서 훌이불 하고야
에 그럭저럭 잠을야 자였네¹⁶¹⁾

160)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亦樂, 2009, pp.362-364.

나물 캐다 정이 흐르는 대로 사랑을 나누는 총각과 처녀의 이야기다. 서영숙은 이렇게 서사민요 중 총각과 처녀가 만나 유행어를 빌려 말하자면 “밀당”없이 정이 흐르는대로 사랑을 나누는 내용은 대단히 파격적이라고 했다. 작품에 따라서는 잠자리를 같이 한 후 총각이 처녀에게 청혼을 하나 처녀가 오히려 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한번 몸을 허락한 남자에게 자신의 일생을 걸어야 한다는 맹목적 정조 관념에서조차 자유로움을 볼 수 있다. 이 유형중의 여성은 전통적 혼인의 관습과 정절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기 삶의 주재자이다. <송과부 노래>¹⁶²⁾에서 장사가 매우 큰 남자의 성기를 파는 장면을 설정하여 다른 과부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데 송과부가 나와 사 간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노래다. 평민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형태의 노래가 은연중에 불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에서 성적 억압과 천대를 받는 여성들이 상상을 통해 기묘한 이야기를 설정하여 은밀하게 부름으로써 울분을 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축적이든 즉흥적이든 애정을 주고받는 것 외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사랑을 위해서 용서와 타협하는 것이다. 어쩌면 용서와 타협은 더 무게가 있는 사랑일 수 있다. 용서라는 것은 마음이 넓지 못하고 아량이 없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협도 결코 늘 승부욕을 타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최상의 문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끝없이 따지고 쟁투하고 심지어 사생결단을 내릴 지경까지 가는 것보다 용서와 타협할 줄 아는 것은 멋져 보일 때가 있다.

우리낭군 어데갔노 첩의집에 또갔구나
 이왕지사 늦은숨기 낸들어이 막아내리
 적은칼을 품에품고 큰칼갈아 손에들고
 등을넘고 재를넘어 첩의집에 찾아가니
 반달같은 실눈섭에 샛별같은 눈동자에
 부편같은 콧주저리 박씨같은 입모습에
 앵두같은 입수부리 반만웃고 석나서며

161) 서영숙, 『한국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亦樂, 2009, pp.362-364.

162) 서영숙 자료, 맥굴 36, <송과부 노래>, 양남순(여, 78세), 1981.7.31.

꽃방석을 내여놓고 나우같이 절을하고
 크다크다 큰어머님 오실줄을 알았다면
 큰방준비 하올건데 오실줄을 영몰랐오
 점심진지 하오리다 잠시만 멈추소서
 뒷산에 올라가여 부짓갱이 던져서
 새한마리 잡아다가 열두접시 갈라놓고
 위씨같은 전이밥에 앵두같은 팔을넣어
 진수성찬 차려오니 큰어머님 하신말씀
 너죽이러 내왔드니 나의눈에 저러한데
 임자눈에 어떠하리 우는아기 두고와도
 떠날마음 영없는데 잠신들 잊을소냐
 태산같은 우리낭군 하늘같이 도와다오
 감든마음 풀어지고 오든길로 나도간다¹⁶³⁾

남편이 첩을 두고 밤낮으로 드나드는 꼴이 사나위 사생결판을 내고자 했다. 큰 칼을 손에 들고 작은 칼은 품에 품고 첩의 집에 찾아 갔다. 그러나 첩은 “반달같은 실눈섭에 셋별같은 눈동자에 부편같은 콧주저리 박씨같은 입모습에 앵두같은 입수부리 반만웃고 ……” 예쁜 외모를 가지는 자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꽃방석을 내여놓고 나우같이 절을하고”, “오실줄을 알았다면 큰방준비 하올건데 …… 점심진지 하오리다 …… 뒷산에 올라가여 부짓갱이 던져서 새한마리 잡아다가 열두접시 갈라놓고 위씨같은 전이밥에 앵두같은 팔을넣어 진수성찬 차려오니” 하고 예의도 바르고 성의 있게 밥상까지 차려 준 것이다. 즉 예쁜 외모에 예쁜 마음을 가지는 자이다. 드디어 처가 “나의눈에 저러한데 임자눈에 어떠하리” 하며 첩의 예쁨을 인정해 준 것이다. 또는 외모보다 첩의 내적인 미에 감동을 받아 칼날 같이 매서운 마음도 풀고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태산같은 우리낭군 하늘같이 도와다오” 하며 남편을 잘 도와 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이다. 즉 마음까지 예쁜 첩에 대한 타협이라고 봐도 되겠다. “태산같은 우리낭군 하늘같이 도와다오”라고 한 것은 처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사랑과 첩의 예쁜 마음에 용서와 타협의 자세를 취한 것이다. 넓은 마음으로 남편의 행복과 집안

163)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p.117.

의 화목을 이뤄 내려는 것이다. 자신이 조금 양보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도 행복하도록 해 주는 넓은 배려라고 생각한다. 첩의 환대와 처의 양보는 당시의 제도 하에 여자들끼리 서로 호의를 베풀어 주는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모드라고 해도 되겠다.

조동일은 내방가사와 서사민요를 비교하면서 전후자의 차이점을 말한 바가 있다. 즉 내방가사에서는 생활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참고 주어진 삶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 반면에 서사민요는 자유로운 사랑의 긍정과 요구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는 자에 대한 날카로운 반발을 보인다. 도덕률에 의해 주어진 삶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는다. 내방가사와 달리 타협에의 의지 같은 건 없다고 보고 있다. “고난의 감수를 완강히 거부하고 고난을 물리치지 못하면 차라리 비극적인 죽음을 택한다”¹⁶⁴)고 논술했다. 하지만 위의 노래에서처럼 칼을 들고 사생결단을 내려고 가는 본처는 마음을 풀고 돌아왔다는 것을 일종의 관용과 타협으로 보는 시각이다. “부덕의 승리요, 감정의 폭발과 복수를 평화적인 해결로 매듭을 짓고 있다”¹⁶⁵)고 또는 본처와 첩의 화해는 기형적이기는 하나 타협으로 가정에 평온을 가져오게 되고 본처는 넓은 도량으로 평온을 유지하는 지혜라는 견해이다. 첩의 훌륭함에 대해 질투가 더 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첩의 훌륭함을 인정해 주고 남편에게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도 그런 심정을 자제하고 평화를 이뤄 냈다. 타협이든 아니든 간에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남의 훌륭한 점을 인정해 주고 양보하는 것도 훌륭한 자세이다.

4) 초현실적 극복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이든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이든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결말을 짜냄으로써 부당한 현실에 항의하는 것도 일종의 대응방식이다. 여성들이 자유분방한 상상을 펼침으로써 자기가 지향하는 세계를 제시한다. 이는 일종의 자기위안적 상상에 불과해 보이지만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항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는 이상적 세계나 한 인간으로서 특히 여성으로서

164)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출판부, 1970, p.57.

165)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p.118.

의 이상적 모습에 대한 구상은 어두운 현실이 개선 필요가 있다는 힌트가 되고 개선 방향도 제시돼 있는 계시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가) ……

질가던 선배가 당신은 왜여있소
나는 시아바씨한테 방구끼다 쫓기났소
저게 저배낭게 저배하나 나를따주면
내가 얼마래도 청하는대로 돈을주지
할아버지 배한개가 잡숫거집거던
뒷집에라 흥두께얻어오소
이내궁디만 대어나도 흥드께방마치
한분끼만 떡올라가서 주룩주룩이 쏟아지고
두 번째 올라가서 방구를 끼니 배나무가 지끈겼소¹⁶⁶⁾

나) ……

흰꽃을 문대면서 일어나오 일어나오
이승부부 될라그당 어서배빠 일어나오
새파랑꽃을 문대면서 일어나오 일어나오
이승부부 될라그당 어서배빠 일어나오
빨건꽃을 문대면서 일어나오 일어나오
이승부부 될라그당 어서배빠 일어나오
삼대독자 외아들 무남동자 외아들
살랐으니 무슨지사가 나올까
열녀충신 내머늘아 효자충신 내머늘아
무남독녀 내머늘아
남한산성 관솔불은 꺼진불로 살가내고
어그뻥뻥 나락밥은 팔십노인도 살가넨단다¹⁶⁷⁾

가)는 며느리가 방귀를 끼어 시집식구에게 쫓겨난 것이다. 방귀를 끼어 높은

166) 구비대계8-6, 거창군 마리면36, <방구 타령>, 이점순(여, 57세), 1980.8.15, 최정여, 강은해, 박종섭, 임갑량 조사.

167) 서영숙 자료, 새터 60, <서답게 노래>, 신순임(여, 83세), 1981.7.22.

나무에 달린 배를 따 주어 주변 사람의 칭송을 얻게 된 것이다. 초능력을 가지는 것을 상상하여 부정적인 방귀를 희극적 장치로 전환하여 긍정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쫓겨난 비극을 극복하여 희극적인 삶을 살려는 것이다. 나)는 남자는 강변의 여자에게 월경수를 떠달라고 했더니 익경수를 떠다 준 것이다. 다시 월경수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하여 죽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을 안 여자가 흰 꽃, 사과랑 꽃, 빨간꽃으로 남자를 되살렸다. 죽었던 아들을 되찾게 된 총각의 부모는 처녀를 “열녀충신 내며늘아 효자충신 내며늘아”라 칭송하며 모든 것을 물려준다면서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꽃으로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은 제주신화 속 ‘서천꽃밭’과 사유가 비슷하다. 살 오를 꽃, 뼈 오를 꽃, 숨 돌릴 꽃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도환생꽃’이다. 꽃은 잉태, 출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은 이를 부활시키기도 하고 산 자를 복수하기도 한다. 수레멸망약심꽃으로는 원수를 갚고 도환생꽃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원수를 갚기 위해 먼저 웃음웃을 꽃으로 웃기다가 싸움싸울 꽃으로 서로 싸우도록 하여 수레멸망약심꽃으로 멸족시킨다. 이본에 따라서는 가난할 꽃을 주어 가난하게 만들고, 불붙는 꽃을 주어 불붙어 죽게 만들기도 한다.” 피를 살리는 꽃, 살을 생기게 하는 꽃, 숨이 터지게 하는 꽃, 일어나서 걷게 하는 꽃 등 꽃은 잉태, 출산, 죽음, 부활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음¹⁶⁸⁾을 알 수 있다. 능력 제한을 느낀 인간은 원하는 것을 꽃에 신명한 힘을 부여함으로써 성사시키고 싶은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각편에서는 신랑의 상여를 멈추고 신부가 속적삼을 덮어 줌으로써 실랑을 살려 내는 유형도 있다. 절망에 빠졌을 때나 자신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때 사물에 신명한 힘을 부여하여 자기가 실현하고자 할 일을 성사시켜 줄 것을 원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이 늘 순종적으로 하라는 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자신에게 능동적으로 사는 모습을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는 여성이 자기 스스로에게 상상을 통해서 초현실적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자유와 소유의 획득을 가능케 해 준 것이다. 이는 여성이 마음속에서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본다. 자신한테도 능력이 있으므로 자기 삶의 주체자로서 능동적으로 자유스럽게 살기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자유에 대한 소유를 희망한 것이다.¹⁶⁹⁾ 그리고 노래 마지막 부분의 시어머니가 칭찬을 해주는 것을 상상

168) 현승환, 「생불꽃 연구」, 白鹿語文 第13輯, 1997.2.

한 것은 여성들이 늘 시집식구들의 백안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고 마음 속에서 시집식구들 특히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사랑도 받았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실에서는 여성의 처지가 남편이나 시댁식구보다 늘 열등한 입장에 처해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노래 속에서는 시부모로부터 인정받고 극진한 대우를 받게 함으로써 상상에서나마 처지의 역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경북 군위군의 시집살이노래 가운데는 시집을 가서 구박을 받다가 여승이 되어 친정으로 간 신부가 다시 시댁으로 왔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죽어 여러 꽃으로 변생되었다는 내용의 노래가 있다. 그런데 그 꽃 가운데 함박꽃이 된 신랑꽃은 다시 인도환생하여 신부와 백년해로한다는 것이다”.¹⁷⁰⁾ 인간의 능력에 한계를 느낄 때 인간은 신의 존재를 부여하거나 초능력과 초현실적 세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려 한다.

女丈夫노래에서 한 것처럼 온갖 지혜와 노력으로 가세를 일으킨 여성이 멋지다. 시집식구들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몸값을 물어달라는 시집식구에 슬기롭게 항의한 모습도 멋지다. 해학적인 표현으로 시집식구들을 풍자하고 조롱하여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차단하고 모든 괴로움을 소화해 내려는 태도도 멋지다. 억압과 고통에 최면을 이용하여 비극적 현실에 처해 있어도 긍정적 에너지가 생기도록 좌절에 굴복되는 것으로 결말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해학은 현실을 차단하는 힘을 주는 동시에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해학은 삶에서 완전한 해방을 갈구하여 현실적인 갈등의 억압을 차단격리하는 방법이다. 첩과 싸워 이겨 자기의 사랑을 지키는 것도 좋을지언정 첩의 집으로 사생결단을 내리 갔는데 결국 첩의 아름다운 용모와 바른 예절 등 훌륭한 점을 인정해 주고 용서하기로 한 자세도 멋지다. 또는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초능력을 부여해 줌으로써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성사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심리적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여성들의 현실의 비리나 부정을 고발, 공격, 항거의 자세, 봉건사상을 비판하고 평등사상을 이루려고 해학과 풍자로 불만을 표출하고 해소하려는 건강한 태도, 계급적 의식을 초월하려는 혁신사상 등이 일일이 보여 졌다. 봉건

169)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pp.351-352 참고.

170)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p.351 참고.

적 사회체제를 붕괴하고 인간적 해방을 이룩하자는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노래화하여 피를 흘리는 방식이 아니고 보다 부드럽고도 예술성을 띤 방식을 택한 것으로 여성들이 여성들대로 기여했다고 본다. 민요는 현실을 노래화한 것이고 또는 역으로 노래로 현실의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더 좋은 현실을 추구하고 만들어내자는데 힘을 주는 역할이다. 삶과 노래는 상호작용의 관계이다. 조동일은 서사민요연구에서 각 서사민요 유형구조를 분석해서 서사민요의 전체적인 구조가 “고난-해결의 시도-좌절-(해결)”로 되어 있고 이러한 구조는 중요한 사회적, 미학적 의의를 지닌다고 했다. 서사민요 각 유형구조에 대해 조동일의 논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난은 문제의 출발이다. 그 다음에 고난을 해결하고자 수많은 시도를 한다. 고난은 현실의 객관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해결의 시도 자체가 가치 있는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나 반드시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시도하다가 다시 좌절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의 좌절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발전적 긍정적 의의를 지닌 실패이다. 다시 좌절을 만난 것은 시도의 방도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시도의 방도를 조절함으로써 진정한 해결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을 미시적으로 인식하면 좌절 뿐이지만 거시적으로 인식하면 좌절이 곧 해결이다. 실제 생활에서는 좌절이 곧 해결이라는 데까지 이르기엔 많은 곡절이 있어야 한다……실제 생활에서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무수히 실패한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에 해결의 길이 발견되고, 해결은 가능하게 되고, 가능한 길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힘이 생기며, 결국 해결에 이르게 된다”¹⁷¹⁾고 한 조동일의 논술은 바로 민요가 시공간을 초월해 현대인인 우리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고난은 곧 해결이다. 해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문제뿐이다. 당분간의 고난으로 눈이 가려진 자들이 한탄하고 체념하는 거나 총총히 자기의 목숨과 고난을 같이 종결하는 방식보다 “고난 곧 해결이다”라는 말을 신조로 삼아 살아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

171)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출판부, 1970, pp.89-92.

IV. 한국여성민요 속의 긍정적 여성의식

3장에서는 옛 여성들이 어두운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다. 부정적 대응도 부당한 현실에 가만히 있지 않고 현실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취한 방식인데 본고는 역시 긍정적 대응 방식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 대응 방식에 깔려 있는 여성들의 긍정적 의식과 에너지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민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중 빛을 발하는 부분을 밝혀 내려고 한다. 이것은 深遠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1. 낭만성과 상상력

모성애, 애국, 효도 등은 세계 여성들의 공통적 특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二字나한장 들고봐 晋州妓生 義岩이/倭將清正 목을한고 晋州南江 떨어졌다”¹⁷²⁾고 한 것은 민족 대의를 위해 희생된 晋州妓生 義岩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만첩청산에 금자둥이/나라님전의 충신둥이/부모님전의 효자둥이/일가친척에 우애둥이”¹⁷³⁾ 라는 것은 아기가 자라 커서 충효를 다하기를 바라는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양치손 上品쇠는 지어내니 바늘이라……부러진 혼적이나 뉘시를 휘어내어/청류수에 내다라서 잉어를 낚아내어 부모봉양 하고지고”¹⁷⁴⁾라는 것은 바늘이 부러지면 뉘시 도구로 만들어서 잉어를 낚아내어 부모봉양하려는 것이다.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금도끼로 찍어내어 은도끼로 다듬어서/草家삼간 집을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¹⁷⁵⁾라고 한 것은 월궁의 계수나무로 집을 짓고 부모님을 모시고 천년만년 살고 싶다는 것은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여성들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계수나무로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발상이다. 중국 설화에서 월궁에

172)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227.

173)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383, 1579번.

174) 임동권, 『한국민요집』 1, 集文堂, 1980, p.157, 580번.

175) 임동권, 『한국의 민요』, 일지사, 1986, p.25.

선녀와 옥토가 살고 계수나무가 있다는 설화가 있는데 한국인들이 외래문화를 흡수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킨 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한국여성들의 낭만성이다. 여성 민요를 살펴보면 이런 낭만성이 도처에 침윤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속의 계수나무로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낭만적 구상이다. 주머니노래 중에 해를 따서 안을 넣고, 달을 따서 거죽을 하고, 용의 발로 설을 둘러 쌍무지개로 끈을 단다는 것도 낭만성이 농후하다. 앞서서도 말한 바가 있듯이 엄마와 임의 부재에 대한 한을 토로할 때도 낭만성을 띠고 있다. 제비를 보고 엄마를 찾아 달라고 한다든지 엄마를 사러 간다든지 자기와 임이 죽으면 각자 꽃과 나비로 환생한다든지 슬픈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낭만적 온갖 상상을 하면서 한다. 한국여성들의 낭만성은 어머니 님의 부재로 인한 자유분방한 온갖 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의 슬픔과 비애를 표현하는 데 천지만물이 다 동원된다.

조고만한 조약돌이 거드란 광석이 되야 서중맞거든 오실라나
대천이라 한가운데 물이말러 논치고 밭갈거든 오실라나
태산이 평지가되고 평지가 태산이 되거든 오실라나¹⁷⁶⁾

모란봉이 변하여 대동강수가 될지라도
너와나와 두사람이 변치말자 굳은언약
세상이 이다지도 야속무정 하단말가¹⁷⁷⁾

위의 노래는 역시 거시적 시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을 나열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 하는 애절한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山無陵，天地絕，冬雷震震，夏雨雪，乃敢與君絕”，“滄海變桑田”，“天崩地裂”，，“海枯石爛” 등 중국에서도 비슷한 표현 수법이 있는 데 한국의 이런 표현 수법은 더 소박하면서도 풍부한 것 같다. 중국의 이런 표현들은 거시적 시각으로 규모가 크고 한국의 이런 표현들은 규모가 큰 것도 있는가 하면 微視的, 구체적이고 생활화된 것도 아주 많다. ‘삶은팥이 싹이트면’ 각편에 따라 ‘구운 밤’, ‘기왓장에 박은 박씨’, ‘십년묵은 고목

176) 임동권, 『한국민요집』 2, 集文堂, 1980, p.310, 924번.

177) 임동권, 『한국민요집』 2, 集文堂, 1980, p.310, 927번.

나무’, ‘부뚜막에 흘린밥티’ 등 짝이 트면 오실라나 살림살이에서 발생 불가능한 일들을 나열한다. ‘병풍에 황계닭이 휘치면’, ‘문지방에 그린범이 훌쩍뛰면’¹⁷⁸⁾, ‘가마솥에 푹 삶은 개가 쿵쿵 짓으면’, ‘논산 갯경 기러기가 훈련을 받으면’, ‘삼년 묵은 쇠뺨따귀 살붙으면’ 바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물을 빌려 죽은 어머니나 님이 다시 소생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된다. 또는 님이 떠나 돌아오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도 온갖 상상들을 펼쳤다. “시운천왕 굶은비에 우장이없어서 못오니꺼”¹⁷⁹⁾, “상상봉의 시노인이 바두 뒤는데 구경할 못오시는가”¹⁸⁰⁾, “약수궁의 배가없어 못오든가”, “적막강산 짙은골에 질을잃고 못오든가” 등 행어나 곤경에 빠져 들어오지 못한 것일까 희망과 기대를 버리려 하지 않는 것이다. 비슷한 예문을 더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있다.

.....

무엇이 부족하여 생이별 하시려고
 나의용모 보기싫어 생이별을 하시는가
 광대한 천지가에 구경하러 가시는가
 주색잡기 화류장에 노류장화 가시는가
 창운막교 자맥상에 부귀하러 가시는가
 명산대천 좋은곳에 풍월하러 가시는가
 동남동녀 다리고서 신선찾아 가시는가
 운담풍경 견우천에 불을찾아 가시는가
 골몰한 세간살이 보기싫어 가시는가
 밀양운심 청류방에 라방출입 가시는가
181)

.....

적막강산 짙은골에 질을잃고 못오든가
 세우청산 굶은비에 놀기좋아 못오든가

178) 임동권, 『한국민요집』 2, 集文堂, 1980, p.280, 873번.
 179) 임동권, 『한국민요집』 4, 集文堂, 1993, p.258, 592번.
 180) 임동권, 『한국민요집』 4, 集文堂, 1993, p.238, 549번.
 181) 임동권, 『한국민요집』 2, 集文堂, 1980, p.308, 922번.

잔디잔디 금잔디에 벗을삼고 못오든가
 청송녹수 산야생전 깊은밤에 귀촉도불려 웃오든가
 칠세동강 고기를낚아 못오든가
 약수궁의 배가없어 못오든가
182)

죽음이나 부재에 대한 비애인데 억압된 심정의 자유로운 표출로 비애를 이겨 내고 있다. 님이 어딘가로 풍월하러 놀기 좋아 못 오는 것일까? 예쁜 여자에 매혹되어 돌아오지 못한 걸까? 내 얼굴을 보기 싫어 안 온 건가? 온갖 상상을 하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한다. 무엇을 봐도 임 생각이 난 것이다. 비슷한 표현과 自由奔放한 상상력은 여성민요에만 국한되지 않고 <백발가>183) 등 다른 민요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풍부하고 자유분방한 상상력은 한민족의 민족성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2. 아름다움 추구

“댁드레 연지분들 사오/저 장사야 네연지분 곱거든 사자/곱든 비록 아니하되/바르면 네 없던 교태 절로나고/님 사랑하시는 연지분이오니/진실로 그러하면/덧말아치나 사자”184) 연지와 분을 발라 화장을 해서 예뻐지면 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봉선화染指하고 머리가 윤기있고 검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에다 아주까리 기름 또는 동백 기름을 발라 멋을 내기도 했다. 머리 끝에 땀기를 달고 쪽을 찌면

182) 임동권, 『한국민요집』 2, 集文堂, 1980, p.280, 872번.

183) 임동권, 『한국민요집』, 集文堂. 늙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것저적 궁리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는백발 금에볶아 만당잘곡 사려놓고 빌어보면 안올랑가/ 좋은술을 빚어내어 ㅍ내보면 안올랑가/ 드는칼을 내다치면 혼이 나서 안올랑가/ 소진장의 구변으로 달래보면 안올랑가/ 염라대왕 소리하야 곤치보면 안올랑가”. 다른 각편도 있다. “슬프고 슬프고나 가는세상 슬프도다/ 백년이 다뫓가서 백발됨이 슬프도다/ 드러당 드러당 에헤헤 어무림 구렁다 그렁고말고/ 장대에 소부들아 백발보고 웃지마소/ 귀밑에 오는백발 털끝마다 점고하네/ 장비불러 호령하면 겁을내고 아니올가/ 공명안중 도를 닦아 덕을편면 아니올가/ 진시왕 힘을빌여 성을내면 아니올가/ 항우의 힘을얻어 주먹치면 아니올가/ 공명의 무술빌어 막아보면 아니올가/ 조조같이 모사내어 피를쓰면 아니올가/ 관운장의 청룡도를 휘두르면 아니올가/ 의적의 술을얻어 술을주면 아니올가/ 장양의 옥통수로 슬피불면 아니올가/ 소진장의 주변으로 달래보면 아니올가/ 만만진수 차려놓고 빌어보면 아니올가/ 만고미인 양귀비를 앞세우면 아니올가/ 오는백발 어이하리 웃어봐도 쓸데없고/ 울어봐도 쓸데없고 백수한이 쓸프도다”.

184)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78.

비녀를 꽂고 노리개 은장도를 차며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고 허리에는 주머니를 차서 단장한다. 丹脣皓齒, 蛾眉눈썹, 回裝저고리, 외씨 버선, 繡唐鞋는 미모를 형용하는 어휘들이 옛 여성들이 추구하는 미인상을 말해 준 것이다. “……청산에 세류요에 태도를 띄웠는듯/광채를 도와있고 주순을 반개하고/명모를 홀로띠고 호치를 드러내어/향어를 수작할제 부용화 피었는데/새달이 얼희는듯 오색운 깊은곳에/일선녀 내려온듯 서시가 고쳐오며 태진이 다시난다”¹⁸⁵⁾하고 노래를 부르며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동경하는 미인의 기준을 말해 주는 것이다.

얼굴 화장과 몸 치장 외에 생활 공간의 도처에 예쁘게 꾸미는 데 신경을 쓴다. 생활 공간의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방치장도 정성을 들여서 한다. “피꼬리도 그려놓고, 청룡 황룡 문양의 벽지로 벽을 발라 장식하고, 대공단 이불을 함께 덮고 九鳳枕이나 원앙금침 잣베개를 베고, 셋별처럼 반짝이는 요강과 대야를 놓고 花鳥병풍과 인물 병풍을 둘러친……”¹⁸⁶⁾생활도구까지 일일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¹⁸⁷⁾ 이 외에 외국인의 시각으로 언급할 것이 하나 있다. 즉 한민족의 뛰어난 색채감과 색채 운용 능력이다. 임동권이 한중일의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백학을 타고 내려왔다는 것에 비해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에서는 무지개가 하늘나라와 인간세계를 연결시키는 구실을 했고 일곱 가지 색의 환상과 같은 그 아름다운 포물선의 선과 색깔을 상상해 내 한민족의 다채로운 색깔을 선호하는 민족성이 드러난다고 분석한 것이 있다. 단일한 색깔보다 다양한 색깔 그리고 색깔간의 적절한 배합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한다. 이런 색채 운용은 시각적인 것에 뿐만 아니라 미각적인 것에도 적용된 것이 있다. “향기 있고 먹어도 좋은 꽃잎을 따서 전을 부치는 속에 넣어 먹으니 화전이다. 화전은 꽃의 색깔과 향기로 멋을 내고 미각을 돋구는 풍류에 속한다”. 음식을 미각으로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 미도 추구하는 것이다. 먹어도 예쁜 것으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예쁘게 하는 습관이 여러 방면에 들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임동권의 한국민요논고 상권 자료에 따르면 한국민요에서 색채어와 꽃 이름의

185)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81.

186) 임동권, 『한국의 민요』, 일지사, 1986, p.45.

187)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p.75-91 참고.

빈도율은 30%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임동권이 “한국인의 색채에 민감했고, 풍부한 색채 정서가 있으며 색채를 즐겨 노래하여 생활화하였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한류스타의 화장과 옷차림 그리고 온갖 패션을 살펴보면 색채가 풍부하고 적절하게 運用 되어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화려하고 세련된 멋을 낸다. 한국 화장품 판매 성공 사례도 어찌면 근원적으로 韓민족의 뛰어난 심미적 감각 그중에서도 특히 다정다감한 색채감과 적절한 배합과 운용의 공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인은 다양한 색감, 풍부한 색채정서를 가진 민족이고 높은 심미적 감각을 문화적으로 타고난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¹⁸⁸⁾고 임동권이 제기했다.

한국여성들이 결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었다. 아래 바늘노래를 보면 알 수 있다.

“몸뚱이가 꺾끗하니 마음도 곧을끼요/귀가바로 뚫렸으니 말씨도 바를끼요/반들반들 빛이나니 행실을 닦았던가/뺨뺨한거 잘뚫으니 진귀성도 있을끼요/꼬박꼬박 절을하니 예절을 배웠던가/실과손과 같이가니 의논성도 있을끼요/장옷치마 안하면 부녀모양 되었손가/도복직령 안하면 장부모양 되었손가/천자왕조 입으시면 곧 룡포도 내가갑고/오장육부 없는 것이 소견지각 이상하다/부러지기 일쑤하니 결단성도 있을끼라/넝은실도 무정하다 나는실도 애뜻하네”¹⁸⁹⁾ 바늘의 특징을 살려 마음이 곧고 말씨와 예절 바르고 결단성이 있는 단정한 품행과 아름다운 내면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외적, 내적 아름다움을 견비하면 바로 이상적 인간이다. 특히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더 눈을 돌리는 현대 문명 속에서 더욱 소중한 품행이 된 것이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항상 자신을 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예쁘게 하려고 할 것이다. 微視的으로는 자기를 포함한 자기 주변의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될 것이며 巨視的으로는 즉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온 나라나 지역의 사회 환경이 적어도 거주환경이 아름답게 유지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다가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까지 더 한다면 사회가 어디 추할 리가 있겠는가. 아름다운 외견에 정직하고 與人爲善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견비하면 자연스럽게 그 미가 깊어질 것이다. 한민족은 항상 예뻐 보이는 노력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188) 임동권, 『한국민요논고』, 민속원, 2006, p.132.

189) 임동권, 『한국민요집』 2, 集文堂, 1980, p.430, 1150번.

인 것 같다.

3. 높은 이상과 대범함

“하늘에 지치달아 달가운데 계수나무/금도끼로 찍어내어 은도끼로 다듬어서/베틀하나 짜여놓고 베틀농세 베틀농세/옥난간에 베틀농세”¹⁹⁰⁾ 달 가운데 계수나무로 베틀을 만들고 계수나무를 다듬는 도구는 은도끼와 금도끼이고 베틀을 놓는 데는 대청마루나 뒷골방이 아니고 玉欄杆으로 되어 있다. 무한한 상상력과 뛰어난 미감각으로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동경과 꿈의 세계를 그려 보고 있는 것이다. “동방삭이 내아들아/동방화초 내며느라/부귀영화 내손자야/일등미인 내딸이야 /일월성광 내사위야/외방화초 외손자야/오룡조룡 앞세우고/경포대에 달구경가자”¹⁹¹⁾ 한국여성들의 큰 마음 스케일은 이처럼 자식들이 크게 될 바램에서 볼 수 있다. 東方朔은 三千甲子를 즉 萬八千歲를 살았다는 설이 있다. 자기의 아들도 동방삭처럼 무궁한 장수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동방화초는 며느리를 아름답게 만발한 동방화초에 비유했다. 어린 손자들은 커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하고, 딸은 일등 미인으로 長成했으면 하고 귀여워했다. 사위는 일월성과 같이 광택이 있고 온 세상을 비치는 사람이 되어야 자기의 딸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계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외손들은 외방화초처럼 子孫滿堂하기를 원했다. 이처럼 온 가족들에게 최대로 축복한 것이고 높은 이상을 그려 낸 것이다.

“해도열고 달도열고 해는따여 안을엮고/달은따서 걸은대여 조물싱이 삼침넣고/무지개는 선을둘러 밤중셋별 귀를싸고/용의발의 끈을달아 한길가에 걸어놓고/올라가는 신관행차 내려오는 구관행차/줍치구경 하고가소 ……”¹⁹²⁾ 옛 여성들 마음의 큰 스케일은 주머니노래에서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는따여 안을엮고 달은따서 걸은대여 조물싱이 삼침넣고 무지개는 선을둘러 밤중셋별 귀를싸고 용의발의 끈을달아”하고 주머니 하는 만드는데 광명하고 아

190)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16.

191)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69.

192) 임동권, 『한국민요집』 4, 集文堂, 1993, p.359, 835번.

름다운 천체와 상상해 낸 가장 신명한 동물인 용도 동원된 것이다. 여성들의 머리 속에 부엌 도구와 柴米油鹽醬醋茶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고 遠大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의 대범함의 또 하나의 사례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듯이 시집식구에 대한 야유나 풍자에서 돌보인다. 시집살이에서 겪는 온갖 고통을 소화하면서 결국에는 시집식구들의 특징을 살려서 풍자 하는 여유가 생겨난 것이다. 고통을 극복하고도 여유가 남는 마음 공간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진취성과 문제의식

적극적 사랑 추구하고 공부에 대한 갈망에 한국 여성들의 강한 진취심이 드러난다. 원가요, 시집선택요, 공부시켜 달라는 노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라버니 장갈랑 내후년에 가고/씨암닭 팔아서 날여워주소/날여워주소 날여워주소 농우소 팔아서 날여워주소/농우소팔아서 보죽하거든 달세경팔아서 날여워주소”¹⁹³⁾ 여자가 시집가기를 원한 노래이다. 시집가려는 초조한 심정을 드러내며 경비가 없다면은 해결책까지 제시해 준 것이다. 오빠가 장가갈 날짜를 늦추고 닭이나 소를 팔아서 출가 비용을 마련하면 된다고 방법을 제시해 낸 것이다. 여자의 강한 주관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여성들의 진취심과 주관이 시집선택요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양천 전춘 전갑섬아 부자에게 말이났오/나는싫소 나는싫소 금전자세 나는싫소”¹⁹⁴⁾, 늘 돈자랑을 하는 부자에 대한 거부감을 토로한 것이다. 이 외에 관리에게, 농부에게, 상인에게, 사공에게, 세민에게, 애국자에게 다 거부한 심정을 드러냈다. 남편 감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일이 늘어놓았다. 관리는 세력을 부리고, 농군은 무식하고, 상인은 속이고, 사공은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세민은 아내를 학대할 것이고, 애국자는 일제하에서 형사가 늘 조사할 것이니 알맞은 신랑감이 없어 차라리 독신 생활이 낫다는 것이다. 이는 여자들 마음 속에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직업별로의 문제점을 제시해 내고 그

193) 임동권, 『한국민요집』 1, 집문당, p.420, 1685번.

194)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38.

런 자들과 같이 안 살겠다고 한 것은 여성들이 자기 미래의 생활에 대해 명확한 구상과 판단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 것이다. 또는 마지막에 “나는중소 나는중소 홀로살기 나는중소” 하며 좋은 배필이 없다면은 차라리 홀로 살겠다는 결의를 한 것이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이런 결의를 내리는 것이 아주 대담하고 파격적이다.

“바느질못뵈 요내팔자/삼사오륙 긴긴해에/큰글못뵈 요내팔자/광천독배로 시집못간 요내팔자”¹⁹⁵⁾ 하며 글을 못 배운다는 것도 한을 토로한 것이다. “……우리엄마 날 낳서/요중사 시키지말고/중다는글공부 다시켜주세요”¹⁹⁶⁾ 이 노래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적극적 글공부에 대한 갈망과 요구를 표출한 것이다. 또는 앞에 시집선택요에서 무식한 농부와 결혼하기 싫다는 것도 유식함에 대한 선망을 보여 준 것이다. 여자들의 진취심을 알 수 있다. 또는 진취심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여진다. 남녀간의 불평등을 비판하는 평등의식과 글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노래로 평등과 권리를 호소한 것이다.

“동편의 동서방네 서편의 서서방네/수절개절 그만하고 신발을랑 돌려놓소/수절개절 하고난들 임종시에 죽을적에/어느누가 머리풀고 염불할이 누가있나 ……”¹⁹⁷⁾ 수절을 하고 살아 보면 고독만 있을 것이다. 수절을 해도 마음의 충족이 없으니 ‘수절은 개절’이란 윤리의 부정을 욕설한 것이다. “이내정절 높이높이 지키리라”라는 것부터 “수절개절”라는 욕설까지는 여성들 인식의 변화와 발전이 보여진다. 부당질서의 문제를 인식하여 명확하게 표출해 내는 것은 여성들이 강한 문제의식과 명확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는 민족성을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당을 침묵으로 넘어가 주거나 방관자가 되는 것은 더 부당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낼 뿐이다. 보통의 불만을 토로하는 식이든 해학적 표현이든 심지어 욕설이든 목소리를 내서 병이 더 심해지지 않게 조정을 하거나 치유 요구를 하는 것이 침묵으로 사회의 병을 키우는 것보다 낫다. 한국의 영화를 보면 자기의 목숨을 바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가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이나 사회의 불공정과 비리에 대해 시정 요구를 굳세게 하는 주인공 형상들이 인상이 깊다. 관람자들을 교화하고 깊이 반성하게끔 영화 속 주인공이든 영화를 만

195) 임동권, 『한국민요집』 4, 集文堂, 1993, p.300-301, 682번.

196) 임동권, 『한국민요집』 3, 集文堂, 1993, p.721, 1652번.

197) 임동권, 『여성과 민요』, 集文堂, 1989, p.200.

든 자이든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용감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한국 사회가 정상적 궤도에 오르게 하는 데 공적을 남긴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강동학은 민요를 노래문화론의 시각에서 보면 전통사회에서 함께 존재했던 궁중가요나 상층가요, 또는 대중가요, 가곡 등 오늘의 문화에 존재하는 노래들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한 바가 있다. 즉 주제가 개방적이라는 점, 언술이 주체적이라는 점, 불합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는 점 세 가지로 집약했다.¹⁹⁸⁾ 민요는 민중들의 생활을 대상으로 하고 민중들이 부딪치고 겪는 세상사를 모두 자신의 시각과 정서로 노래화한다. 민요 주제도 어떤 한 면에 국한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다. 그중 특히 문제의식은 민요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요를 불러 온 민중들은 사회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삼거나 풍자하였다. 자식이 개가하는 어머니를 문제삼거나 자기보다 율체를 더 위하는 오빠에 대한 불만의 토로, 어린 신랑이나 남편의 무능함을 문제삼거나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노래하고 자기를 차별한 시집식구들에 대한 며느리의 미움 표출 등 여성들이 다양한 일에 대해 거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는 체념 어조로든 해학 어조로든 욕설로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적 문제의식을 표출하도록 한다. 문제의식이 있는 데 표출하느냐 안 하느냐 민족에 따라 다른 성향을 보인다. 문제를 인식해도 그저 마음에 담아두고 사태를 지켜보는 성향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인식한 대로 표출해 내는 성향도 있다. 후자는 어떤 면에 있어서든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한다.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의 불합리를 줄여가며 삶의 진보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동학은 보고 있다.¹⁹⁹⁾ 또는 문제의식을 적극적 과감하게 표출해 내야 불합리가 응징되고 사회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문제의식을 표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심적 치유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 외에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고 해학성이 풍부하다는 특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특히 부당을 느꼈을 때는 횡폭을 가한 편을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어

198) 강동학,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2006, p.139.

199) 강동학,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2006, p.146.

조로 편찬하고 풍자한다. 슬기롭게도 재미있게 멋있게 싸우거나 반항하는 성향이 드러난다. 꼭 피를 흘리고 죽이거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부당과 불합리가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해학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해학성 관련 앞에서 고찰한 바가 있으니 여기서 두 번 다시 서술을 전개하지 않기로 하겠다.

V. 결론

민요는 한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는 민중들이 삶에 대한 애환, 민족혼과 정신을 아무 윤색과 기교없이 순박하게 담아 둔 민족의 예술이고 문화유산이다. 민요는 음악적 요소, 사실적 요소와 연행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고의 작자가 음악적 예술적 조예가 높지 못해서 민요의 음악적 연행적 요소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 오직 민요의 사실에 집중해 보려고 했다. 음악적 연행적 부분의 분석까지 있으면 더 완벽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여 사실에서나마 보여진 정서나 의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문화 중의 빛나는 점들을 살펴보려고 했다. 한민족의 뛰어난 감수성과 예술 창조력에 인해 민요 작품이 수없이 많은데 본고는 역시 한국 여성민요와 여성민요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다뤄 보기로 했다. 첫 장에는 한국여성들의 한 즉 그때 당시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천대, 그리고 그러한 현실의 사회적, 제도적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2장에서는 온갖 사회적, 제도적 억압과 구속에 대해 여성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한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죽음과 현실 도피 등 소극적 대응도 있는가 하면 슬기로운 반항과 온갖 고통을 극복하여 행복한 삶을 이뤄냈다는 적극적 대응도 있었다는 것을 보인다.

3장에서는 한국여성민요와 여성의식에서 드러난 긍정적 요소를 집어내서 살펴 보도록 했다. 바로 이런 긍정적 요소들이 한국 문화의 매력을 한 층 더 해 준 빛나는 부분이라고 보아서 그랬다. 이런 긍정적 요소들은 아직도 이 세상 어딘가에 고통과 천대를 받는 여성들에게 가르침과 계시를 줄 가치를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직도 여러 구속에서 사는 여성들이 이런 긍정적 에너지를 받아서 구속

에서 벗어나 행복을 되찾으리라 믿는다. 중국민요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중국민요와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향후 양국 여성민요 및 여성의식의 비교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성민요라고 해도 총체적으로 보는 편이라 세분화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웠다. 여성민요의 표현 방식과 수법 등 별로 넓지 못한 주제를 가지고 보다 자세하고 섬세한 연구를 해 볼 만하다. 주제별로 나름대로 연구 가치가 있으니 보다 세밀하고 새로운 연구가 계속 되기 바란다. 한국민요의 해학성 연구, 한중민요비교연구 등 후속 연구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한국민요의 수사법에 대한 고찰도 할 만하다. 비유법의 예를 들어 보면 “아버지가 ‘연대’, ‘댓잎’, ‘초록제비’, ‘신주병풍’으로, 어머니가 ‘연잎’, ‘뽕나비’, ‘만년병풍’으로 비유되면, 부모와 자식이 ‘고목과 가지’, 어머니와 자식이 ‘꽃과 잎’, ‘속잎과 겉잎’, ‘실과 바늘’의 관계로 표현된다”²⁰⁰⁾고 좌혜경이 제시한바가 있다. 그리고 좌혜경은 가마귀, 파랑새, 두꺼비, 호박꽃, 백일홍, 하늘, 달, 구름 등 자연물이나 동식물의 상징의미²⁰¹⁾에 대해 정리한 바가 있어 이를 참고로 삼아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될 가치가 있으리라 본다. 한국민요와 중국민요를 살펴보면 같은 주제를 표현하는데도 다른 사물을 가지고 표현하거나 같은 사물의 다른 특징을 살려서 함으로 비교 연구를 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양국의 사물에 대한 이해와 어떤 주제를 표현하는 데 예술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농경사회 속에서 세계를 극복하고 세계와 타협하는 일상의 과정 속에서 민요는 지어지고 전파, 전승되며 재창조되어 왔다. 민중들이 민요를 부르는 일은 세계에 대한 자아의 대처 방식이며 삶 그 자체를 영위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통사회 속에서 인력 위주로 이루어져 왔던 노동요는 일의 소멸, 기계화 등에 의하여 자생적 시공을 잃어 버렸고, 그에 따라 노래도 잊혀지고 있다….”²⁰²⁾, “그리고 민요의 자리에 유행가가 들어와 있다는 문화 환경의 변화를 현실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우리는 민요의 소멸을 마냥 아쉬운 눈길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록 자위적 시공에서나마 민요를 많이

200)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p.124.

201)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p.95.

202)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p.47.

부르고 들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럴 때에 민요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전승, 의미부여가 가능하다”²⁰³⁾고 류종목은 민요 전승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다. 현대 文明의 물결 속에서 민요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도 전통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다. 이 분들은 전통의 민중들의 소리들을 간직하고 있다가 기회를 만나 전통과 문학유산이 오늘날까지 전승해 오는데 기억해야 하며 고마운 분들이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이런 하나의 문화나 문명이 소멸되지 않도록 소박하면서도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 민요가 옛 사람들의 노래로 시공간을 초월해 현대인에게 메시지를 전해 준다. 민요에서 교훈을 얻어 긍정적 에너지를 받아 삶을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민요의 미학적 가치를 밝혀 적용하여 더 아름다운 삶을 지향해야 한다. 여성은 물론 전 인류 행복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데 민요는 또한 하나의 돌파구일 것이다.

203)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p.47.

附錄:

A 시집식구-며느리

-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며느리
- Ab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자살하는 며느리
- Ac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한탄하는 며느리
- Ad 시집식구가 깨진 그릇 물어내라자 항의하는 며느리
- Ae 시집식구가 병어리라고 쫓아내자 노래 부른 며느리
- Af 시집식구가 모함하자 자살하는 며느리
- Ag 시너머니가 며느리를 소송하자 항의하는 며느리
- Ah 시누가 옷을 찢자 항의하는 며느리
- Ai 시누가 죽자 기뻐하는 며느리
- Aj 망귀를 꾸어 시집식구에게 쫓겨난 며느리
- Ak 사촌형님이 밥을 해주지 않자 한탄하는 사촌동생

B 남편-아내

- Ba 베짜며 기다리던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
- Bb 남편이 기생첩과 놀며 모른 체 하자 자살하는 아내
- Bc 진주낭군이 기생첩과 놀자 자살하는 아내
- Bd 길에서 만난 남편이 몰라보자 한탄하는 아내
- Be 남편에게 편지하나 오지 않자 한탄하는 아내
- Bf 이별한 아내가 죽자 한탄하는 남편
- Bg 집나갔던 아내가 붙잡자 뿌리치는 남편

C 친정식구-딸

- Ca 어머니 묘를 찾아가는 딸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

Cc 시집간 딸이 편지하자 한탄하는 친정식구

Cd 시집간 딸이 쫓겨오자 반기지 않는 친정식구

D 부모-자식

Da 아버지의 재혼을 원망하는 자식

Db 계모로 인해 죽는 자식

Dc 부모와 이별하고 전쟁에 나간 자식

E 오빠-동생

Ea 오빠가 부정을 의심하자 한탄하는 동생

Eb 오빠가 물에서 구해주지 않자 한탄하는 동생

Ec 오빠가 울케 땡기만 사오자 한탄하는 동생

F 삼촌식구-조카

Fa 삼촌식구 구박받다 혼인하나 배우자가 죽은 조카

Fb 삼촌식구 구박받다 시집가나 신랑이 죽은 조카

Fc 삼촌식구 구박받다 시집가나 신랑이 죽은 꼬댁각시

G 신랑-신부

Ga 혼인을 기다리다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Gb 처녀의 저주로 혼인날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Gc 본처의 저주로 혼인날 신랑이 죽자 한탄하는 신부

Gd 혼인날 신부가 애기를 낳자 돌아가는 신랑

Ge 신랑이 성불구이자 중이 되는 신부

H 외간남자-여자

Ha 외간남자의 옷이 찢기자 께매주는 여자

Hb 외간남자와 정 통하다 남편에게 들킨 여자

Hc 주머니를 지어 걸어놓고 남자 유혹하는 처녀

Hd 종이 유혹하자 거절하는 여자
He 중에게 시주한 뒤 쫓겨나는 여자
Hf 장사가 성기를 팔자 이를 사는 과부
Hg 장사가 자고간 뒤 그리워하는 과부

I 총각-처녀

Ia 사모하는 총각을 찾아가 혼인하는 처녀
Ib 나무캐다 사랑을 나누는 총각과 처녀
Ic 총각이 어머니를 통해 청혼하자 받아들이는 처녀
Id 담배를 키워 피우며 청혼하는 총각

J 본처-첩

Ja 첩의 집에 찾아가는 본처
Jb 첩으로 인해 한탄하는 본처
Jc 첩이 죽자 기뻐하는 본처
Jd 본처가 죽자 기뻐하는 첩

K 기타 사람-사람

Ka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자 한탄하는 여자
Kb 메밀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여자
Kc 나물반찬을 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여자

L 사람-동물

La 자식이 없자 곤충을 자식으로 여긴 여자

A1 가. 시집살이를 살 수 없었다.

나. 종이 되어 갔다.

다. 친정으로 동냥 갔다.

라. 시집에 돌아가 남편과 같이 살았다.

A2에는 라가 없다.

B 가. 科學 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나. 남편이 죽어와서 절망했다.

C 가. 남편 없이 고생스럽게 시집살이했다.

나. 남편을 만날가 해서 빨래하러 갔다.

다. 남편이 못본 चे하며 지나갔다.

라. 시어머니가 사랑문을 열고 보라고 했다.

리. 물을 열고보니, 남편은 기생첩을 끼고 놀고 있었다.

마. 절망해서 자살했다.

사.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 후회했다.

D1 가. 妾으로 인해 불행했다.

나. 첩의 집을 찾아 갔다.

다. 어쩔 수 없이 되돌아 왔다.

D2에는 가가 없다.

E1 가. 어마의 棼(訃音)이 와서 가려고 했다.

나. 시부모가 가지 못하게 방해했다.

다. 남편의 도움으로 가게 되었다.

라. 가다가 어마 상여와 마주쳤다.

마. 두 오빠가 어마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다.

바. 셋째 오빠가 어마 얼굴을 보게 했다.

사. 어마를 무사히 잘 보냈다.

E2에는 다, 바가 없고, 사' "다투다가 돌아섰다"로 되어 있다.

F1 가. 부모가 일찍 죽었다.

나. 남편도 일찍 죽었다.

다. 삼촌 집에서 고생하면서 살았다.
F2에는 나가 없고 다 다음 라 “나중에는 성공해서 잘 살게 되었다”
F3에는 ‘가’, ‘나’만 있다.

G 가. 처녀가 총각을 유혹했다.

나. 총각이 거절했다.

다. 처녀가 총각이 죽으라고 저주했다.

라. 저주대로 되어 총각이 죽었다.

마. 시집가는 길에 총각의 무덤 옆을 지나가다가, 처녀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 죽었다.

바. 저승에서 처녀와 총각은 부부가 되었다.

H 가. 처녀가 잘 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 한 번 가도 못 만나고 두 번 가도 못 만났다.

다. 세 번째야 만났다.

I 가. 장가를 가자고 했다.

나. 무리해서 장가를 가게 되었다.

다. 新婦가 죽었다.

라.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

J 가. 장가를 가게 되었다.

나. 新婦의 不貞한 행실이 드러났다.

다.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

K 가. 여자를 만나러 갔다.

나. 옷이 찢겨져서 낭패를 당했다.

다. 아내가 알면 어쩔가 근심했다.

라. 그 여자가 옷을 꿰매 주겠다고 했다.

L 가. 처녀가 땡기를 잃었다.

나. 총각에게 주운 땡기를 달라고 했다.

다. 총각은 자기와 결혼하면 주겠다고 했다.

M 가. 오빠가 누이를 모함했다.

나. 누이가 모함에 대해 항변했다.

다. 누이가 오빠에 대한 항의로 죽겠다고 했다.

N 가. 아내 옥단춘과 이별했다.

나. 아내가 보고 싶어 돌아왔다.

다. 돌아와 보니 옥단춘이 죽었다.

<參考文獻>

1. 단행본:

- 강등학, 『한국 민요학의 논리와 시각』, 민속원, 2006.
-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首善社, 1949.
- 김무현, 『한국 노동 민요론』, 집문당, 1986.
- 류종목, 『한국민요의 현상과 재조명』, 민속원, 2006.
- 박경수, 『한국민요의 유형과 성격』, 국학자료원, 1998.
- 서영숙, 『우리민요의 세계』, 도서출판 亦樂, 2002.
- 서영숙, 『한국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도서출판 亦樂, 2009.
- 신정숙, 『전통사회의 여성생활』, 대관문화사, 1986.
- 신경림, 『민요기행』, 문이당, 2005~2008.
-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민속원, 2007.
- 윤행석, 『한민족의 소리를 만나다』, 심미안, 2011.
- 任東權, 『韓國民謠集』 (1-5), 集文堂, 1961-1980.
-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宣明文化社, 1974.
- 임동권, 『한국민요사』, 집문당, 1974.
-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集文堂, 1982.
- 임동권, 『한국의 民謠』, 일지사, 1986.
- 임동권, 『여성과 민요』, 집문당, 1989.
- 임동권, 『한국민요논고』, 민속원, 2006.
- 鄭東華, 『한국민요의 사적 연구』, 一潮閣, 1981.
- 정한기, 『한국 민요의 미학』, 도서출판 박이정, 2015.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啓明大學出版部, 197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84.

조영배, 『한국의 민요---아름다운 민중의 소리』, 민속원, 2006.

조요한,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1999.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99.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최은숙, 『민요담론과 노래문화』, 보고사, 2009.

최철,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

최철, 설성경 엮음, 『민요의 연구』, 정음사, 1984.

(사)서도소리진흥회, 『한국민요가사전집』, 휴먼앤북스, 2011.

우리사회연구학회, 『현대사회와 여성』, 정림사, 1998.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시문화연구원, 1981.

『한국민요대전』, 문화방송, 1995.

朱雨尊, 『民間歌謠全集』, 上海三聯書店, 2014.

2. 논문:

강등학, 「한국의 민요연구 역사와 문제의식의 추이」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한국민요학』, 2009.

강진옥, 「여성 서사민요 화자의 존재양상과 창작집단의 향유의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2.

김월덕, 「시집살이노래와 여성 개인서사의 상관성」, 『한국민요학』, 제33집, 한국민요학회, 2011.

길태숙, 「민요에 나타난 ‘여성적 말하기’로써의 죽음」, 『여성문학연구』 9, 예림기획, 2003.

박지애, 「영남지역 서사형 시집살이노래의 통시적 변화와 특징-〈중이 된 며느리〉 유형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BK연구교수, 『한국민요학』, 2015.

박지애, 「사례를 통해 본 여성민요의 소통과 전승 현장 고령군,경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014.

서영숙, 「충북 여성 민요의 정서 표현양상과 현실의식」, 청주대학교, 『한국민요학』 22, 한국민요학회, 2008.

서영숙, 「서사민요 <그릇 깬 며느리 노래>의 전승양상과 향유의식」, 한국민요학, 2010.

서영숙, 「<이사원네 맏딸애기> 노래의 서사적 특징과 현실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11.

서영숙,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의 특징과 의미-<애운애기>, <허웅애기> 노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12.

성기영, 「속담과 민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신은경, 「‘흥’의 예술적.계층적.시대적 전개」, 전주우석대, 『한국고전연구』 1권, 1995.

유목화, 「여성 민요에 나타난 감성의 발현양상과 치유방식-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 인문한국(HK)연구원, 공연문화연구, 2010.

이목희, 「말하기 방식으로서의 여성민요」, 목포대학교, 『비교민속학』 제45집, 2011.

이정아, 「서사민요화 대중가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 가천대학교, 『한국민요학』, 제42집, 2014.

이창식, 「민요의 성담론과 사랑 표출 양상」, 『실천민속학연구』 제8호, 2006.

임재해, 「여성민요에 나타난 시집살이와 여성생활의 향방」, 안동대학, 『한국민속학』 21, 민속학회, 1988.

장연분홍, 「전남지역 시집살이 노래 연구」, 全南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2007.

정한기, 「영남지역 <모심는소리>의 愛情 노랫말에 나타난 情緒와 그 의미」, 동양대학교, 『한국민요학』, 제31집, 2011.

함복희, 「시집살이 민요 스토리텔링의 치유적 효과 - 강원지역 민요를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 2009.

현승환, 「생불꽃 연구」, 白鹿語文 第13輯, 1997.2.

- 博平，趙方，「談談中國民歌的美學功能」，『音樂創作』，2009年第6期。
- 陳文苑，程音娟，「徽州民歌中女性的愛情觀」，黃山學院，『長春大學學報』，2015年第9期。
- 何麗君，「“走西口”特殊境遇与民歌中的女性形象」，四川師範大學，『甘肅社會科學』，2012年第5期。
- 金道行，「三峽民歌的女性情結」，三峽大學，『三峽大學學報』，2006年第2期。
- 李莉，「女性与民歌：叶梅小說的二元文化符碼」，湖北民族學院，『中華女子學院學報』，2014年第2期。
- 王哈擘，「河北民歌教育功能研究」，河北師範大學，碩士研究生學位論文，2008。
- 王燕，「獨立的聲音——近代民間情歌中的下層女性」，南京大學，『廣西社會科學』，2003年第3期。
- 姚春曉，「湘西民歌中對女性形象描述的意義闡釋」，吉首大學師範學院，『大眾文藝學術版』，2011。
- 楊鳳萍，「中國民歌中的女性形象」，天津師範大學，碩士研究生學位論文，2010。
- 趙敏，「傳統皖西民歌視野下女性的生存狀態研究」，皖西學院，『淮南師範學院學報』，2015年第1期。

中文提要

韩国民歌中女性的现实对应方式考察

孫奕

民歌是廣大勞動人民在勞作和生活的現場即興創作的，天然樸素，未經過任何文辭上的加工、修飾，因此更原本地反映了當時人們的心境，思想情感和內心世界。民歌里蘊涵著百姓的喜怒哀樂，特別是在男尊女卑，男性優越主義思想主導的社會背景下，女性們通過民歌唱出了她們的心聲，訴說著她們內心的苦惱，孤獨，渴望。本文主要選用了任東權的《韓國民謠集》（1-5）里的資料，還選用了一些敘事民歌。民歌里有她們對逝去的親人的思念，對薄待自己的婆家人的埋怨和厭惡，對愛情的希冀，對愛情和婚姻不忠的男性的怨恨，對現實的不滿，對各種束縛和壓迫的反抗，女性民歌里可以了解當時當地的風俗，世態人情也可以了解到有趣的傳說和老故事。比如，男子向心儀的女子表達心意，向河邊洗月經帶的女子要月經水喝，兩次遭到拒絕后用自殺來表達愛意。還有正室夫人磨刀霍霍，去找妾來個生死決斷，看到妾不僅漂亮而且禮數周到、待人熱情之後，感歎到自己都覺得漂亮，何況身為男人的丈夫，於是收回殺機，甚至在歸家之前囑咐妾照顧好丈夫。民歌中的各種修辭，可以感受到韓國女性豐富的想象力和浪漫氣質。本文以一個外國人的視角，通過對女性民歌的考察，了解朝鮮時期以及韓國近代初期韓國女性的生活面貌和她們的內心世界，從女人結婚前後隨著角色的轉變遇到的各種問題和重男輕女的封建思想主導的社會環境里種種苦悶與悲哀。結婚前遭遇母親去世或改嫁的無助和不安，父親再娶后繼母的虐待和父親的不明是非。在自己和嫂子同時落水的情況下，對拋開自己先救嫂子的哥哥的失望，父母雙亡后寄居到叔嫂家遭白眼、受欺凌，等等。結婚后再婆家遭公婆打罵，受小姑的欺侮，一夫多妻制度下還要忍受丈夫納妾與不忠，與妾爭奪丈夫的愛。除了這些精神上的壓力以外，婆家的貧困和超負荷的勞動量也使得舊時代的女性免不了肉體上的勞苦。

第三章考察了韓國女性的現實對應方式。通過大量的民歌資料可以了解到她們面對現實的種種不公，態度和反應是不同的。通過大量的民歌資料可以了解到她們面對現實的種種不公，態度和反應是不同的。即有的積極、樂觀，對未來充滿希望，她們

想辦法改善與相關人物的人際關係，使矛盾最小化，或者以幽默、滑稽的話語對各種欺壓自己的行為和人物進行諷刺，來排解心中的憤恨。或者奮發圖強，不甘於貧窮，勤奮節儉，最終克服經濟上的困難。勤儉致富之後還不忘幫助鄰里，懂得分享和體恤他人。面對現實無能為力的時候，通過想象，展現出一個理想的美好世界，或者將自己想象成具有超自然能力的女性，解開現實中無法解決的難題，即通過想象來表達自己希冀的世界或者作為女性應有的生活姿態與面貌。她們或者用愛和包容去化解矛盾，或者機智幽默地對各種欺壓行為進行反抗和抨擊，或者以開拓者的精神，勤奮進取，擺脫困境，即使在無能為力的情況下，也懂得通過豐富的想象去表達自己所希冀的世界和追求的生活姿態。對於愛情，她們甚至不顧當時世俗的眼光，勇於和心儀的男子或含蓄或奔放的互通情感，她們或者約定好時日，等待愛情實現，或者當時當地，體驗愛情的喜悅與甜蜜。不受當時貞潔觀念的束縛，不壓抑自己的感情，不放棄自己對愛情的渴望與追求。與此相反，有的女性面對黯淡的現實則消極、悲觀，對現實或者發出歎息表示無能為力，或者逃避，或者選擇出家，斷絕一切使自己痛苦的人際關係網來斷絕痛苦。或者通過結束自己的生命的方式來結束所遭受的欺凌，還有以詛咒的方式企圖使給自己帶來痛苦的人不幸，甚至企圖剝奪他們的生命來排解內心的怨恨。對於愛情，她們要麼順從與當時的貞潔觀念，飽受獨孤，要麼也會對婚姻不忠和背叛，和心儀的男子私通，也用出軌的方式滿足自己體驗愛情的慾望。

本文的最後一章著重考察了韓國朝鮮時期及近代初期女性民歌中體現出的女性意識中的肯定因素。除了具備世界女性共有的特點——母愛、忠孝之外，致力於發現韓國文化土壤里孕育出的韓國女性特有的氣質或品行，其中包括前面提到過的豐富奇特的想象力和浪漫性，還有對外在美的重視，也兼顧內在美。豐富奇特的想象力和浪漫性可以從《戀母歌》，《白髮歌》，《青孀謠》，《寡婦歌》等民歌中發現。韓國女性不僅重視妝容、衣著，對生活空間的處處也都花心思裝扮，努力使房間、生活道具等整潔、美觀。對縫衣物的針的讚美之詞中可以看出韓國女性追求的美好品行。另外，愛和寬容，高的理想，強烈的進取心和問題意識等，也是韓國民歌中體現出來的韓國女性性格特征及意識中的積極的，值得肯定和贊賞的方面。

中國的民歌更是豐富多彩，各個地方的民歌都有著濃厚的地域色彩和民族色彩。日後中韓民歌的比較研究有待進行。比如反映婚後生活的民歌有很多相似之處，公婆不善待，小姑告狀，小丈夫與童養媳，婚姻不幸而出家，丈夫納妾與不忠，妻妾不等等是兩國民歌中共有的部分。另外，兩國民歌中也有很多不同之處，比如韓國民歌中有很多關於睡眠的民歌，通過描寫睡眠不足來反應超負荷的勞動量和在婆家只是被作為勞動力的地位和處境。更多的不同之處有待比較和挖掘。本文將視角鎖定女性民歌，範圍比較廣，考察不夠細緻，日後有待於對韓國民歌更精細的考察。

關鍵詞： 女性民歌， 男性優越主義， 封建思想， 現實對應， 積極， 消極， 現實意識， 想象力， 進取， 問題意識

